

보험동향 2017년 봄호

Ⅰ 총괄	전용식 (연구위원)
Ⅱ 경제금융 동향	세계경제 권오경 (연구원) 국내경제 정인영 (연구원) 국내금융 이해은 (연구원)
Ⅲ 국내보험 동향	생명보험 최 원 (선임연구원) 이해은 (연구원) 손해보험 김진억 (수석담당역) 정인영 (연구원)
Ⅳ 해외보험 동향	미 국 이해은 (연구원) 영 국 권오경 (연구원) 일 본 이소양 (연구원) 중 국 이소양 (연구원)

■ 목차

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1
2. 국내경제 / 23
3. 국내금융 / 43

II. 국내보험 동향

1. 보험 총괄 / 53
2. 생명보험 / 59
3. 손해보험 / 76

III. 해외보험 동향

1. 미국 / 99
2. 영국 / 106
3. 일본 / 112
4. 중국 / 122

부록. 통계표 / 133

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2016년 4/4분기 세계경제 성장률은 주요국의 내수는 증가하였으나 순수출은 감소하며 전분기대비 하락함.
- 2016년 4/4분기 미국(1.9%)과 유로지역(1.6%), 중국(1.7%)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하락(미국 1.6%p, 유로지역 0.1%p, 중국 0.1%p)하였고, 일본(1.2%)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하였음.
 - 미국, 유로지역, 중국은 순수출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보다 하락함.
 - 일본은 민간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공투자 증가 등으로 전분기와 동일한 성장률을 기록함.
- 2016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6%p 하락한 0.5%를 기록함.
- 2016년 4/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는 전 세계의 동반 상승세로 전분기보다 0.3 상승한 100.0을 기록함.
 - 실물경기 회복과 함께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냄.
- 2016년 4/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5%p 상승한 2.7%를 기록하였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동반 상승함.
- 2016년 4/4분기 주요국 국제금리는 실물경제 회복과 더불어 미국의 금리인상의 영향을 받아 전분기대비 상승함.
- 세계경제는 실물경제지표가 호조되며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세는 둔화될 우려가 있음.

■ 2016년 4/4분기 세계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순수출 감소로 인해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함.

-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순수출이 감소하여 전분기보다 1.6%p 하락한 1.9%(연율) 성장함(〈표 5〉 참조).
- 중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순수출 감소가 지속되면서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1.7%(연율)를 나타냄(〈표 10〉 참조).
- 일본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공투자 증가로 인해 전분기와 동일한 1.2%(연율)를 기록함(〈표 15〉 참조).
-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수출과 수입 증가로 인해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1.6%(연율)를 기록함(〈표 19〉 참조).

〈표 1〉 세계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¹⁾	n.a.	n.a.	n.a.	n.a.	3.2	n.a.	n.a.	n.a.	n.a.	3.1
선진국 ¹⁾	2.4		1.6		2.1	1.5		2.1		1.7
신흥국 ¹⁾	4.7		4.1		4.1	4.2		4.4		4.1
미국 ²⁾	2.0	2.6	2.0	0.9	2.6	0.8	1.4	3.5	1.9	1.6
중국 ³⁾	2.0	1.7	1.8	1.5	6.8	1.3	1.9	1.8	1.7	6.7
일본 ⁴⁾	5.3	0.0	0.6	-1.0	1.2	1.9	2.2	1.2	1.2	1.0
유로 ⁵⁾	3.3	1.6	1.1	2.0	2.0	2.1	1.3	1.7	1.6	1.7

주: 1) 국가별 분기 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된 전분기대비 연율임. 단, 중국은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91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외 39개국 / 신흥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외 152개국 / 유로: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7. 4).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7. 2).

3) 중국 국가통계국(2017. 1).

4) 일본 내각부(2017. 3).

5) Eurostat(2017. 3).

■ 2016년 4/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¹⁾는 전 세계의 동반 상승세로 전분기보다 0.3 상승한 100.0을 기록함.

○ 미국과 유로지역은 실물경제지표 개선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0.2 상승한 100.3과 99.9를 기록함.

○ 일본의 경기선행지수는 완만한 경기회복기조를 반영하며 전분기보다 0.2 상승한 99.8임.

○ 중국은 소비심리 개선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며 전분기보다 0.3 상승한 99.1을 나타냄.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¹⁾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²⁾	100.2	100.4	100.3	100.0	100.2	99.7	99.6	99.7	100.0	99.7
선진국 ³⁾	100.6	100.3	99.9	99.4	100.1	99.2	99.1	99.1	99.4	99.2
미국	100.3	100.4	100.4	100.4	100.3	100.3	100.1	100.1	100.3	100.2
유로	100.4	100.3	100.0	99.8	100.1	99.7	99.6	99.7	99.9	99.7
일본	100.1	100.0	99.7	99.5	99.8	99.4	99.5	99.6	99.8	99.6
중국	99.8	99.7	99.4	99.0	99.5	98.7	98.6	98.8	99.1	98.8

주: 1)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2016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6%p 하락한 0.5%를 기록함.

○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1.0%를 기록함.

○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7%p 하락한 -0.1%를 나타냄.

1) 2007년 1월=100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 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표 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1),2)}

(단위: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3.2	2.0	1.7	1.3	2.0	0.8	1.5	1.1	0.5	1.3
선진국	3.7	3.2	2.4	1.5	2.7	1.3	1.3	1.4	1.0	1.4
신흥국	2.4	0.3	0.7	0.9	1.1	0.1	1.8	0.6	-0.1	1.1

주: 1) 선진국은 미국, 일본, 유로지역 19개국과 기타 국가로 구성되고, 신흥국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국가로 구성됨.

2) 전년동기대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6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5%p 상승한 2.7%를 기록하였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동반 상승함.

○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5%p 상승한 1.2%를, 신흥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4.0%를 나타냄.

○ 두바이 현물지수와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현물지수는 전분기보다 각각 13.2%, 11.6% 상승한 48.5, 50.0이고, CRB 상품지수²⁾는 2.3% 상승한 188.3을 기록함.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²⁾				
	2016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2.7	2.4	2.2	2.7	n.a.	두바이 현물지수	31.1	45.5	42.8	48.5	42.0
선진국	0.6	0.5	0.7	1.2	0.8	WTI 현물지수	35.2	47.8	44.8	50.0	44.5
신흥국	4.5	4.0	3.7	4.0	4.4	CRB 상품지수 ²⁾	165.9	183.4	184.1	188.3	180.6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7. 4); 한국은행; Bloomberg.

2)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 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가격 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가. 미국경제

- 2016년 4/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수출 감소로 인해 전분기보다 1.6%p 하락한 1.9%를 기록함.
 - 민간소비(3.0%)와 민간투자(9.2%)는 전분기대비 증가하면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됨.
 - 수출(-4.0%)은 기저효과 등으로 전분기보다 크게 감소하였고 수입(8.5%)은 크게 증가함.
- 2016년 4/4분기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 증가율(1.7%)과 소비자신뢰지수(107.8)는 전분기대비 모두 상승함.
 - 산업생산 증가율(0.2%), 설비가동률(75.8)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제조업 구매자관리 지수(PMI)(53.3), 경기선행지수(124.2)는 전분기대비 상승함.
 - 실업률(4.7%)은 전분기보다 하락한 반면 취업자 수(44만 3,000명)는 증가하여 전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1.8%)과 생산자물가 상승률(1.0%)은 모두 전분기대비 상승함.
- 2016년 4/4분기 국채금리(3년물 1.23%, 10년물 2.13%)는 FOMC의 기준금리 인상과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전분기대비 급등함.

〈경제성장〉

- 2016년 4/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수출 감소로 인해 전분기보다 1.6%p 하락한 1.9%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3.0%를 기록하며 견조한 증가세를 보임.
 - 주택투자 증가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민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6.2%p 상승한 9.2%를 기록함.
 - 수출 증가율은 기저효과 등으로 전분기보다 14.0%p 하락한 -4.0%로 크게 하락한 반면,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6.3%p 상승한 8.5%를 기록함.
 - 정부지출은 전분기보다 0.4%p 하락한 0.4%를 기록함.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2.3	2.4	2.0	2.6	2.0	0.9	2.6	0.8	1.4	3.5	1.9	1.6
민간소비	4.6	2.9	2.4	2.9	2.7	2.3	3.2	1.6	4.3	3.0	3.0	2.7
재화	5.1	3.9	2.7	4.3	4.2	2.1	4.0	1.2	7.1	3.5	5.7	3.6
서비스	4.3	2.3	2.3	2.2	2.0	2.3	2.8	1.9	3.0	2.7	1.8	2.3
민간투자	2.6	4.5	9.9	1.0	2.0	-2.3	5.0	-3.3	-7.9	3.0	9.2	-1.6
설비	-1.1	6.0	1.3	1.6	3.9	-3.3	2.1	-3.4	1.0	1.4	1.3	-0.5
주택	11.4	3.5	13.3	14.9	12.6	11.5	11.7	7.8	-7.7	-4.1	9.6	4.9
수출	4.5	4.3	-5.8	2.9	-2.8	-2.7	0.1	-0.7	1.8	10.0	-4.0	0.4
수입	11.2	4.4	5.6	2.9	1.1	0.7	4.6	-0.6	0.2	2.2	8.5	1.1
정부지출	-0.4	-0.9	2.6	3.2	1.9	1.0	1.8	1.6	-1.7	0.8	0.4	0.8

주: 전분기대비 연율화합.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7. 2),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소비부문〉

- 2016년 4/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모두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8%p 상승한 1.7%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7.1 상승한 107.8을 기록함.
- 2016년 4/4분기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과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대비 모두 상승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0.3%p 상승한 9.0%를 나타냄.
 -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보다 0.7 상승한 191.9를 기록함.

〈표 6〉 미국의 주요 소비부문 지표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0.7	1.5	1.0	0.2	2.3	-0.2	1.6	0.9	1.7	3.0	0.6	0.1
소비자신뢰지수 ²⁾	101.4	96.2	98.3	96.2	98.0	96.0	94.8	100.7	107.8	99.8	111.6	116.1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 ³⁾ (%)	-6.7	17.2	0.0	-1.8	10.7	1.5	0.7	-1.3	9.0	6.1	-1.9	3.0
주택가격지수 ⁴⁾	173.7	178.8	182.2	182.5	179.3	183.2	188.3	191.2	191.9	188.6	192.8	n.a.

주: 1) 계절조정,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S&P Dow Jones Indices.

〈생산부문〉

■ 2016년 4/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 설비가동률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³⁾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상승함.

○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0.2%를 나타냄.

○ 설비가동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75.8을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대비 2.2 상승한 53.3임.

○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대비 0.7 상승한 124.2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함.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0.8	-1.0	0.1	-0.9	-0.7	-0.3	-0.2	0.2	0.2	-1.2	-0.1	0.1
설비가동률 ²⁾	77.8	76.6	76.7	76.0	77.7	75.8	75.7	75.8	75.8	76.3	75.9	75.9
ISM제조업PMI	53.4	52.4	50.9	48.7	51.4	50.0	51.5	51.1	53.3	51.5	56.0	57.7
경기선행지수 ³⁾	120.3	121.8	122.1	122.8	121.8	122.4	122.9	123.5	124.2	123.3	125.5	126.2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07=100

3) 2004=100

자료: Bloomberg.

3)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고용 및 물가⁴⁾〉

■ 2016년 4/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하락하였으나, 취업자 수는 감소함.

○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4.7%를 기록하고, 포괄적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9.3%를 나타냄.

○ 비농업취업자는 44만 3,000명 증가하여 전분기 증가규모보다 27만 3,000명 감소하고,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5만 3,000명으로 전분기보다 5,000명 감소함.

■ 2016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모두 전분기대비 상승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7%p 상승한 1.8%,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2.1%를 기록함.

○ 전년동기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3%p 상승한 1.0%,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0.4%p 상승한 1.7%임.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단위: %, 만 명)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실업률 ¹⁾	5.5	5.4	5.1	5.0	5.3	4.9	4.9	4.9	4.7	4.9	4.8	4.7
포괄적 실업률(u-6) ²⁾	11.1	10.7	10.2	9.9	10.4	9.8	9.7	9.7	9.3	9.6	9.4	9.2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55.8	81.2	51.1	83.2	271.3	58.8	49.3	71.6	44.3	224.0	23.8	23.5
실업수당 청구자 수 ⁴⁾	29.1	27.9	27.3	26.9	27.8	27.2	26.8	25.8	25.3	26.3	24.7	24.0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0.1	0.0	0.1	0.5	0.1	1.1	1.0	1.1	1.8	1.3	2.5	2.7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1.7	1.8	1.8	2.0	1.8	2.2	2.2	2.2	2.1	2.2	2.3	2.2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3.2	-3.3	-3.3	-3.3	-3.3	-1.8	-1.9	-1.3	1.0	-1.0	3.0	3.7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1.9	2.1	2.2	1.8	2.0	1.6	1.6	1.3	1.7	1.5	1.7	1.6

주: 1)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전분기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4) 물가 지표는 다른 지표와는 달리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전년동기와 비교함.

〈국채금리〉

- 2016년 4/4분기 국채금리는 FOMC의 기준금리 인상과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전분기대비 급등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39bp 상승한 1.23%,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57bp 상승한 2.13%임.

〈표 9〉 미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국채 3년물	0.96	0.96	1.01	1.13	1.01	1.03	0.91	0.84	1.23	1.00	1.47	1.46
국채 10년물	1.97	2.15	2.21	2.18	2.13	1.92	1.74	1.56	2.13	1.84	2.43	2.41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나. 중국경제

- 2016년 4/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순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1.7%를 나타냄.
- 2016년 4/4분기 중국의 주요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 증가율(10.6%)과 소비자신뢰지수(108.1)는 전분기보다 상승하며 소비심리 개선이 지속됨.
 - 산업생산 증가율(6.1%)은 전분기와 동일하였고,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51.4)는 전분기보다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2.2%)과 생산자물가 상승률(3.3%)은 모두 상승하여 디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됨.
- 2016년 4/4분기 국채금리(3년물 3.25%, 10년물 3.48%)는 전분기대비 상승하였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6.833)은 미 달러화 강세로 평가절하가 지속되면서 전분기보다 상승함.

〈경제성장〉

- 2016년 4/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순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1.7%를 나타냄.
 - 고정자산투자는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8.2%를 기록하며 둔화세가 지속됨.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7%p 상승한 -5.2%를 나타내며 감소세가 둔화됨.
 -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6.4%p 상승한 2.3%를 기록함.

〈표 10〉 중국의 지출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실질 GDP ¹⁾	2.0 (7.0)	1.7 (7.0)	1.8 (6.9)	1.5 (6.8)	6.8	1.3 (6.7)	1.9 (6.7)	1.8 (6.7)	1.7 (6.8)	6.7	n.a.	n.a.
고정자산투자 ²⁾	13.7	11.6	10.8	10.1	11.4	10.5	9.7	8.1	8.2	9.0	8.9 ³⁾	
수출 ⁴⁾	9.9	-2.8	-6.3	-5.2	-1.1	-11.9	-6.3	-6.9	-5.2	-7.6	7.9	-1.3
수입 ⁴⁾	-17.6	-13.3	-14.1	-11.6	-14.2	-13.9	-6.9	-4.1	2.3	-5.6	16.7	38.1

주: 1) 전분기대비,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1~2월 누적치.

4)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소비부문〉

■ 2016년 4/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상승하며 소비심리 개선이 지속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10.6%를 나타내며 연간 10% 수준을 유지함.

- 2016년 자동차 구매 급증은 전체 연간 소매판매 증가율에 0.5%p 기여한 것으로 추산됨.⁵⁾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2.4 상승한 108.1을 기록함.

〈표 11〉 중국의 주요 소비부문 지표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0.2	10.2	10.7	11.1	10.6	10.5	10.2	10.5	10.6	10.4	n.a.	n.a.
소비자신뢰지수	107.5	107.7	104.7	103.9	105.9	102.8	101.2	105.7	108.1	104.4	109.2	n.a.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5) 장링(2017. 1. 31), 『중국 경제 동향 및 '17년 전망』, KDB 산업은행.

〈생산부문〉

- 2016년 4/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와 동일하였고, 구매자관리지수는 전분기대비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6.1%를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보다 1.2 상승한 51.4임.

〈표 12〉 중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5.6	6.3	5.9	5.9	6.0	6.8	6.1	6.1	6.1	6.2	n.a.	n.a.
제조업PMI ²⁾	49.9	50.2	49.8	49.7	49.9	49.5	50.1	50.2	51.4	50.3	51.3	51.6

주: 1)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2)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확대를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고용⁶⁾ 및 물가〉

- 2016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모두 상승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5%p 상승한 2.2%를 기록함.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4.1%p 상승한 3.3%를 기록하며 상승 전환함.

〈표 13〉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2	1.4	1.7	1.5	1.4	2.1	2.1	1.7	2.2	2.0	2.5	0.8
생산자물가 상승률	-4.6	-4.7	-5.7	-5.9	-5.2	-4.8	-2.9	-0.8	3.3	-1.3	6.9	7.8

주: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6) 중국 고용의 경우 통계청이 실업률을 집계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실업자가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통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음. 또한 중국 고용지표 발표가 불규칙하여 본고에서는 생략함.

〈국채금리 및 환율〉

■ 2016년 4/4분기 국채금리는 전분기대비 상승하였고,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로 평가절하가 지속되면서 전분기보다 상승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39bp 상승한 3.25%, 국채 10년물 금리는 24bp 상승한 3.48%임.

○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미국 대선과 함께 금리인상 및 달러강세의 영향으로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되면서 전분기보다 2.5% 상승한 6.833위안임.

〈표 14〉 중국의 국채금리와 환율 지표

(단위: %, 위안)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국채 3년물	3.48	3.20	3.05	3.39	3.28	3.90	3.34	2.86	3.25	3.34	3.98	4.23
국채 10년물	3.52	3.48	3.51	3.52	3.50	3.83	3.68	3.24	3.48	3.56	4.08	4.25
위안/달러	6.236	6.204	6.302	6.392	6.284	6.539	6.533	6.667	6.833	6.644	6.898	6.872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다. 일본경제

- 2016년 4/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순수출 감소와 민간소비, 설비투자 증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공공투자와 정부지출 증가로 전분기와 동일한 0.3%를 기록함.
- 2016년 4/4분기 일본의 주요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광공업생산 증가율(2.1%)은 전분기보다 상승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 소매판매 증가율(2.0%)은 상승하였고, 소비자신뢰지수(42.1)는 전분기와 동일함.
 - 전년동기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7.9%)은 전분기에 비해 상승한 반면 민간기계 수주액 증가율(0.3%)은 하락함.
 - 실업률(3.1%)과 유효구인배율(1.40배)은 모두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0.3%)은 전분기보다 상승함.
- 2016년 4/4분기 국채금리(3년물 -0.19%, 10년물 0.00%)는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 현상유지 결정과 미국 금리인상 등의 영향을 받아 전분기대비 상승함.

〈경제성장〉

- 2016년 4/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순수출 감소와 민간소비, 설비투자 증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공공투자와 정부지출 증가로 전분기와 동일한 0.3%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0.0%를 기록함.
 -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3%p 하락한 0.1%를 나타내며 둔화됨.
 - 주택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2.1%p 상승한 2.0%를 기록함.
 - 공공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0.3%를 나타냄.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6%p 하락한 -2.5%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지속함.
 -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5%p 상승한 2.6%를 기록함.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6%p 상승한 1.3%를 나타냄.

〈표 15〉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0.7 (2.7)	0.3	1.3 (5.3)	0.0 (0.0)	0.2 (0.6)	-0.2 (-1.0)	1.2	0.5 (1.9)	0.5 (2.2)	0.3 (1.2)	0.3 (1.2)	1.0
민간소비	0.6	-0.9	0.5	-0.4	0.5	-0.6	-0.4	0.4	0.2	0.3	0.0	0.4
설비투자	0.0	-4.3	3.2	1.1	1.5	-1.0	-1.6	1.5	3.3	2.4	0.1	5.6
주택투자	0.6	5.2	1.1	-1.1	0.7	0.1	1.1	-0.2	1.4	-0.1	2.0	1.4
공공투자	0.2	0.5	0.9	0.1	0.5	0.7	1.6	1.3	-1.1	0.2	0.3	1.5
수출	1.9	0.7	-2.2	0.6	-1.2	-1.3	-2.2	-1.2	1.0	-0.9	-2.5	-3.0
수입	3.2	9.3	1.6	-3.6	2.1	-0.8	3.0	0.9	-1.2	2.1	2.6	1.2
정부지출	1.2	8.3	0.4	-2.6	2.3	-0.8	0.1	-1.1	-1.0	-0.3	1.3	-1.7

주: 전분기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일본 내각부(2017. 3).

〈소비 및 생산부문〉

- 2016년 4/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7%p 상승한 2.1%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임.
- 2016년 4/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상승하였고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와 동일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0%p 상승한 2.0%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와 동일한 42.1로 집계됨.
- 2016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상승한 반면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감소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0.8%p 상승한 7.9%를 나타냄.
 -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5.2%p 감소한 0.3%를 기록함.

〈표 16〉 일본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	1.1	-1.3	-1.0	0.0	-1.2	-1.0	0.2	1.4	2.1	-0.5	-0.4	n.a.
소매판매 증가율 ²⁾ (%)	-1.6	0.1	1.1	-0.2	-0.4	-2.3	0.1	1.0	2.0	-0.6	0.5	n.a.
소비자신뢰지수 ³⁾	40.6	41.5	41.0	42.2	41.3	41.4	41.2	42.1	42.1	41.7	43.2	43.1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	-5.4	7.6	6.2	-0.7	1.9	5.5	4.9	7.1	7.9	6.4	12.8	n.a.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⁵⁾ (%)	3.5	4.7	-8.0	2.9	4.1	4.2	-6.4	5.5	0.3	1.7	-3.2	n.a.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총무성.

〈고용 및 물가〉

■ 2016년 4/4분기 실업률과 유효구인배율⁷⁾은 전분기에 비해 모두 상승함.

○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3.1%를 기록함.

○ 또한, 유효구인배율은 1.40배로 전분기대비 높아짐.

■ 2016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상승한 0.3%를 나타냄.

○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0.1%를 나타냄.

〈표 17〉 일본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실업률(%)	3.5	3.4	3.4	3.3	3.4	3.2	3.2	3.0	3.1	3.1	3.0	2.8
유효구인배율 ¹⁾ (배)	1.15	1.18	1.22	1.25	1.20	1.29	1.36	1.37	1.40	1.40	1.43	1.43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2.3	0.5	0.1	0.3	0.8	0.0	-0.4	-0.5	0.3	-0.1	0.4	0.3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2.1	0.5	0.8	0.8	1.0	0.6	0.5	0.2	0.1	0.3	0.1	-0.1

주: 1) 구인 수 / 구직자 수,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10=100,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7) 유효구인배율 = 구인자 수 / 구직자 수

〈국채금리〉

■ 2016년 4/4분기 국채금리는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 현상유지 결정과 미국 금리인상 등의 영향을 받아 전분기대비 상승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5bp 상승한 -0.19%,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12bp 상승한 0.00%임.

○ 일본은행(BOJ)은 2017년 3월에도 금융정책 현상유지와 장단기금리 운영을 종전과 동일하게 할 것으로 결정함.

- 단기금리는 -0.1%를 적용하고 장기금리는 국채 10년물 금리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국채매입을 실시하며 매입규모는 현행수준(연간 80조 엔)을 유지함.

〈표 18〉 일본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국채 3년물	0.02	0.01	0.02	0.01	0.02	-0.13	-0.24	-0.24	-0.19	-0.20	-0.17	-0.16
국채 10년물	0.34	0.40	0.39	0.31	0.36	0.07	-0.11	-0.12	0.00	-0.04	0.06	0.09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라. 유로지역⁸⁾경제

- 2016년 4/4분기 유로지역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0.4%를 기록함.
- 2016년 4/4분기 유로지역 주요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경기체감지수(106.9)와 산업생산 증가율(0.9%)은 전분기대비 상승함.
 - 주요국의 실업률(6.2%)은 소폭 감소하였는데 북유럽 국가(6.7%)는 전분기와 동일하고, 나머지 국가들(동유럽 6.4%, 남유럽 16.0%)은 전분기보다 감소함.
 -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0%)은 모든 유럽 국가(북유럽 1.6%, 동유럽 0.4%, 남유럽 0.5%)에서 상승하며 전분기보다 상승함.
- 2016년 4/4분기 국제금리(독일 3년물 -0.68%, 독일 10년물 0.19%, 영국 3년물 0.23%, 영국 10년물 1.25%)는 실물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상승함.

〈경제성장〉

- 2016년 4/4분기 유로지역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독일, 프랑스, 영국의 경제성장률 상승과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전분기와 동일한 0.4%를 기록함(〈표 19〉, 〈표 22〉 참조).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은 전분기보다 각각 0.3%p, 0.2%p, 0.1%p 상승한 0.4%, 0.4%, 0.7%를 나타낸 반면, 이탈리아는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0.2%, 스페인은 전분기와 동일한 0.7%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0.4%를 기록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3%p 상승한 0.6%를 나타냄.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2%p 상승한 1.5%를 기록하며 큰 폭의 상승을 보임.
 - 수입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대비 2.1%p 상승한 2.0%를 나타냄.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3%p 증가한 0.4%를 기록함.

8) 유로지역(Euro Area) 19개국.

〈표 19〉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¹⁾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0.4 (1.7)	1.2	0.8 (3.3)	0.4 (1.6)	0.3 (1.1)	0.5 (2.0)	2.0	0.5 (2.1)	0.3 (1.3)	0.4 (1.7)	0.4 (1.6)	1.7
민간소비	0.5	0.8	0.5	0.5	0.4	0.4	1.3	0.7	0.3	0.3	0.4	2.0
고정자본투자	0.6	1.5	1.6	0.0	0.8	1.4	3.2	0.3	1.2	-0.7	0.6	2.6
수출	1.5	4.4	2.7	1.2	0.2	0.8	6.5	0.2	1.3	0.3	1.5	2.9
수입	1.4	4.9	2.5	0.8	1.2	1.5	6.5	-0.1	1.4	-0.1	2.0	3.5
정부지출	0.2	0.6	0.3	0.3	0.5	0.5	1.3	0.7	0.3	0.1	0.4	1.8

주: 1) 전분기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Eurostat(2017, 3).

〈소비 및 생산부문〉

- 2016년 4/4분기 유로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06.9로 전분기보다 2.7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4%p 상승한 0.7%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4/4분기 -6.4로 부정적인 경기전망이 지속되고 있음.
- 2016년 4/4분기 유로지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5%p 상승한 0.9%를 나타냄.

〈표 20〉 유로지역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¹⁾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유로지역 ESI ²⁾	102.5	103.6	104.5	106.2	104.2	103.9	104.2	104.2	106.9	104.8	107.9	108.0
소매판매 증가율 ³⁾ (%)	1.1	0.6	0.7	0.0	2.7	0.8	0.3	0.3	0.7	1.9	-0.1	n.a.
소비자신뢰지수 ⁴⁾	-6.2	-5.2	-7.0	-6.4	-6.2	-8.3	-7.8	-8.2	-6.4	-7.7	-4.8	-6.2
산업생산 증가율 ⁵⁾ (%)	1.4	0.2	0.3	0.0	2.1	0.9	-0.1	0.4	0.9	1.4	0.9	n.a.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 + 서비스업(30%) + 소비자신뢰(20%) + 건설업(5%) + 소매거래(5%)

3) 계절조정 2005=100

4)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5) 비계절조정 2005=100

자료: Eurostat; Bloomberg.

〈고용 및 물가⁹⁾〉

■ 2016년 4/4분기 북유럽 국가의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반면,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의 실업률 하락으로 주요국의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하락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6.2%를 기록함.

○ 북유럽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6.7%를 유지하고 동유럽과 남유럽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각각 0.4%p, 0.3%p 하락한 6.4%, 16.0%를 기록함.

■ 2016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모든 유럽 국가에서 상승함.

○ 유럽 주요국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5%p 상승한 1.0%임.

○ 권역별로 보면,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각각 0.1%p, 0.6%p, 0.4%p 상승한 1.6%, 0.4%, 0.5%를 기록함.

〈표 2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주요국 ¹⁾	북유럽 ²⁾	동유럽 ³⁾	남유럽 ⁴⁾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6년 2/4	6.3	6.6	7.1	16.6	0.1	1.2	-0.7	-0.2
2016년 3/4	6.3	6.7	6.8	16.3	0.5	1.5	-0.2	0.1
2016년 4/4	6.2	6.7	6.4	16.0	1.0	1.6	0.4	0.5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2017. 3).

9) 유로지역 19개국 분류가 아닌 유럽 권역별 분류 데이터를 사용함.

〈표 22〉 주요 유로지역 국가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독일	실질 GDP	0.8	1.6	0.2	0.5	0.2	0.4	1.7	0.7	0.5	0.1	0.4	1.9
	민간소비	0.6	0.9	0.3	0.7	1.1	1.3	2.0	1.3	0.9	0.2	0.8	2.0
	고정자본투자	1.1	3.4	0.5	0.1	0.1	1.6	1.7	1.8	-1.5	-0.2	0.8	2.3
	수출	2.0	4.1	1.0	1.6	0.0	-0.7	5.2	1.4	1.2	-0.3	1.8	2.6
	수입	2.7	4.0	1.4	0.4	1.1	0.6	5.5	1.4	0.1	0.4	3.1	3.7
프랑스	실질 GDP	0.1	0.6	0.6	0.0	0.3	0.2	1.3	0.6	-0.1	0.2	0.4	1.2
	민간소비	0.4	0.7	0.3	0.3	0.3	0.4	1.5	0.4	0.4	0.3	0.3	1.9
	고정자본투자	-0.2	-0.3	0.4	-0.2	0.8	1.3	1.0	1.2	0.0	0.2	0.5	2.8
	수출	2.7	3.3	1.9	1.7	-0.4	0.5	6.1	-0.2	0.0	0.8	1.3	1.2
	수입	1.7	3.3	2.1	0.4	1.6	2.4	6.1	0.4	-1.4	2.7	0.9	1.2
이탈리아	실질 GDP	0.0	0.1	0.3	0.4	0.1	0.2	0.8	0.4	0.1	0.3	0.2	0.9
	민간소비	0.1	0.3	-0.7	-0.2	0.1	-0.1	1.6	0.9	-0.3	-0.2	0.6	1.4
	고정자본투자	0.7	-2.3	0.6	0.4	0.4	0.5	1.6	1.0	0.4	1.5	1.3	2.9
	수출	1.6	2.7	1.4	1.3	-1.2	1.7	4.4	-0.7	2.2	0.3	1.9	2.4
	수입	0.3	2.7	4.0	1.3	0.0	1.6	4.4	-1.1	2.2	1.0	2.2	2.4
스페인	실질 GDP	0.7	1.4	1.0	0.8	0.9	0.8	3.2	0.8	0.8	0.7	0.7	3.2
	민간소비	0.1	1.6	1.2	0.5	0.4	0.6	2.9	0.2	-0.6	0.5	-0.2	3.2
	고정자본투자	1.2	3.8	2.4	2.3	0.7	0.9	6.0	0.4	1.4	-0.1	0.5	3.1
	수출	0.4	4.2	1.3	0.9	2.2	0.5	4.9	0.2	3.4	-1.2	2.0	4.4
	수입	0.7	4.2	1.3	1.7	2.3	0.6	4.9	-0.2	2.6	-2.0	1.8	4.4
영국	실질 GDP	0.8	3.1	0.3	0.5	0.3	0.7	2.2	0.2	0.6	0.6	0.7	1.8
	민간소비	-0.2	2.2	0.4	0.9	0.6	-0.2	2.4	0.4	0.1	0.0	0.2	3.0
	고정자본투자	0.7	6.7	1.5	1.2	0.8	-0.9	3.4	0.1	-0.2	0.9	0.0	0.5
	수출	4.0	1.5	3.2	-0.7	-0.6	5.9	6.1	-2.9	1.2	-2.6	4.1	1.4
	수입	2.8	1.5	4.1	-2.3	0.6	2.1	6.1	0.3	0.4	1.3	-0.4	1.4

주: 전분기대비.
 자료: Eurostat(2017, 3).

〈국채금리〉

■ 2016년 4/4분기 유로지역 평균 국채금리는 실물경기 회복세와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상승함.

○ 독일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2bp 하락한 -0.68%,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26bp 상승한 0.19%를 기록함.

○ 영국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7bp 상승한 0.23%,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53bp 상승한 1.25%임.

〈표 23〉 유로지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독일국채 3년물	-0.17	-0.18	-0.18	-0.29	-0.20	-0.44	-0.53	-0.66	-0.68	-0.58	-0.71	-0.74
독일국채 10년물	0.35	0.52	0.70	0.56	0.53	0.32	0.12	-0.07	0.19	0.14	0.35	0.31
영국국채 3년물	0.72	0.93	0.93	0.80	0.85	0.60	0.57	0.16	0.23	0.39	0.24	0.18
영국국채 10년물	1.64	1.86	1.91	1.87	1.82	1.56	1.37	0.72	1.25	1.22	1.38	1.25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2. 국내경제

- 2016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4%, 전분기대비 0.5%에 그침.
 - 건설투자(11.6%)의 높은 증가세 유지와 설비투자(2.0%)의 증가 전환에도 민간소비(1.5%) 위축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2016년 4/4분기 경제동향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의 경우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2.5% 증가에 그치며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설비투자는 수출개선에 2.0% 증가로 전환하였고, 건설투자는 아파트 분양 호조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11.6% 증가함.
 - 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2.1%)이 민간소비 위축으로 둔화된 가운데 수출 경기 호전으로 인한 광공업 생산(2.8%) 증가로 3.5% 증가함.
 - 총취업자 수는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에 그쳤고,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60.7%를, 그리고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3.2%를 나타냄.
 - 소비자물가는 유가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상승하였고,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 대비 4.3 하락한 97.3을 기록하며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이어감.
 - 수출은 수출상대국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8%(1,324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유가상승 등으로 4.1%(1,106억 달러)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217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경기둔화,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폭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0.2% 증가에 그쳤으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도 3.2% 감소함.
- 2016년 4/4분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분기대비 0.4 상승한 100.5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분기대비 0.2 하락한 100.3을 기록하며 경기동향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2016년 4/4분기 국내경제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생산과 투자가 반등하였으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고용이 악화되는 등 경기가 여전히 불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가. 경제성장

■ 2016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건설투자의 높은 증가세 유지와 설비투자의 증가 전환에도 민간 소비 위축으로 전년동기대비 2.4%, 전분기대비 0.5%에 그침.

-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1.5% 증가에 그침(〈표 25〉 참조).
-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의 수출개선에 힘입어 2.0% 증가로 전환함(〈표 26〉 참조).
- 건설투자는 아파트 분양물량 호조 유지에 따라¹⁰⁾ 11.6% 증가하며 증가세가 확대됨. (〈표 26〉 참조).
- 지식생산물투자는 R&D 투자를 중심으로 2.6% 증가함.
- 수출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1.2% 증가하였고, 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3.3% 증가함.¹¹⁾

■ 2016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민간소비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가운데 건설투자의 증가세로 전년대비 2.8%를 기록함.

- 건설투자가 10.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출(2.1%) 및 설비투자(△2.3%)의 부진을 상쇄함.
- 지출항목별 연간 성장기여도는 민간소비 1.2%p, 건설투자 1.6%p, 설비투자 -0.2%p, 순수출 -0.7%p 등으로 나타남.

〈표 24〉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2.6 (0.8)	2.4 (0.4)	3.0 (1.3)	3.2 (0.7)	2.8	2.9 (0.5)	3.4 (0.9)	2.6 (0.5)	2.4 (0.5)	2.8
민간소비	1.5	1.7	2.2	3.4	2.2	2.3	3.5	2.7	1.5	2.5
설비투자	5.4	4.3	6.0	3.1	4.7	-4.6	-2.9	-3.9	2.0	-2.3
건설투자	4.0	4.6	7.5	9.6	6.6	9.0	10.6	11.2	11.6	10.7
지식생산물투자	2.1	1.2	1.4	2.3	1.8	1.0	2.7	2.7	2.6	2.3
수출	-0.5	-1.4	-0.4	1.7	-0.1	1.3	2.6	3.4	1.2	2.1
수입	0.9	0.4	2.0	5.0	2.1	3.4	4.8	6.5	3.3	4.5

주: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괄호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10) 한국은행(2017. 1), 『경제전망보고서』.

11) 한국은행 보도자료(2017. 1. 25), “2016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

나. 경제동향

〈소비 및 투자〉

- 2016년 4/4분기 소매판매는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¹²⁾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¹³⁾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에 그치며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됨.¹⁴⁾
 - 1월에는 비내구재(7.5%) 판매가 크게 늘며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하였고, 2월에는 비내구재($\Delta 2.7\%$)와 준내구재($\Delta 0.8\%$) 판매가 모두 감소하였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7.5%) 판매가 늘어 0.5% 증가함.
 - 2016년 4/4분기 내구재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0.1% 증가에 그쳤으나,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하였고 2월에는 승용차 판매 호조로 7.5% 증가함.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로 인해¹⁵⁾ 의복 판매가 크게 감소하며¹⁶⁾ 전년동기대비 0.4% 증가에 그쳤으며, 1월과 2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0%, 0.8% 감소함.
 -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는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하였으며,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7.5% 증가하였으나 2월에는 2.7% 감소함.
- 2016년 연간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대비 0.2%p 상승한 4.3%를 기록함.
 -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가격이 비싸고 사용기간이 긴 내구재 판매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사용기간이 짧은 비내구재 판매가 전년대비 증가함.
 - 내구재 판매 증가율은 전년대비 5.5%p 하락한 4.5%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비내구재 판매 증가율은 전년대비 1.7%p 상승한 4.8%를 기록함.

12) 코리아세일페스타(2016년 9~10월),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2016년 12월 ~ 2017년 6월) 등.

13) 〈표 29〉 참조.

14) 한국은행(2017. 1),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2017. 2. 6), 『조사통계월보 1월호』.

15) (평년 12월) 1.5℃, (16. 12월) 3.1℃.

16) 한국은행(2017. 3. 3), 『조사통계월보 2월호』.

〈표 25〉 소비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²⁾	연간 ²⁾	1월 ²⁾	2월 ²⁾
민간소비	3.4	2.2	2.3	3.5	2.7	1.5	2.5		
소매판매	6.3	4.1	5.0	5.9	3.5	2.5	4.3	4.2	0.5
내구재	16.1	10.0	6.4	11.1	1.1	0.1	4.5	2.1	7.5
* 승용차	29.5	21.2	8.5	16.5	-9.8	-3.6	2.5	3.3	9.0
준내구재	1.5	-1.1	2.3	4.4	3.5	0.4	2.5	-1.0	-0.8
비내구재	3.3	3.1	5.3	3.9	4.9	5.0	4.8	7.5	-2.7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6년 4/4분기 설비투자자는 수출 개선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0% 증가로 전환함.

○ 2016년 4/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반도체 등 IT업종의 글로벌 업황 개선에 따른 설비확충 등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¹⁷⁾ 전년동기대비 5.9% 상승함.

- 1월과 2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 투자 확대가 이어지며 전년동월대비 각각 10.7%, 19.5% 상승함.

○ 2016년 4/4분기 설비투자의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¹⁸⁾는 향후 글로벌 경제여건 개선 및 IT 업종 투자수요 확대에 따른 투자압력 증대로¹⁹⁾ 전년동기대비 16.0% 증가함.

- 1월 국내기계수주는 전기업 등 공공부문 및 전자·영상음향통신업 등 민간부문 모두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35.9% 증가함.²⁰⁾

- 2월 국내기계수주는 전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감소하였으나 운수업, 도소매업 등 민간부문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함.²¹⁾

■ 2016년 연간 설비투자는 수출부진, 제조업 평균가동률 하락,²²⁾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기업투자 위축으로 전년대비 2.3% 감소하여 2009년(△7.7%)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설비투자지수는 1.3% 하락하였고, 국내기계수주는 4/4분기 개선으로 3.8% 증가함.

17) 기획재정부(2017. 2. 1), 『16. 1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8) 기계수주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민간수요(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수요로 분류됨.

19) 한국은행(2017. 1), 『경제전망보고서』.

20) 통계청 보도자료(2017. 3. 2), “2017년 1월 산업활동동향”.

21) 통계청 보도자료(2017. 3. 31), “2017년 2월 산업활동동향”.

22) 2016년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1998년(67.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제조업 평균가동률(%), 통계청): (‘11)80.5, (‘12)78.5, (‘13) 76.5, (‘14)76.1, (‘15)74.5, (‘16)72.6

〈표 26〉 투자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²⁾	연간 ²⁾	1월 ²⁾	2월 ²⁾
설비투자	3.1	4.7	-4.6	-2.9	-3.9	2.0	-2.3		
설비투자지수	2.0	6.9	-7.6	0.6	-4.7	5.9	-1.3	10.7	19.5
기계류	-7.3	3.6	-13.0	-7.6	0.4	12.0	-2.2	19.2	25.6
운송장비	26.6	15.0	8.3	20.9	-15.7	-6.1	0.9	-8.2	5.8
국내기계수주 ³⁾	6.3	-3.9	-0.6	-3.0	3.3	16.0	3.8	35.9	12.1
건설투자	9.6	6.6	9.0	10.6	11.2	11.6	10.7		
건설기성(불변)	10.7	5.0	13.2	15.8	14.5	17.7	15.4	13.4	22.6
건축	17.6	7.3	22.9	27.1	23.2	28.8	25.7	22.5	29.8
토목	0.4	1.2	-3.1	-3.2	-2.3	-1.9	-2.6	-6.3	6.5
국내건설수주(경상)	39.6	48.4	13.9	-6.7	1.3	26.0	8.4	16.6	22.6
건축	37.7	50.5	13.5	1.7	3.6	39.7	14.5	38.6	-9.4
토목	44.6	42.6	15.1	-32.4	-6.4	-6.8	-9.4	-30.2	171.2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선박제외.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6년 4/4분기 건설투자는 대출금리 상승²³⁾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정책²⁴⁾ 등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늘어난 분양물건²⁵⁾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함.

○ 건설기성(불변)²⁶⁾은 건축공사 실적이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17.7% 증가함.

- 1월 건설기성은 건축부문의 높은 증가세 유지로 전년동월대비 13.4% 증가함.

- 2월 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2.6% 증가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경상)는 향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종료(2017년 말) 및 주택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조기분양으로²⁷⁾ 건축을 중심으로

23) 예금은행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연리%, 한국은행): ('16. 1분기) 3.02, (2분기) 2.86, (3분기) 2.72, (4분기) 3.02

24)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위해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청약자격 등을 강화함(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 11. 3),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25) 수주부터 약 2년 정도의 건설기성이 발생함에 따라 2015년 아파트 분양물건(52.5만 호) 호조는 2017년까지 건설기성 증대요인으로 작용함(한국은행(2017. 1), 『경제전망보고서』).

아파트 분양물건(만 호, 국토교통부): ('13) 29.9, ('14) 34.5, ('15) 52.5, ('16) 46.9

26)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 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용어설명(<http://www.kostat.go.kr>)).

27) 국회예산정책처(2017. 2), 『NABO 경제동향&이슈』.

큰 폭으로 증가, 전년동기대비 26.0% 증가함.

- 1월 국내건설수주는 건축부문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간 반면 정부의 SOC예산 축소²⁸⁾ 등으로 인한 공공, 토목 부문 위축으로 전년동월대비 16.6% 증가에 그침.²⁹⁾
- 2월 국내건설수주는 건축부문에서 감소하였으나 발전·통신, 항만·공항 등 토목(171.2%)이 전년동월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2.6% 증가함.³⁰⁾

■ 2016년 연간 건설투자는 저금리로 증가한 유동성이 주택 재건축 투자로 이어짐에 따라 10.7% 증가하며 1993년(11.9%)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건설기성은 108.7조 원으로 통계집계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15.4% 증가하였고, 건설수주도 145.8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8.4% 증가함.

〈산업생산〉

■ 2016년 4/4분기 산업생산의 경우 수출경기 호전에 따른 광공업 생산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함.

○ 2016년 4/4분기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업계 파업 종료, 신형 스마트폰 단종 영향 감소 등으로³¹⁾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임.

- 1월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생산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전자부품 등 ICT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함.
- 2월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생산이 내수 및 수출 호조 등으로 반등하며 전년동월대비 6.6% 증가함.

○ 2016년 4/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민간소비 위축에 따른 숙박 및 음식점업(△3.9%) 등 관련 업종의 생산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2.1% 증가에 그침.

- 1월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6.2%)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금융 및 보험업(5.4%), 부동산 및 임대업(1.9%)이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함.
- 2월 서비스업 생산도 금융 및 보험업(7.3%)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운수업(△

28) 2016년 23.7조 원 → 2017년 22.1조 원(한국은행(2017. 1), 『경제전망보고서』)

29) 2016년 12월(43.7%), 2016년 4분기(26.0%)에 비해 증가율이 낮아짐.

30) 통계청 보도자료(2017. 3. 31), “2017년 2월 산업활동동향”.

3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12. 29), “16. 1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0.9%), 숙박 및 음식점업(△1.8%) 등의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에 그침.

■ 2016년 연간 산업생산은 광공업 부진 속에 서비스업이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3.0% 증가함.

○ 광공업은 하반기 수출 회복에 따른 ICT 생산 확대로 1.0% 증가하며 회복세를 나타냈고, 서비스업은 민간소비 관련 업종 부진 속에 금융 및 보험업 등이 호조를 보이며 3.0% 증가함.

〈표 27〉 산업 생산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²⁾	연간 ²⁾	1월 ²⁾	2월 ²⁾
전산업 생산 ³⁾	2.7	1.9	2.1	3.2	3.0	3.5	3.0	3.5	4.2
광공업	0.4	-0.3	-0.3	0.7	0.5	2.8	1.0	1.4	6.6
제조업	0.6	-0.3	-0.5	0.9	0.6	2.9	1.0	1.5	7.0
자동차	1.8	1.3	0.0	-3.5	-10.4	1.8	-2.8	-8.7	11.9
ICT	6.7	1.3	0.1	7.0	8.3	4.1	5.0	12.8	2.4
서비스업	3.3	2.9	2.8	3.5	3.6	2.1	3.0	2.7	2.5
도매 및 소매업	4.3	1.8	2.9	4.1	2.7	2.2	3.0	2.6	0.3
운수업	0.4	1.2	1.8	4.1	3.5	-1.5	1.9	0.4	-0.9
숙박 및 음식점업	-1.2	-2.0	-0.6	1.8	1.0	-3.9	-0.5	-6.2	-1.8
금융 및 보험업	6.3	9.1	6.4	4.2	6.5	6.5	5.9	5.4	7.3
부동산 및 임대업	6.1	8.4	3.7	-0.2	3.7	2.3	2.3	1.9	4.5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고용 및 물가〉

- 2016년 4/4분기 총취업자 수는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에 그쳤으며, 고용률은 60.7%, 실업률은 3.2%를 기록함.
 - 1월 총취업자 수는 제조업 인력 수요 감소³²⁾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1.0% 증가에 그쳤으며, 2월에는 건설업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고 제조업 고용부진이 다소 완화되며³³⁾ 1.5% 증가함.
 - 2016년 4/4분기 청년취업자 수의 경우 신규채용 위축으로³⁴⁾ 전년동기대비 0.2% 증가에 그쳤고, 1월과 2월에도 각각 0.3%, 0.1% 감소함.
 -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60.7%를 기록하였으며, 1월과 2월에는 각각 58.9%, 59.1%를 나타냄.
 -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3.2%를 기록하였으며, 1월에는 3.8%, 2월에는 5.0%³⁵⁾를 기록함.
 - 청년실업률의 경우 전분기대비 0.9%p 하락한 8.4%를 기록하였으며, 1월에는 구직활동 둔화로 실업자가 감소하며³⁶⁾ 전월(9.5%)에 비해 크게 하락한 8.6%를 나타냈고, 2월에는 계절적 요인³⁷⁾으로 상승하며 12.3%를 나타냄.
- 2016년 연간 취업자 수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1.2% 증가에 그치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3%) 이래 최저 증가율을 보임.
 - 고용률은 청년과 여성 중심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로 역대최고치인 60.4%를 기록하였으나 영세 자영업자 증가 및 청년실업률 상승 등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³⁸⁾
 - 자영업자는 조기은퇴자, 구조조정 실직자 유입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됨.
 - 청년실업률은 9.8%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32) 기획재정부(2017. 2. 15), 『17. 1월 고용동향』.

33) 기획재정부(2017. 3. 15), 『17. 2월 고용동향』.

34) 기획재정부(2017. 1. 11), 『16. 12월 고용동향』.

35) 2월 기준으로는 2001년 5.5% 이후 최고치임.

36) 기획재정부(2017. 2. 15), 『17. 1월 고용동향』.

37) 2월 청년실업률은 졸업, 공무원 원서접수 등 계절적 요인으로 다른 달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 월평균 청년실업률('11~'16년, %) : (2월 제외) 8.4, (2월) 10.1 (기획재정부(2017. 3. 15), 『17. 2월 고용동향』)

38) 기획재정부(2017. 1. 11), 『16. 12월 고용동향』.

장년층의 노동시장 잔류 확대, 청년층(15~29세)의 구직 포기³⁹⁾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적체현상이 심화됨.

■ 2016년 4/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광공업의 경우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 여건 악화로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SOC 및 기타서비스업은 건설업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됨.⁴⁰⁾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양호한 기상여건, 기저효과 등⁴¹⁾으로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하며 감소폭이 축소되었고, 1월과 2월에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1.0% 감소에 그침.

○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⁴²⁾는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한데 이어, 1월에는 구조조정 영향 확대와 기저효과 등으로⁴³⁾ 3.4% 감소하였고, 2월에는 수출·생산 회복 등으로 감소폭이 다소 완화되며⁴⁴⁾ 1.9% 감소함.

○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건설업 및 숙박·음식업 등의 증가로 2.1% 증가함.

- 기상여건, 기저효과, 건설경기 호조 등으로 건설업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숙박·음식업의 경우 자영업자 및 일용직 등 단기고용 증가를 수반한 증가세를 이어감.⁴⁵⁾

- 1월과 2월에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2.0%, 2.4% 증가하며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함.

■ 2016년 연간 산업별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이 영세 고령농 은퇴 증가로 감소세를 지속하였고, 제조업은 수출부진 및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반면, SOC 및 기타서비스업은 건설경기 호조 및 2015년 메르스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함.⁴⁶⁾

○ 농림어업은 4.4% 감소세를 이어갔고, 제조업이 0.1% 감소로 전환된 가운데 SOC 및 기타서비스업이 1.8% 증가하며 고용 증가를 주도함.

39) 2016년 말 기준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는 510만 4천 명으로 41개월 만에 증가(0.1%)로 전환함.

40) 기획재정부(2017. 1. 11), 『'16. 12월 고용동향』.

41) 기획재정부(2016. 12. 14), 『'16. 11월 고용동향』.

42) 제조업 포함.

43) 기획재정부(2017. 2. 15), 『'17. 1월 고용동향』.

44) 기획재정부(2017. 3. 15), 『'17. 2월 고용동향』.

45) 기획재정부(2017. 1. 11), 『'16. 12월 고용동향』.

46) 기획재정부(2017. 1. 11), 『'16. 12월 고용동향』.

〈표 28〉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총취업자 ¹⁾	1.5	1.3	1.1	1.1	1.2	1.2	1.2	1.0	1.5
청년취업자 ¹⁾	2.6	1.8	1.0	2.1	1.5	0.2	1.2	-0.3	-0.1
고용률 ²⁾	60.5	60.3	59.1	60.8	61.1	60.7	60.4	58.9	59.1
실업률 ³⁾	3.1	3.6	4.3	3.8	3.6	3.2	3.7	3.8	5.0
청년 ⁴⁾ 실업률 ³⁾	8.0	9.2	11.3	10.3	9.3	8.4	9.8	8.6	12.3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7.6	-7.4	-4.9	-5.7	-5.4	-1.0	-4.4	-1.0	-1.0
광공업	4.2	3.6	3.0	1.0	-1.5	-2.3	0.0	-3.4	-1.9
제조업	4.0	3.6	2.9	0.8	-1.6	-2.4	-0.1	-3.5	-2.0
SOC ⁵⁾ 및 기타서비스업	1.5	1.4	1.1	1.7	2.3	2.1	1.8	2.0	2.4
건설업	-1.0	1.5	-0.5	-1.5	2.1	4.7	1.2	4.8	8.4
도·소매, 음식, 숙박	-0.6	1.2	-0.9	0.7	1.8	1.4	0.7	1.7	2.1
전기, 운수, 통신, 금융	2.3	0.7	1.5	0.2	0.6	0.5	0.7	-1.4	-0.7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3.1	1.8	2.5	3.4	3.3	2.5	2.9	2.9	2.4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3)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6년 4/4분기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유가상승세로⁴⁷⁾ 전년동기대비 1.5% 상승하였으며, 1월과 2월에는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및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2.0%, 1.9% 상승함.

○ 2016년 4/4분기 상품물가는 12분기 만에 상승세로 전환하며 0.7% 상승하였으며, 1월과 2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9%, 1.7% 상승함.

- 농축수산물(7.5%)은 조류인플루엔자(AI) 창궐⁴⁸⁾ 및 채소가격 급등으로 상승하였고, 공업제품(0.4%)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합의⁴⁹⁾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⁵⁰⁾으로 인해 상

47) 한국은행(2017. 1), 『통화신용정책보고서』.

48) 2016년 11월 16일 전남 해남,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됨.

49)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은 2016년 11월 30일 정례회의에서 하루 최대 생산량을 3,250만 배럴로 120만 배럴 줄이는 것에 합의함.

50) 국제유가(Dubai유 기준, Bloomberg)

(1달러/배럴, 기간 중 평균) 2016년 (11월) 43.77, (12월) 51.78, 2017년 (1월) 53.37, (2월) 54.17

승 전환한 한편, 전기·수도·가스($\Delta 8.7\%$)의 경우 도시가스요금 인상⁵¹⁾ 등으로 하락폭이 축소됨.

- 1월 중 상품물가는 설을 앞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16년 1월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함.⁵²⁾
- 2월 중 상품물가는 석유류 오름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상승폭 축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상승함.⁵³⁾
- 2016년 4/4분기 서비스물가는 집세 상승세 둔화와 공공서비스 물가 안정으로 2.1% 상승에 그쳤으며, 1월과 2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2.2%, 2.1% 상승함.

■ 2016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미약한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측 하방 압력과 전기료 인하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해⁵⁴⁾ 상품물가가 약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1.0% 상승에 그침.

- 상품물가의 경우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0.6% 하락함.
 - 농축수산물은 연초 한파 및 폭설, 여름철 폭염 및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로 채소류를 중심으로 3.8% 상승함.
 - 공업제품은 저유가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 담뱃값 인상효과 소멸 등으로 0.5% 하락함.
 - 전기·수도·가스의 경우 전기요금($\Delta 4.1\%$), 도시가스($\Delta 17.3\%$) 인하로 9.2% 하락함.
- 서비스물가는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2.3% 상승하며 완만한 오름세를 보임.
 - 집세의 경우 신규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며 1.9% 상승에 그침.
 - 공공서비스는 1.5% 상승하며 안정된 수준을 보였으며, 개인서비스는 외식비(11.7%), 보험 서비스료(23.5%) 등을 중심으로 2.7% 상승함.

■ 2016년 4/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대비 4.3 하락한 97.3을 나타내며 기준치(100)를 하회함.

51) 2016년 11월 1일 5.6% 인상.

5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2. 2), “2017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5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3. 3), “2017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54) 석유류가격과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0.8%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한국은행(2017. 2. 6), 『조사통계월보 2017년 1월호』).

- 1월에는 93.3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75.0)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2월에는 94.4로 1월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연간 소비자심리지수는 99.5를 나타내며 전년에 비해 3.2 하락함.

〈표 29〉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¹⁾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비자심리지수 ²⁾	104.5	102.7	99.3	99.9	101.6	97.3	99.5	93.3	94.4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0.9	0.7	0.9	0.8	0.7	1.5	1.0	2.0	1.9
〈품목 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0.5	-0.7	-1.0	-1.0	-1.1	0.7	-0.6	1.9	1.7
농축수산물	2.3	2.0	3.7	1.1	3.1	7.5	3.8	8.5	4.3
공업제품	-0.1	-0.2	-1.1	-0.7	-0.5	0.4	-0.5	1.6	2.4
전기·수도·가스	-7.2	-7.4	-8.2	-7.0	-13.0	-8.7	-9.2	-8.3	-8.3
서비스	2.1	1.8	2.4	2.4	2.2	2.1	2.3	2.2	2.1
집세	2.5	2.5	2.0	1.9	1.8	1.7	1.9	1.7	1.7
공공서비스	1.8	1.2	2.0	1.9	1.0	0.9	1.5	1.1	1.1
개인서비스	2.1	1.9	2.6	2.7	2.8	2.7	2.7	2.8	2.7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 2016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3)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새로운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소급 변경됨.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대외거래〉

■ 2016년 4/4분기 수출은 수출상대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 및 환율 상승, 수출단가회복⁵⁵⁾ 등으로⁵⁶⁾ 전년동기대비 1.8%(1,324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유가상승 등으로 4.1% 증가(1,106억 달러)하며 무역수지는 217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수출의 경우, 식료 및 직접소비재(10.6%)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유가상승 및 반도체,

55) 최근 반도체·철강·디스플레이패널 등의 수출단가 상승, 국제유가 상승에 주로 기인하여 수출입 단가가 증가로 반전함(한국은행(2017. 1), 『경제전망보고서』).

5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7. 2. 2), 『2016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017년 1분기 전망』.

디스플레이 등 IT 제품 수출 증가로 원료 및 연료(5.0%), 중화학 공업품(1.5%) 등이 증가로 전환함.

- 1월 수출은 원료 및 연료(55.6%), 중화학공업품(9.2%)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임.⁵⁷⁾
- 2월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20.2% 증가하며 수출회복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⁵⁸⁾
- 수입의 경우, 소비재(2.5%)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원자재(3.8%)가 유가상승으로 상승 전환하였고, 자본재(5.1%)도 반도체 · 평판DP 제조용 장비 중심으로 증가 전환됨.⁵⁹⁾
- 1월 수입은 비중이 큰 원자재(29.1%)와 자본재(14.5%) 수입 증가세 확대로 19.7% 증가함.⁶⁰⁾
- 2월 수입도 원자재(38.7%)와 자본재(13.7%)가 큰 폭의 증가를 이어가며 23.9% 증가함.⁶¹⁾

■ 2016년 연간 수출은 5.9%(4,954억 달러) 감소하였고, 수입은 6.9%(4,062억 달러)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892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연간 수출의 경우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 주력품목의 단가하락, 자동차 파업 및 신형 스마트폰 단종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분기별로는 지속적으로 개선됨.⁶²⁾
- 연간 수입의 경우 수입의 약 50%를 차지하는 원자재 수입이 유가하락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총수입도 감소하였으나, 분기별로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⁶³⁾

57) '13. 1월 이후 4년 만에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수출품목, 시장, 주체, 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반도체가 메모리단가 상승으로 사상 최대 월간 수출실적 기록(64.1억 불), 석유제품이 50개월 만에 3개월 연속 증가, 석유화학이 '14. 12월 이후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금액 증가를 주도함(산업통상자원부(2017. 2. 1), 2017년 1월 수출입 동향).

58) '11. 9월 이후 65개월 만에 2개월 연속 두 자리 수 증가 및 '12. 2월 이후 5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 2월 수출금액(463억 원)으로도 '12. 2월 이후 최대 수출금액(432억 원)을 기록함(산업통상자원부(2017. 3. 1), 2017년 2월 수출입 동향).

5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1. 1), "2016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7년 수출입 전망".

60) '12. 2월 이후 59개월 만에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함(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2. 1), "2017년 1월 수출입 동향").

61) '11. 12월 이후 62개월 만에 2개월 연속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함(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3. 1), "2017년 2월 수출입 동향").

6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1. 1), "2016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7년 수출입 전망".

6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1. 1), "2016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7년 수출입 전망".

〈표 30〉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1.3	-2.1	5.0	5.3	10.9	10.6	8.0	3.8	20.7
	원료 및 연료	-36.0	-33.3	-31.3	-20.5	-16.0	5.0	-16.4	55.6	64.8
	경공업 제품	-8.6	-8.4	-5.5	-0.8	5.8	1.2	0.2	-1.7	7.4
	중화학 공업품	-9.8	-4.9	-13.0	-6.1	-5.0	1.5	-5.7	9.2	18.1
	전체	-12.0	-8.0	-13.7	-6.7	-5.0	1.8	-5.9	11.1	20.2
	금액	1,300.2	5,267.6	1,151.9	1,260.2	1,218.5	1,323.6	4,954.3	402.9	432.0
수입	소비재	0.5	2.1	-2.6	3.4	0.5	2.5	1.0	4.9	4.5
	원자재	-29.8	-29.6	-25.3	-18.6	-8.7	3.8	-12.8	29.1	38.7
	자본재	-4.0	1.3	-7.6	-3.2	-2.5	5.1	-2.0	14.5	13.7
	전체	-17.8	-16.9	-16.0	-10.1	-5.1	4.1	-6.9	19.7	23.9
	금액	1,062.7	4,365.0	938.3	993.0	1,024.6	1,105.9	4,061.9	375.0	361.3
무역수지		237.4	902.6	213.6	267.2	193.9	217.7	892.3	27.9	70.6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2016년 4/4분기 지역별 수출은 아세안, EU, 중동, 일본에서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EU를 제외한 지역에서 증가함.

○ 수출의 경우 최대 교역국인 중국($\Delta 0.9\%$)이 평판 DP, 석유화학 등 수출 증가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된 것을 비롯하여 아세안의 경우 석유제품, 일반기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12.5% 증가하는 등 대다수 지역으로의 수출이 회복세를 보임.⁶⁴⁾

- 1월 수출은 사드배치 논란⁶⁵⁾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월(9.7%)보다 높은 전년동기 대비 13.5%⁶⁶⁾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지속하였고,⁶⁷⁾ 미국, 중남미를 제외한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함.

- 2월 수출은 중국이 4개월 연속 증가한 28.8%⁶⁸⁾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을 제외한 대

6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7. 2. 2), 『2016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017년 1분기 전망』.

65)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반한 감정 고조로 직간접적인 경제 보복 조치 발생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

66) '13. 8월 이후 41개월 만에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나타냄.

67) 관세청(2017. 2. 15), 『2017년 1월 수출입 현황』.

68) '10. 11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임(산업통상자원부(2017. 3. 1), 2017년 2월 수출입 동향).

다수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함.

○ 수입의 경우 중동지역이 원유 수입단가⁶⁹⁾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8.4% 상승하였고, EU (△4.7%)를 제외한 중국(1.2%), 일본(19.6%) 등 대다수 지역에서 증가함.

- 1월과 2월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59.2%, 63.7% 증가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감.

■ 2016년 연간 기준으로는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교역 둔화 및 저유가,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하락 등으로 각 지역으로의 수출 및 수입이 대부분 감소하였으나, 분기별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표 31〉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구분		비중 ¹⁾	2015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수출	중국	25.1	-5.6	-15.8	-12.7	-8.0	-0.9	-9.3	13.5	28.8
	ASEAN	15.0	-11.5	-11.2	-1.3	-1.1	12.5	-0.4	18.9	31.3
	미국	13.4	-0.6	-3.3	-4.3	-8.8	-3.1	-4.8	-1.9	1.7
	EU	9.4	-6.9	6.6	-10.0	-8.4	0.9	-3.1	13.5	27.4
	중동	5.3	-12.6	-20.3	-22.2	-15.9	4.9	-13.8	8.2	-10.0
	중남미	5.1	-14.6	-28.7	-17.1	-11.7	-8.3	-17.1	-6.0	19.5
	일본	4.9	-20.5	-13.2	-14.0	3.5	6.1	-4.8	19.1	20.6
	전체	100.0	-8.0	-13.7	-6.7	-5.0	1.8	-5.9	11.1	20.2
수입	중국	21.4	0.2	-9.5	-3.0	-3.4	1.2	-3.6	15.4	9.4
	동남아	15.3	-10.8	-8.3	-2.4	0.8	4.7	-1.3	21.6	12.1
	중동	13.3	-42.5	-42.2	-29.9	-12.7	8.4	-21.0	59.2	63.7
	EU	12.8	-8.3	-11.6	-10.4	-10.3	-4.7	-9.3	-7.9	10.2
	일본	11.7	-14.7	-11.2	-3.7	11.4	19.6	3.5	21.5	31.0
	미국	10.6	-2.8	-4.7	-1.5	-6.2	5.0	-1.8	19.1	22.7
	호주	3.7	-19.5	-15.1	-17.5	-13.2	17.4	-7.7	30.7	22.7
	전체	100.0	-16.9	-16.0	-10.1	-5.1	4.1	-6.9	19.7	23.9

주: 1) 2016년 전체 수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

2)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69) 관세청(2017. 3. 15), 『2017년 2월 수출입 현황』.

- 원유 수입단가(\$/배럴): ('16. 10) 46.1, (11) 48.9, (12) 48.2, ('17. 1) 53.6, (2) 56.3

- 원유 수입단가 증감률(%): ('16. 10) △3.5, (11) 4.3, (12) 14.5, ('17. 1) 59.1, (2) 86.7

〈가계소득〉

■ 2016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경기둔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 증가폭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0.2% 증가에 그쳤으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도 3.2% 감소함.⁷⁰⁾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1.2만 원으로 0.2% 증가하였고, 실질 소득은 1.2% 감소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6.8만 원으로 3.2% 감소하였고, 실질 소비지출은 4.6% 감소함.
-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54.1만 원으로 0.4% 증가하였으며, 흑자액은 107.3만 원으로 9.7% 증가함.
 - 처분가능소득대비 소비지출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전년동기대비 2.6%p 하락한 69.7%를 나타냄.
 - 가계의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전년동기대비 2.6% 상승한 30.3%를 기록함.

■ 2016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및 이전소득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며 전년 대비 0.6% 증가에 그쳤고, 월평균 소비지출은 유가하락에 따른 교통비 및 주거비 하락에 기인하여 0.5% 감소함.⁷¹⁾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9.9만 원으로 0.6% 증가하였으나, 실질 증가율은 0.4% 감소를 기록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0만 원으로 0.5% 감소하였고, 실질 소비지출은 1.5% 감소함.⁷²⁾
-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58.8만 원으로 0.7% 증가에 그쳤으나, 흑자액은 103.8만 원으로 3.8%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이는 소득의 증가보다는 지출 감소에 의존한 불황형 흑자를 의미함.
 - 평균소비성향은 71.1%로 5년 연속 최저치를 경신하였으며, 흑자율은 28.9%를 나타냄.

7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2. 25), “1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동향 분석”.

7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2. 25), “1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동향 분석”.

72)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연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감소함.

〈표 32〉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¹⁾

(단위: %, %p, 만 원)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	430.2	437.3	455.5	430.6	444.5	431.2	439.9
	증가율	0.9	1.6	0.8	0.8	0.7	0.2	0.6
	실질 증가율 ²⁾	0.0	0.9	0.0	0.0	-0.1	-1.2	-0.4
처분가능 소득	금액	352.8	356.3	370.4	351.9	360.7	354.1	358.8
	증가율	0.7	1.9	1.0	1.0	0.7	0.4	0.7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255.0	256.3	266.9	249.4	257.9	246.8	255.0
	증가율	1.7	0.5	0.6	0.0	0.7	-3.2	-0.5
	실질 증가율 ²⁾	0.8	-0.2	-0.3	-0.9	-0.1	-4.6	-1.5
흑자액	금액	97.8	100.0	103.5	102.5	102.8	107.3	103.8
	증가율	-1.9	5.6	1.9	3.6	0.8	9.7	3.8
평균소비성향 ³⁾		72.3	71.9	72.1	70.9	71.5	69.7	71.1
흑자율 ⁴⁾		27.7	28.1	27.9	29.1	28.5	30.3	28.9

주: 1) 전년동(분)기대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임.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새로운 물가지수를 적용한 실질금액 자료가 소급 변경됨.

3)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4) 흑자율은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다. 경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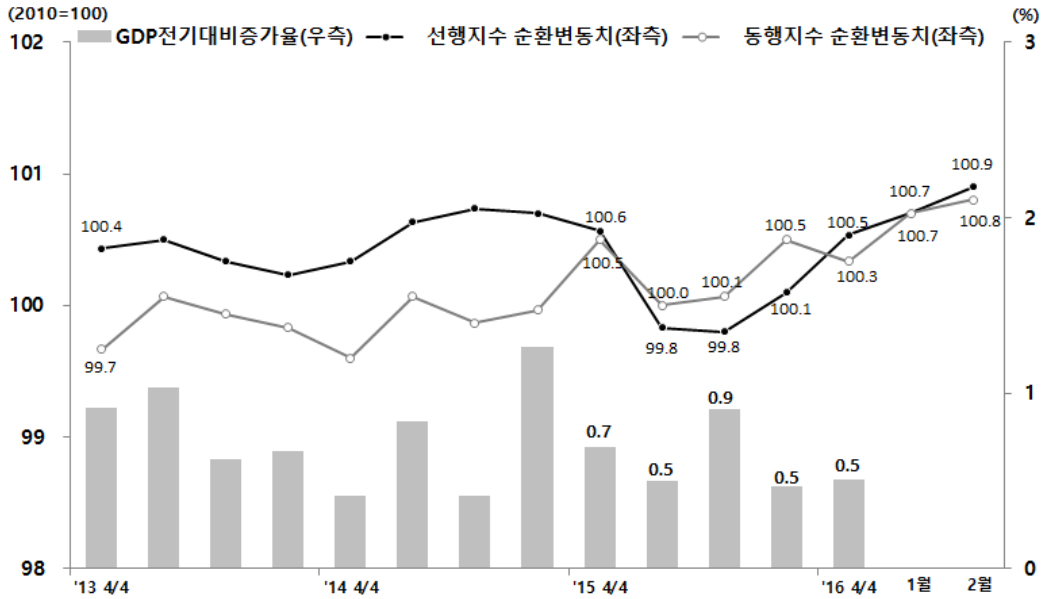
- 2016년 4/4분기 경기동향⁷³⁾을 살펴보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⁷⁴⁾가 전분기대비 0.4 상승한 100.5를 기록하였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⁷⁵⁾는 전분기대비 0.2 하락한 100.3을 기록함.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소비자기대지수와 건설수주액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계류내 수출하지수 등이 상승하며 전분기대비 0.4 상승한 100.5를 기록함.
 - 1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비자기대지수와 건설수주액 등이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월대비 0.1 상승한 100.7을 기록함.
 - 2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비자기대지수와 건설수주액이 상승 전환하며 전월대비 0.2 상승한 100.9를 기록함.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수입액 증가폭이 축소되고 서비스업생산지수가 하락 전환하며 전분기대비 0.2 하락한 100.3을 기록함.
 - 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가 하락 전환하였으나,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수입액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2 상승한 100.7을 기록함.
 -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가 하락 전환하였으나 건설기성액 등이 증가하며 전월대비 0.1 상승한 100.8을 기록함.

73) 통계청은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경기종합지수의 경기설명력 향상을 위해 제9차 경기종합지수 개편을 실시함(통계청 보도자료(2016. 6. 30), “제9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이에 따라 계간보험동향 경기종합지수는 이를 기초해 작성함.

74)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 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75)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주: 2016년 4/4분기, 1월과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6년 4/4분기 재고율⁷⁶⁾은 제조업 출하지수 상승(전분기대비 1.2), 재고지수 하락(1.8)으로 3.5%p 하락한 115.2%를 기록함.⁷⁷⁾

○ 1월 재고율은 전월대비 1.5%p 상승한 113.3%를 나타냄.

- 1월 제조업 출하는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석유정제, 금속가공, 화학제품 등의 증가로 전월대비 0.2% 증가하였으며, 재고는 기계장비, 자동차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1차금속 등의 증가로 전월대비 4.1% 증가함.⁷⁸⁾

○ 2월 재고율은 전월대비 3.8%p 상승한 117.1%를 나타냄.

- 2월 제조업 출하는 식료품, 의복 및 모피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감소하여 전월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재고는 1차 금속, 자동차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화학제품, 전자부품 등에서 감소하여 전월대비 1.7% 감소함.⁷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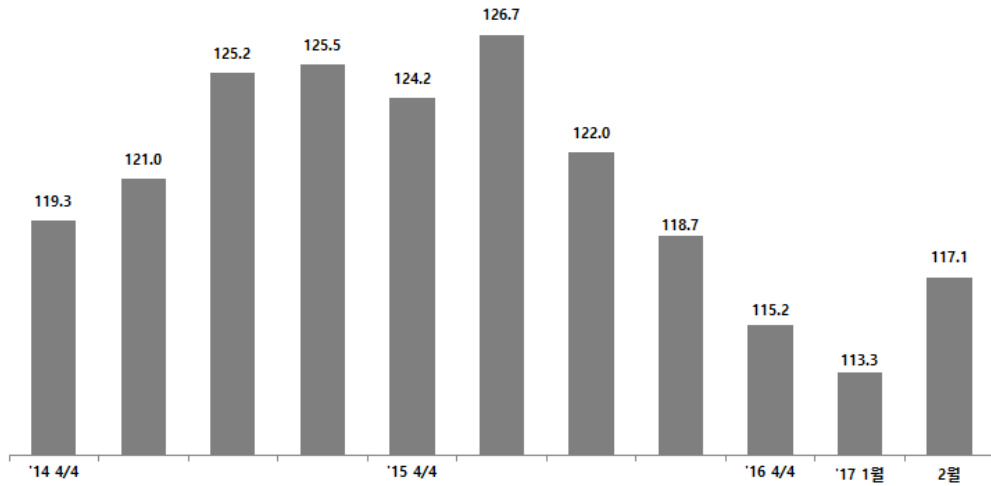
76) 재고율(재고-출하비율)은 출하액대비 재고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임.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제품 판매 증가로 재고는 줄고 출하는 증가하게 되어 재고-출하비율은 하락하게 됨. 반면 경기가 불황에 진입할 경우 판매(출하)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재고는 증가하므로 재고율 지수는 상승함.

77) 2016년 10월~2017년 2월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78) 통계청 보도자료(2017. 3. 2), “2017년 1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제조업 재고율¹⁾

(%)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79) 통계청 보도자료(2017. 3. 31), “2017년 2월 산업활동동향”.

3. 국내금융

- 2017년 1/4분기 국고채(3년, 5년, 10년 만기) 평균 금리는 각각 1.67%, 1.86%, 2.17%로 2016년 4/4분기(1.55%, 1.67%, 1.91%)보다 상승함.
 - 정책금리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1.25%로 동결됨.
 - 국고채 금리 상승의 원인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50년 만기 국고채 추가 발행임.
- 2017년 1/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54.3원으로 전분기(1,157.4원)대비 하락하였고, 종합주가지수는 2,094.84로 전분기(2,021.29)대비 상승함.
 - 수출회복세 지속,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으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임.
 - 글로벌 증시 호조,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인한 국내 정치상황의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종합주가지수가 강세를 보임.
- 2017년 1/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18,528.00으로 전분기(19,395.66)대비 하락하였으며, 평균 보험 주가이익률(PER)과 주가자산비율(PBR)은 각각 9.71, 0.75로 전분기(10.98, 0.81)대비 하락함.
 - KOSPI 보험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주가이익률(PER)과 주가자산비율(PBR)도 하락함.

〈금리〉

- 2017년 1/4분기 정책금리는 1.25%로 동결됨(〈표 33〉 참고).
 - 2017년 2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정책방향 및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유로지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요인이라고 평가함.
 - 또한 국내 경제는 소비 부진으로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였으나 수출 개선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함.
- 2017년 1/4분기 평균 CD(91일) 금리는 전분기대비 5bp 상승한 1.49%임(〈표 33〉 참고).
 - 1월 평균 CD(91일) 금리는 1.50%, 2월과 3월은 각각 1.49%, 1.48%로 매일 하락세를 보임.

■ 2017년 1/4분기 국고채 3년, 5년, 10년 평균 금리는 모두 전분기대비 상승하여 각각 1.67%, 1.86%, 2.17%임(〈표 33〉 참고).

○ 1월 국고채 3년, 5년, 10년 금리는 트럼프플레이션⁸⁰⁾ 기대 약화,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 등으로 전월 평균 금리(1.69%, 1.87%, 2.16%)보다 하락한 1.64%, 1.82%, 2.11%를 기록함.

○ 2월 평균 국고채 금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 공개 예고 및 연준 옐런 의장의 금리인상 관련 발언, 우리나라의 50년 만기 국고채 추가발행 계획 발표⁸¹⁾ 등의 영향으로 1월 평균 금리보다 상승한 1.67%, 1.86%, 2.16%를 나타냄.

○ 3월 국고채 금리는 3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25 bp)으로 3년물 1.71%, 5년물 1.91%, 10년물 2.22%로 상승함.

〈표 33〉 금리 및 스프레드

(단위: %, %p)

구분	2016 1/4	2016 2/4	2016 3/4	2016 4/4	2017 1/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정책금리	1.50	1.25	1.25	1.25	1.25	-	-0.25
CD(91일)	1.65	1.54	1.35	1.44	1.49	0.05	-0.16
국고채(3년)	1.53	1.42	1.26	1.55	1.67	0.12	0.14
국고채(5년)	1.66	1.51	1.29	1.67	1.86	0.19	0.20
국고채(10년)	1.90	1.74	1.44	1.91	2.17	0.26	0.27
회사채(3년, AA-)	2.01	1.88	1.67	1.99	2.15	0.16	0.14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47	0.46	0.41	0.44	0.48	0.04	0.01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미국과 한국의 국채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승하였지만, 트럼프케어 철회 등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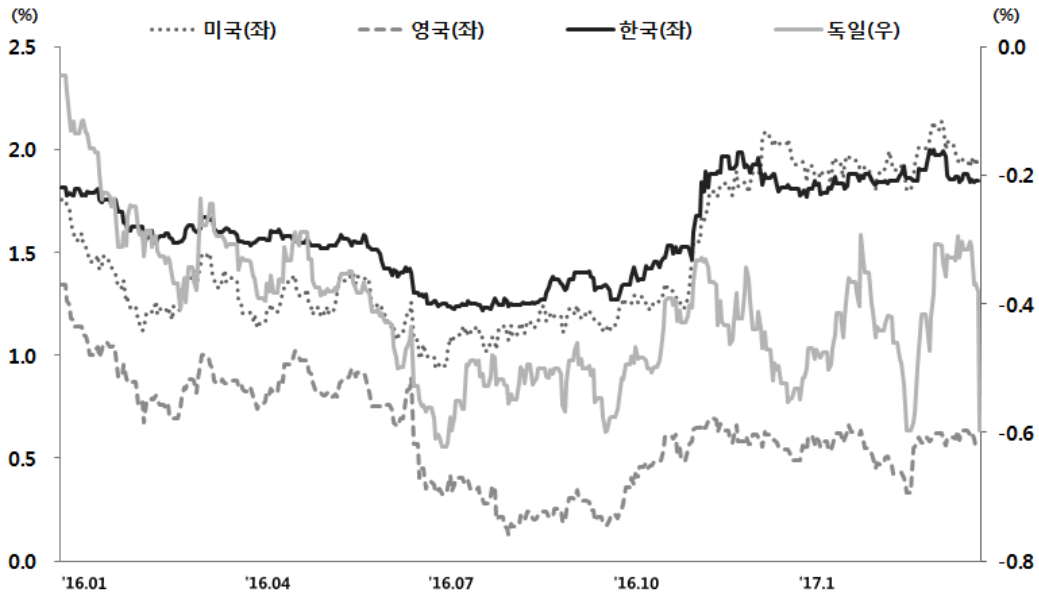
○ 독일과 영국의 국채금리는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⁸²⁾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ECB 총재의 디플레 위험 감소 발언⁸³⁾과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으로 상승세로 전환함.

80) 미국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유발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을 말함.

8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2. 20), “50년 만기 국고채 추가 발행”.

82) 4월 예정인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음. 르펜 대표의 대선 공약은 프렉시트(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 찬반 국민투표 실시, 유로존 탈퇴 후 ‘프랑’ 화폐 복원 등임. 르펜 대표 당선 후 프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유럽 경제가 큰 영향을 끼치므로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로 투자자들이 모임.

〈그림 3〉 주요국의 국고채 5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 회사채(3년 만기, AA-) 금리는 2017년 1/4분기 평균 2.15%로 전분기대비 16bp 상승함(〈표 33〉 참고).

- 1월 평균 회사채 금리는 2.10%, 2월과 3월은 각각 2.13%, 2.21%로 소폭 상승함.
- 신용 스프레드(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차이)는 전분기대비 4bp 늘어나 평균 48bp임.

〈환율〉

■ 2017년 1/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분기대비 3.1원 하락한 평균 1,154.3원임(〈표 34〉 참고).

- 1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⁸⁴⁾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2.8원 상승한 1,185.1원을 기록함.
- 2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2월 FOMC 회의 이후 금리 인상 기대 약화, 국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기조 및 수출 회복세 지속⁸⁵⁾ 등으로 1월보다 40.2원 하락한 1,144.9원이었음.

83) 3월 9일 ECB 통화정책회의를 마친 기자회견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디플레이션 위험이 대체로 사라졌다고 평가함.

84) 12월 시간당 임금상승률 전년 대비 2.9% 증가,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대비 2.1% 증가.

85) 수출증가율(전년동월대비, %): ('16. 10)△3.2 ('16. 11)+2.3 ('16. 12)+6.3 ('17. 1)+11.1 ('17. 2)+20.2

- 3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전망⁸⁶⁾ 및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1,134.8원을 기록함.

〈표 34〉 주요국 환율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원/달러	1,201.4	1,163.2	1,121.4	1,157.4	1,154.3	1,185.1	1,144.9	1,134.8
엔/달러	115.3	108.2	102.4	109.5	113.7	115.1	113.1	113.0
달러/유로	1.103	1.129	1.116	1.078	1.065	1.061	1.065	1.069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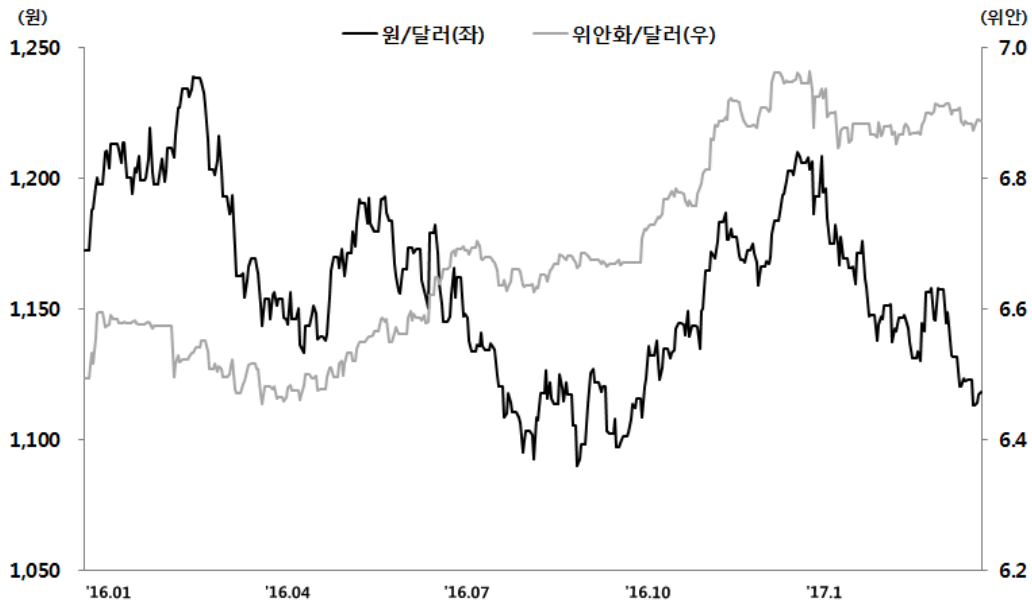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17년 1/4 분기 위안/달러 환율은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전분기대비 0.056위안 상승한 평균 6.889위안을 기록함.

- 최근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위안/달러 환율이 보합세를 보임에 따라 위안/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 간 상관관계도 약화됨(〈그림 4〉 참고).

86) 3월 FOMC에서 연준의 물가목표 운용에 대한 유연한(symmetric) 자세, 금리인상 전망치(금년 추가로 2차례) 유지 등으로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가 완화됨.

〈그림 4〉 위안/달러와 원/달러 환율 비교



자료: Bloomberg.

■ 2017년 1/4분기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전반적인 강세를 보여 엔/달러 평균 환율은 상승하고,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하락함(〈표 34〉 참고).

- 1월 엔/달러 환율은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에 대한 트럼프의 부정적 견해, 하드 브렉시트 우려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으로 전월대비 하락한 115.1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환율은 유로존 경제지표 개선,⁸⁷⁾ ECB의 통화정책 유지 등으로 상승하여 1.061달러를 기록함.
- 2월에는 일본 무역지표 악화⁸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세제개혁 우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엔/달러 평균 환율은 전월대비 하락한 113.1엔,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유럽 경기회복 기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재개 등으로 1.065달러를 나타냄.
- 3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 트럼프 케어의 무산으로 하락하여 113.0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당의 집권 실패와 FOMC 회의 이후 달러 약세가 반영되어 전월보다 상승한 1.069 달러임.

87) 유로존의 11월 경상수지 흑자폭(405억 유로)이 확대되고, 1월 소비자신뢰지수(-4.9, '15. 4월 이후 최고)가 상승한 가운데 '16. 3Q GDP대비 정부부채는 90.1%로 하락함. 또한 11월 실업률은 9.8%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지속한 가운데 12월 제조업 PMI는 54.9로 상승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1% 상승함.

88) 일본 1월 무역수지는 수입(전년대비 +8.5%) 증가로 인해 5개월만에 1.1조 엔 적자를 기록함.

〈주가〉

■ 2017년 1/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전분기 평균 2,012.29보다 상승한 평균 2,094.84임(〈그림 5〉참고).

- 1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외국인 매수세⁸⁹⁾ 및 IT업종의 대형주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평균주가지수 2,021.67보다 상승한 2061.73을 나타냄.
- 2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082.80으로 글로벌 증시 호조,⁹⁰⁾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개선 기대, 수출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1월에 비해 상승하였음.
- 3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136.17로 탄핵 인용에 따른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상승함.

〈그림 5〉 주가지수



주: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상장된 보통주 전 종목을 대상으로 1980년 1월 4일을 기준일로 하며, 당일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시계열에 의한 연속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자료: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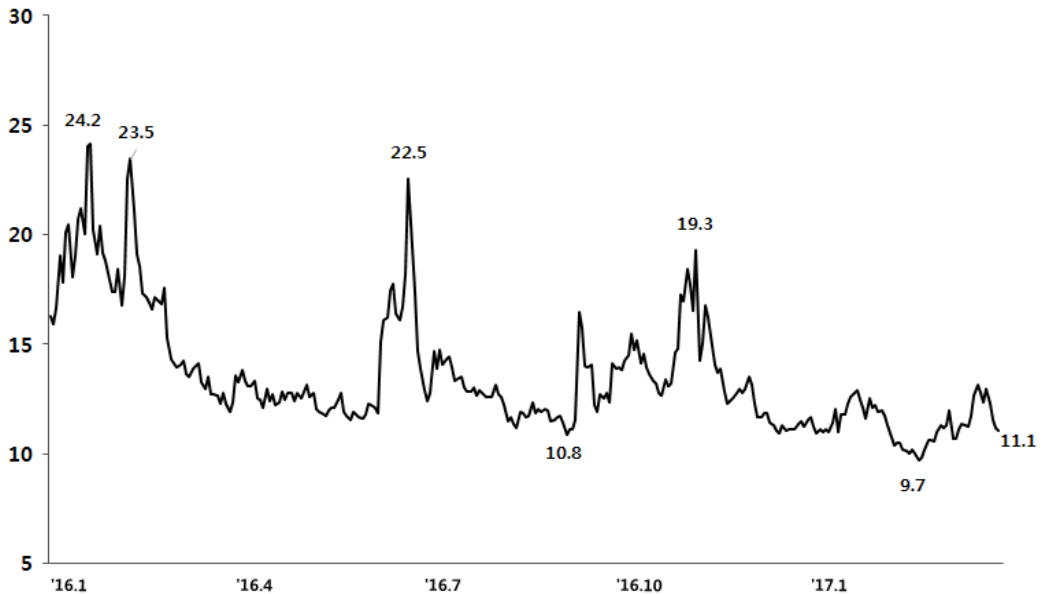
89) 2017년 1월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수는 약 1조 4,900억 원임.

90) 2017년 2월 말 기준으로 미국 다우지수 20,812.24(전월대비 +4.8%), 나스닥지수 5,825.44(전월대비 +3.8%), 독일 DAX지수 11,834.41(전월대비 +2.6%), 일본 니케이지수 19,118.99(전월대비 +0.4%)

■ 2017년 1/4분기 변동성지수(VKOSPI)를 살펴보면 대내외 여건으로 상승·하락을 반복하고 있음 (<그림 6> 참고).

-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가지수가 오르면서 2월 22일 변동성지수가 2014년 이래 최저 수준인 9.7까지 하락함.
-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과 FOMC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불안요소가 해소되면서 변동성지수는 하락세로 전환됨.

〈그림 6〉 변동성지수(VKOSPI)



주: VKOSPI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KOSPI200 옵션가격을 이용하여 옵션투자자들이 예상하는 KOSPI200 지수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한 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보험주가〉

■ 2017년 1/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전분기 평균 19,395.66보다 하락한 18,528.00임(<그림 7> 참고).

-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결정과 올해 예정된 IFRS17 기준서 공개, 신지급 여력제도 도입 관련 규제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임.

〈그림 7〉 KOSPI 보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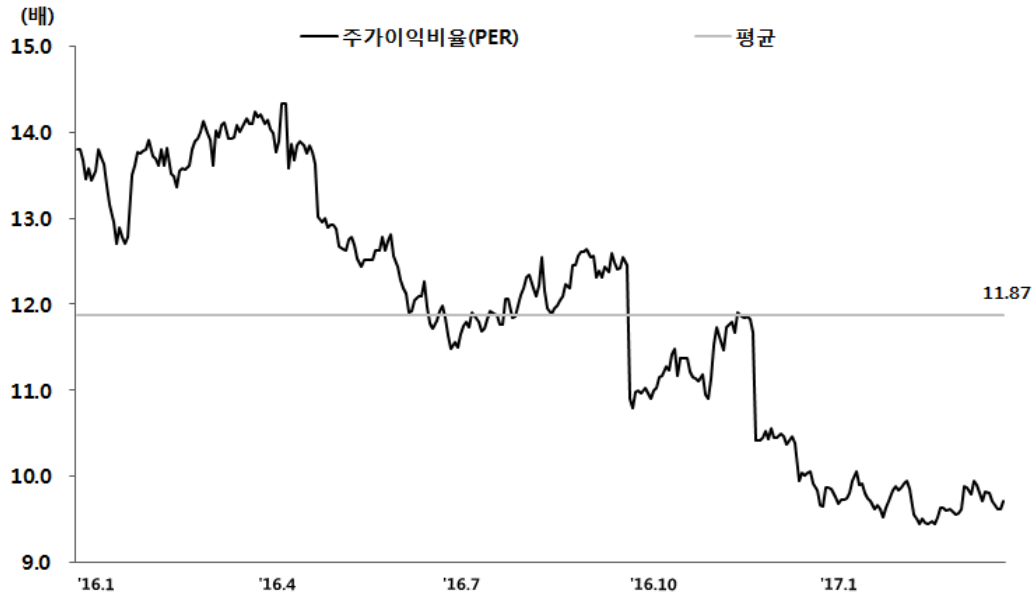
주: KOSPI 보험지수는 총 13개의 보험회사(생명보험 4개사, 손해보험 8개사, 재보험 1개사)를 구성종목으로 하여 산출하는 주가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 2017년 1/4분기 평균 보험 주가이익률(PER)과 주가자산비율(PBR)은 각각 9.71과 0.75로 전분기 평균인 10.98과 0.81에 비하여 하락함(〈그림 8〉, 〈그림 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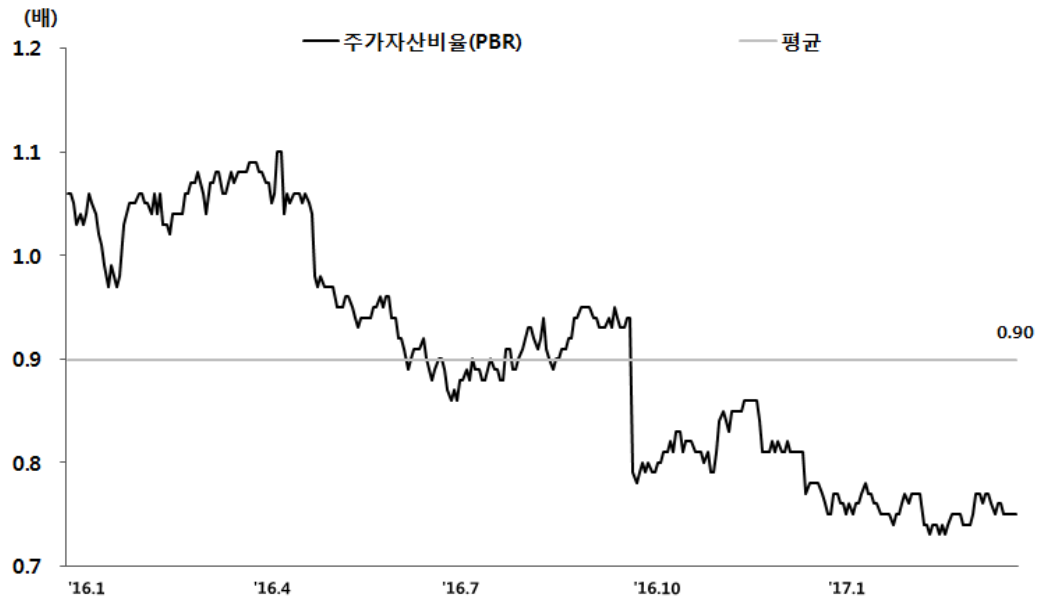
○ 보험지수의 하락으로 주가이익률(PER)과 주가자산비율(PBR) 모두 하락함.

〈그림 8〉 보험 주가이익비율(PER)



주: 직선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평균 주가이익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9〉 보험 주가자산비율(PBR)



주: 직선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평균 주가자산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

Ⅱ. 국내보험 동향

- 2016년 4/4분기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한 57조 4,919억 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5.2%p 상승한 58.7%, 손해보험 손해율은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0.9%p 상승한 83.8%를 기록함.
 - 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손해보험(재보험회사 및 보증보험회사 제외)의 경우 증가세를 보였지만, 생명보험의 적자로 4,783억 원의 적자를 나타냄.
 -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늘어나 전분기대비 1.1% 증가한 1,034조 1,673억 원, 총부채는 전분기대비 2.6% 증가한 935조 9,154억 원을 기록한 반면, 총자본은 전분기대비 10.9% 감소한 98조 2,520억 원임.
- 2016년 연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202조 1,281억 원임.
 - 연간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대비 2.7%p 상승한 59.8%, 손해보험 손해율은 전년대비 1.4%p 하락한 81.7%를 기록함.
 - 연간 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9.2% 감소한 4조 9,971억 원임.
 - 연간 총자산은 전년대비 8.8% 증가한 1,034조 1,673억 원, 총부채, 총자본은 각각 전년대비 9.1%, 5.3%씩 증가하여 935조 9,154억 원, 98조 2,520억 원을 기록함.
- 2016년 4/4분기 보험산업의 자본이익률(연간 기준 환산)은 전년동기대비 0.98%p 하락한 5.61%,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12%p 하락한 0.60%를 나타냄.
 - 생명보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2.04%p 하락한 3.79%,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23%p 하락한 0.39%를 나타냄.
 - 손해보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76%p 상승한 10.48%,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20%p 상승한 1.23%를 나타냄.
- 2016년 4/4분기 말 전속설계사 수는 생명보험의 경우 전분기대비 2,191명 감소한 11만 1,813명, 손해보험의 경우 전분기대비 935명 감소한 15만 8,992명을 나타냄.
 - 교차모집설계사 수는 생명보험이 전분기대비 1,363명 증가한 1만 2,764명, 손해보험이 전분기대비 619명 증가한 7만 7,661명임.

1. 보험 총괄

가. 수입(원수)보험료

- 2016년 4/4분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한 57조 4,919억 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¹⁾는 사망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에서 감소세를 보여 전년동기대비 0.9% 증가에 그친 35조 1,597억 원을 나타냄(〈표 7〉 참조).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²⁾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한 22조 3,323억 원을 기록함(〈표 18〉 참조).
 - 2016년 보험산업 연간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202조 1,281억 원임.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119조 8,112억 원,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82조 3,168억 원을 기록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1),2)}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34.9 (6.4)	117.2 (6.0)	29.0 (6.1)	28.3 (1.7)	27.3 (0.6)	35.2 (0.9)	119.8 (2.2)
손해보험	22.8 (2.2)	80.2 (4.8)	19.8 (2.4)	20.5 (6.8)	19.7 (4.3)	22.3 (-2.2)	82.3 (2.6)
합계	57.7 (4.7)	197.5 (5.5)	48.8 (4.5)	48.8 (3.8)	47.0 (2.1)	57.5 (-0.3)	202.1 (2.4)

주: 1)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1) 보험회사가 회계연도 동안 받아들이는 보험료로 순보험료(=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으로 구성됨.
- 2) 원수보험료(direct premiums written)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받아들이는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의 합계임.

나. 지급률(손해율) 및 사업비율

- 2016년 4/4분기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수입보험료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5.2%p 상승한 58.7%, 사업비율은 0.2%p 하락한 11.5%, 해지율은 0.1%p 하락한 8.5%임.
- 2016년 연간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대비 2.7%p 상승한 59.8%, 사업비율은 0.4%p 하락한 12.9%를 기록함.
- 2016년 4/4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0.9%p 상승한 83.8%, 사업비율은 0.1%p 상승한 20.7%, 합산비율은 1.1%p 상승한 104.5%를 기록함.
- 2016년 연간 손해보험 손해율은 전년대비 1.4%p 하락한 81.7%, 사업비율은 0.2%p 상승한 19.7%를 나타냈으며 합산비율은 1.3%p 하락한 101.4%를 기록함.

〈표 2〉 지급률 · 손해율 및 사업비율

(단위: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 보험 ¹⁾	지급률	53.5	57.1	58.5	59.7	62.8	58.7	59.8
	사업비율	11.7	13.3	13.3	13.4	14.0	11.5	12.9
	해지율	8.6	8.6	2.3	4.5	6.5	8.5	8.5
손해 보험 ²⁾	손해율	82.9	83.1	81.6	81.3	79.9	83.8	81.7
	사업비율	20.6	19.5	19.4	19.2	19.6	20.7	19.7
	합산비율	103.4	102.7	101.0	100.5	99.5	104.5	101.4

주: 1)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여기서 순사업비는 지급경비(급여와 임금, 손해조사비, 모집비, 수급비 등)에서 수입경비(출재보험 수수료, 출재이익 수수료 등)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보유보험료는 수입보험료에서 출재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 · 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 2016년 4/4분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설계사 수는 모두 감소함.

- 생명보험 전속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2,191명 감소한 11만 1,813명이며, 교차모집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1,363명 증가한 1만 2,764명임.
- 손해보험 전속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1,554명 감소한 8만 1,331명이며, 교차모집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619명 증가한 7만 7,661명임.

〈표 3〉 보험산업 설계사 수

(단위: 명)

구분		2015	2016			
		4/4	1/4	2/4	3/4	4/4
생명 보험	전속설계사	117,311	116,898	114,998	114,004	111,813
	교차설계사	9,906	10,308	10,015	11,401	12,764
손해 보험	전속설계사	81,148	83,324	82,719	82,885	81,331
	교차설계사	75,448	76,330	75,299	77,042	77,661

자료: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재무성과

- 2016년 4/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1.1% 증가한 1,034조 1,673억 원을 나타냄.
 - 생명보험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0.9% 증가한 782조 1,621억 원,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1.9% 증가한 252조 53억 원임.
 - 2016년 말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전년대비 8.8% 증가하였으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총자산은 각각 전년대비 7.9%, 11.5% 증가함.
- 2016년 4/4분기 보험산업 총부채 규모는 전분기대비 2.6% 증가한 935조 9,154억 원을 기록했으며, 총자본 규모는 전분기대비 10.9% 감소한 98조 2,520억 원임.
 - 전분기대비 총부채는 생명보험의 경우 2.2%, 손해보험의 경우 3.8% 증가한 반면, 총자본은 생명보험 11.7%, 손해보험 9.3% 감소함.
 - 2016년 말 보험산업 총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9.1% 증가하였으며, 총자본은 5.3% 증가함.

〈표 4〉 보험산업 재무상태표^{1),2)}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총자산	724.9 (2.5)	724.9 (9.5)	742.0 (2.4)	761.0 (2.6)	775.5 (1.9)	782.2 (0.9)	782.2 (7.9)
	총부채	660.9 (2.8)	660.9 (9.6)	675.0 (2.1)	689.2 (2.1)	701.0 (1.7)	716.4 (2.2)	716.4 (8.4)
	총자본	64.0 (0.1)	64.0 (8.2)	67.0 (4.7)	71.8 (7.1)	74.5 (3.8)	65.8 (-11.7)	65.8 (2.8)
손해보험	총자산	225.9 (2.9)	225.9 (12.8)	232.2 (2.8)	241.1 (3.8)	247.2 (2.5)	252.0 (1.9)	252.0 (11.5)
	총부채	196.6 (3.3)	196.6 (13.4)	201.6 (2.5)	207.2 (2.8)	211.4 (2.0)	219.5 (3.8)	219.5 (11.6)
	총자본	29.3 (0.0)	29.3 (9.0)	30.5 (4.2)	33.9 (11.0)	35.8 (5.5)	32.5 (-9.3)	32.5 (10.8)
합계	총자산	950.8 (2.6)	950.8 (10.3)	974.2 (2.5)	1,002.1 (2.9)	1,022.7 (2.1)	1,034.2 (1.1)	1,034.2 (8.8)
	총부채	857.5 (2.9)	857.5 (10.5)	876.7 (2.2)	896.4 (2.2)	912.4 (1.8)	935.9 (2.6)	935.9 (9.1)
	총자본	93.3 (0.1)	93.3 (8.5)	97.5 (4.5)	105.7 (8.3)	110.3 (4.3)	98.3 (-10.9)	98.3 (5.3)

주: 1)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음.

2)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4/4분기 보험산업 전체 당기순이익은 생명보험의 적자로 6,64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은 9,288억 원의 적자인 반면, 손해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40.0% 증가한 2,645억 원의 흑자를 기록함.
 - 2016년 연간 보험산업 전체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9.2% 감소한 4조 9,971억 원임.

〈표 5〉 보험산업 당기순이익^{1),2)}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 보험	당기순이익 ²⁾	-0.1 (-160.7)	3.6 (11.0)	1.3 (3.6)	1.0 (-36.1)	1.1 (23.1)	-0.9 (881.4)	2.5 (-31.5)
	보험영업이익	-6.3 (3.3)	-20.9 (-0.3)	-5.2 (3.4)	-5.0 (6.5)	-5.0 (2.2)	-7.2 (14.0)	-22.4 (7.0)
	투자영업이익	5.2 (-6.4)	21.4 (-0.7)	5.8 (0.7)	5.3 (-4.5)	5.4 (8.3)	4.9 (-4.7)	21.4 (-0.2)
	영업외이익	1.1 (26.8)	3.9 (11.4)	1.1 (15.0)	1.0 (1.7)	1.0 (4.4)	1.1 (6.9)	4.1 (6.9)
	연간기준당기순이익 ⁵⁾	3.6 (11.0)	3.6 (11.0)	5.3 (3.6)	4.6 (-17.9)	4.5 (-8.0)	2.5 (-31.5)	2.5 (-31.5)
손해 보험	당기순이익 ²⁾	0.2 (2.2)	1.9 (15.0)	0.7 (11.5)	0.8 (28.9)	0.8 (61.8)	0.3 (40.0)	2.5 (32.8)
	보험영업이익	-1.1 (-5.1)	-3.3 (6.7)	-0.7 (-13.5)	-0.6 (-12.5)	-0.4 (-45.2)	-1.1 (0.6)	-2.7 (-15.5)
	투자영업이익	1.4 (0.7)	6.0 (10.0)	1.6 (-2.5)	1.6 (9.2)	1.5 (7.5)	1.5 (5.7)	6.2 (4.8)
	영업외이익	0.0 (-55.6)	-0.2 (-13.4)	-0.1 (-5.5)	0.0 (38.6)	-0.1 (149.6)	0.0 (-123.1)	-0.2 (36.3)
	연간기준당기순이익 ⁵⁾	1.9 (15.0)	1.9 (15.0)	2.7 (11.5)	3.0 (20.3)	3.0 (32.0)	2.5 (32.8)	2.5 (32.8)
당기순이익 합계 ^{3),4)}		0.1 (-72.3)	5.5 (12.3)	2.0 (6.1)	1.8 (-17.1)	1.9 (36.8)	-0.7 (-804.7)	5.0 (-9.2)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 합계 ^{5),6)}		5.5 (12.3)	5.5 (12.3)	8.0 (6.1)	7.6 (-6.2)	7.5 (4.7)	5.0 (-9.2)	5.0 (-9.2)

주: 1)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5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17개 외국계를 포함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함.

2)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비용이 차감된 수치임.

4)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합계를 의미함.

5)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6)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누적 당기순이익 합계를 의미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4/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ROE)은 전년동기대비 0.98%p 하락한 5.61%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2.04%p 하락한 3.79%를 나타냄.

○ 손해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1.76%p 상승한 10.48%를 나타냄.

■ 2016년 4/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산이익률(ROA)은 전년동기대비 0.12%p 하락한 0.60%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0.23%p 하락한 0.39%를 나타냄.

○ 손해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0.20%p 상승한 1.23%를 나타냄.

〈표 6〉 보험산업 자본 및 자산이익률^{1),2)}

(단위: %)

구분		2015	2016			
		4/4	1/4	2/4	3/4	4/4
자본 이익률 (ROE)	생명보험	5.83	8.10	6.77	6.53	3.79
	손해보험	8.72	11.53	11.82	11.67	10.48
	합계	6.59	9.01	8.14	7.93	5.61
자산 이익률 (ROA)	생명보험	0.62	0.87	0.75	0.73	0.39
	손해보험	1.03	1.38	1.48	1.48	1.23
	합계	0.72	1.00	0.93	0.91	0.60

주: 1)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5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17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함.

2)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3) 자산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산, 기중자산 = ((전회계연도 말 자산 + 당기 말 자산)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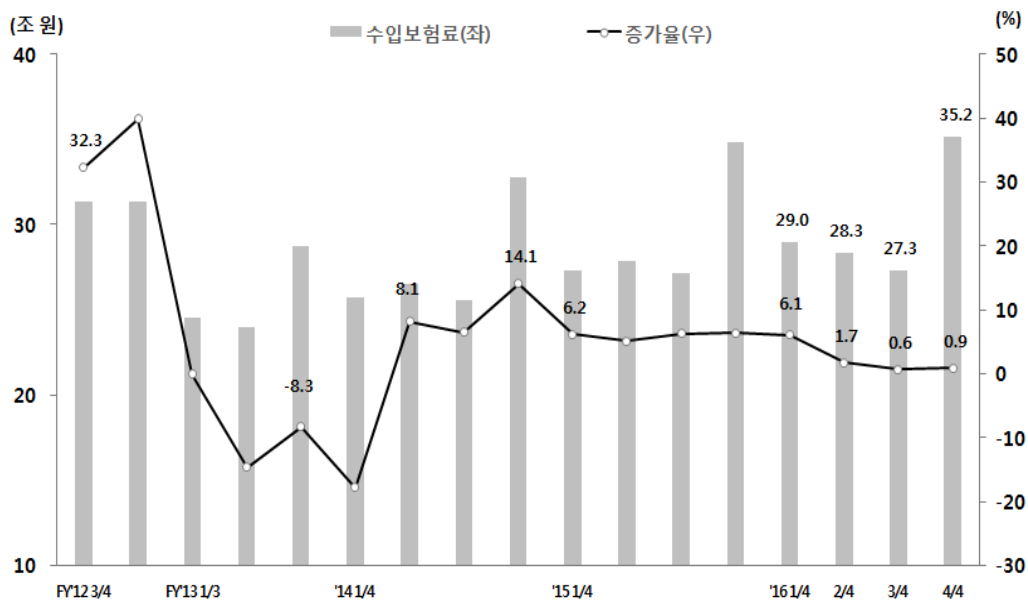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종목별 수입보험료〉

- 2016년 4/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9% 증가에 그친 35조 1,597억 원을 기록함(〈그림 1〉 참조).
- 2016년 연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119조 8,112억 원을 나타냄.

〈그림 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¹⁾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4/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사망보험 성장세가 둔화된 데다 이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5.4% 줄어든 24조 6,068억 원을 기록함(〈표 7〉 참조).
- 생존보험³⁾ 수입보험료는 공시이율 하락에 따른 수요 감소와 저금리로 인한 판매 부담 확대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해 있을 때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으로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이 있음.

로 전년동기대비 16.5% 감소한 5조 1,308억 원을 나타냄.

- 초회보험료와 계속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54.3%, 5.2% 감소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9조 7,45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둔화 되고 있음(2/4분기: 8.4% → 3/4분기: 6.9% → 4/4분기: 5.5%).

- 특히, 초회보험료는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⁴⁾의 신규 판매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25.8% 감소함.

○ 생사혼합보험⁵⁾ 수입보험료는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단기납보험료 증가⁶⁾ 추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3.8% 감소한 4조 9,312억 원을 기록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그동안 지속된 변액연금 판매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한 4조 7,993억 원을 기록함.

○ 2016년 연간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과 변액보험이 부진한 실적을 보이면서 전년 대비 0.4% 감소한 102조 3,242억 원을 시현함.

■ 2016년 4/4분기 단체보험⁷⁾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9.3% 증가한 10조 5,529억 원을 기록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의 경우 초회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계속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9.7% 늘어난 10조 3,725억 원을 나타냄.

○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한 1,803억 원임.

○ 2016년 연간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20.8% 증가한 17조 4,871억 원을 기록함.

4)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종신보험 상품을 의미함.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 미리 정해진 시점(보험기간의 만료 시를 포함)에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생존에 따른 보험금을 일반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양로보험이 이에 해당함.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보다 만기생존 시 보험금이 크며, 만기생존 시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보다 크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됨. 만기환급금이 있는 정기보험은 보험기간 만료 시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생사혼합보험과 유사함.

6)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보증이율 상품 제공을 통해 일시납을 포함한 단기납보험료 중심으로 신규 판매를 확대하였음.

7) 단체보험에는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음.

〈표 7〉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수입보험료	246,848 (2.7)	57,044 (-9.3)	53,563 (-12.4)	52,363 (-14.6)	51,308 (-16.5)	214,279 (-13.2)
	초회보험료 ²⁾	62,198 (-6.7)	11,565 (-34.5)	8,542 (-44.0)	7,872 (-47.8)	6,510 (-54.3)	34,489 (-44.5)
	계속보험료 ³⁾	184,650 (6.3)	45,479 (0.5)	45,021 (-1.9)	44,491 (-3.8)	44,799 (-5.2)	179,790 (-2.6)
사망	수입보험료	360,361 (8.6)	96,491 (8.4)	95,863 (8.4)	96,798 (6.9)	97,454 (5.5)	386,607 (7.3)
	초회보험료	20,272 (89.1)	7,470 (16.1)	4,252 (5.9)	4,082 (-23.6)	3,323 (-25.8)	19,126 (-5.7)
	계속보험료	340,089 (5.9)	89,022 (7.8)	91,611 (8.5)	92,716 (8.8)	94,132 (7.1)	367,480 (8.1)
생사 혼합	수입보험료	213,771 (6.6)	66,400 (27.9)	56,050 (4.8)	56,533 (10.5)	49,312 (-13.8)	228,294 (6.8)
	초회보험료	43,169 (-2.3)	22,310 (91.9)	13,059 (20.8)	12,424 (42.5)	7,560 (-37.1)	55,353 (28.2)
	계속보험료	170,602 (9.1)	44,090 (9.4)	42,990 (0.7)	44,109 (3.9)	41,752 (-7.6)	172,941 (1.4)
변액 보험	수입보험료	206,431 (-0.1)	48,231 (-5.7)	48,052 (-10.2)	49,786 (-5.4)	47,993 (-2.3)	194,062 (-6.0)
	초회보험료	12,831 (22.8)	2,152 (-8.1)	2,624 (-33.5)	4,380 (5.1)	3,660 (54.0)	12,815 (-0.1)
	계속보험료	193,600 (-1.4)	46,079 (-5.5)	45,428 (-8.4)	45,406 (-6.3)	44,333 (-5.2)	181,247 (-6.4)
개 인 계	수입보험료	1,027,412 (4.9)	268,166 (5.2)	253,528 (-1.2)	255,479 (-0.1)	246,068 (-5.4)	1,023,242 (-0.4)
	초회보험료	138,470 (4.9)	43,497 (14.3)	28,477 (-16.3)	28,757 (-13.7)	21,053 (-36.4)	121,784 (-12.0)
	계속보험료	888,942 (4.9)	224,669 (3.6)	225,051 (1.1)	226,722 (2.0)	225,016 (-0.9)	901,458 (1.4)
일반 단체	수입보험료	7,735 (-5.1)	2,120 (0.7)	1,902 (-0.2)	1,794 (-4.5)	1,803 (-2.3)	7,619 (-1.5)
	초회보험료	1,281 (1.2)	552 (15.1)	306 (18.3)	258 (-10.6)	260 (2.1)	1,375 (7.4)
	계속보험료	6,454 (-6.3)	1,568 (-3.5)	1,597 (-3.1)	1,536 (-3.4)	1,543 (-3.0)	6,243 (-3.3)
퇴직 연금	수입보험료	136,990 (15.9)	19,647 (20.7)	27,852 (39.3)	16,027 (13.7)	103,725 (19.7)	167,252 (22.1)
	초회보험료	43,436 (-15.5)	4,400 (-30.6)	5,094 (29.8)	3,295 (-23.7)	18,752 (-35.0)	31,542 (-27.4)
	계속보험료	93,553 (40.0)	15,247 (53.4)	22,758 (41.7)	12,731 (30.1)	84,973 (47.1)	135,710 (45.1)
단 체 계 ³⁾	수입보험료	144,725 (14.5)	21,767 (18.4)	29,755 (35.9)	17,821 (11.5)	105,529 (19.3)	174,871 (20.8)
	초회보험료	44,717 (-15.1)	4,952 (-27.4)	5,400 (29.1)	3,553 (-22.9)	19,012 (-34.7)	32,917 (-26.4)
	계속보험료	100,008 (35.7)	16,815 (45.4)	24,355 (37.5)	14,267 (25.5)	86,516 (45.8)	141,954 (41.9)
합계	수입보험료	1,172,137 (6.0)	289,933 (6.1)	283,283 (1.7)	273,300 (0.6)	351,597 (0.9)	1,198,112 (2.2)
	초회보험료	183,187 (-0.8)	48,449 (8.0)	33,877 (-11.3)	32,311 (-14.8)	40,065 (-35.6)	154,701 (-15.5)
	계속보험료	988,950 (7.4)	241,484 (5.7)	249,406 (3.8)	240,989 (3.1)	311,532 (8.8)	1,043,411 (5.5)

주: 1)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1회 납입 보험료를 의미함.

3) 단체보험에는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2년 이후 퇴직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퇴직연금 의무 가입의 실시로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에 포함시켜 작성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시장점유율〉

- 2016년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상위3사가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반면,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상승함.
 - 상위 3사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0.6%p 하락한 47.4%를 기록함.
 -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각각 0.2%p, 0.5%p 상승한 39.1%, 13.6%를 나타냄.
 - 2016년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상위 3사 비중은 전년대비 하락한 반면, 외국사 비중이 상승함.

- 2016년 4/4분기 초회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상위 3사는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반면,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상승함.
 - 상위 3사의 초회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연금보험을 비롯한 저축성보험의 신규 판매 축소로 전년동기대비 13.9%p 하락한 25.4%를 기록함.
 -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초회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일부 회사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각각 전년동기대비 4.8%p, 9.0%p 상승한 59.7%, 14.8%를 기록함.
 - 2016년 연간 초회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동양생명의 외국사 편입⁸⁾으로 외국사 비중이 11.2%에서 22.3%로 상승함.

- 2016년 4/4분기 생명보험 허핀달지수는 전년동기대비 34 상승한 1,092를 기록함.
 - 2016년 연간 생명보험 허핀달지수는 전년대비 26 하락한 1,027을 나타냄.

8) 2015년 10월 동양생명이 안방보험에 인수·합병됨에 따라 2015년 4/4분기부터 외국사에 포함됨.

〈표 8〉 생명보험 시장점유율¹⁾

(단위: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입보험료	점유율 ²⁾	상위 3사	48.0	46.8	46.5	45.1	45.3	47.4	46.2
		국내 중·소형사 ³⁾	38.9	37.2	35.2	37.3	37.0	39.1	37.2
		외국사 ⁴⁾	13.1	15.9	18.3	17.5	17.8	13.6	16.6
	허핀달 지수 ⁵⁾		1,058	1,053	1,027	1,010	1,000	1,092	1,027
초회보험료	점유율	상위 3사	39.3	38.0	38.6	24.6	26.7	25.4	29.6
		국내 중·소형사 ³⁾	54.9	50.8	36.5	49.0	50.1	59.7	48.1
		외국사 ⁴⁾	5.8	11.2	24.9	26.4	23.2	14.8	22.3

주: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각 회사점유율 = 각 회사수입보험료 / 전체 수입보험료, 상위 3사, 국내 중·소형사, 외국사 점유율은 회사 분류에 따라 각 회사 점유율을 합한 값임.

3) 국내 중·소형사(13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이며, 동양생명은 2015년 10월 중국 안방보험에 인수·합병됨에 따라 2015년 4/4분기부터 외국사에 포함됨.

4) 외국사는 알리안츠생명 등을 포함한 9개사임.

5) 허핀달 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 제곱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지수가 1,800 이상인 경우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시장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 2016년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개인보험 대부분 종목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승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5.2%p 상승한 58.7%를 기록함.

○ 생존보험과 변액보험 지급률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데다 지급보험금은 증가함에 따라 각각 전년동기대비 17.6%p, 8.9%p 상승한 79.7%, 71.6%를 기록함.

○ 생사혼합보험 지급률은 수입보험료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9.8%p 상승한 68.0%를 기록함.

○ 2016년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대비 2.7%p 상승한 59.8%를 나타냄.

■ 2016년 4/4분기 생명보험산업 전체 사업비율과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2%p, 0.1%p 하락한 11.5%, 8.5%를 기록함.

○ 2016년 연간 생명보험산업 사업비율과 해지율은 전년대비 각각 0.4%p, 0.1%p 하락한 12.9%, 8.5%를 나타냄.

〈표 9〉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전체 보험금 지급률 ¹⁾	53.5	57.1	58.5	59.7	62.8	58.7	59.8
개인	54.2	55.0	54.4	59.0	59.7	63.3	59.0
생존	62.1	57.5	65.0	69.4	72.1	79.7	71.4
사망	48.1	48.3	48.8	47.8	47.6	48.3	48.1
생사혼합	48.2	55.1	47.9	56.1	56.1	68.0	56.3
변액	62.7	63.3	61.8	73.0	74.4	71.6	70.2
단체	51.4	72.6	110.0	65.4	106.3	48.1	64.7
일반단체	115.7	114.5	109.3	106.7	112.9	105.2	108.5
퇴직연금	50.1	70.2	110.0	62.6	105.6	47.1	62.7
사업비율 ²⁾	11.7	13.3	13.3	13.4	14.0	11.5	12.9
해지율 ³⁾	8.6	8.6	2.3	4.5	6.5	8.5	8.5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2)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3)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여기서 효력상실액이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일정한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 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을 의미함. 그리고 해지액이란 보험가입자가 중도 해지 시 보험료 적립금에서 보험회사의 운영비 및 해지공제액 등을 제하고 돌려받는 금액을 의미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⁹⁾〉

■ 2016년 4/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의 경우 특히 임직원 채널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확대됨.

- 임직원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6.7%p 증가한 45.7%를 기록함.
- 설계사 채널과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주요 판매 상품인 연금보험과 생사혼합보험 판매 감소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3.2%p, 4.3%p 축소된 15.2%, 32.7%를 나타냄.
- 2016년 연간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의 경우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전년대비 확대된 반면 설계사 채널 비중이 축소됨.

〈표 10〉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

(단위: %, 억 원)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임직원	39.0	21.5	9.7	15.5	10.5	45.7	20.5
설계사	18.4	20.0	16.8	15.8	17.8	15.2	16.4
대리점	5.3	6.2	5.8	6.7	6.9	6.2	6.3
중개사	0.0	0.1	0.1	0.1	0.1	0.0	0.1
방카슈랑스	37.0	52.0	67.4	61.7	64.4	32.7	56.6
기타	0.2	0.3	0.2	0.2	0.2	0.2	0.2
합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2,221	183,187	48,449	33,877	32,311	40,065	154,701

주: 1)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2) 현재 온라인 채널 초회보험료 비중은 이용 가능한 자료가 없어 제시하지 못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9) 판매채널은 크게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로 구분되며, 최근 온라인 채널 등 새로운 채널도 등장하였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 10〉과 같이 판매채널을 구분하여 초회보험료(1회 납입보험료) 비중을 제시함.

〈모집조직〉

■ 2016년 4/4분기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경우 임직원 수와 전속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으나 대리점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265명 감소한 2만 6,890명임.
- 전속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2,191명 감소한 11만 1,813명을 나타냈으며, 교차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1,363명 증가한 1만 2,764명을 기록함.
- 전체 대리점 수는 전분기대비 58개 증가한 6,324개임.
 - 개인대리점 수는 3,413개로 전분기대비 88개 증가하였으나, 법인대리점 수는 2,911개로 30개 감소함.

〈표 11〉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2015	2016			
	4/4	1/4	2/4	3/4	4/4
임직원(명)	27,312	27,340	27,105	27,155	26,890
설계사(명)					
- 전속설계사	117,311	116,898	114,998	114,004	111,813
- 교차설계사	9,906	10,308	10,015	11,401	12,764
대리점(개)	6,010	6,107	6,119	6,266	6,324
- 개인	3,054	3,139	3,176	3,325	3,413
- 법인	2,956	2,968	2,943	2,941	2,911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재무성과

〈자산〉

- 2016년 4/4분기 말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0.9% 증가한 782조 1,621억 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 자산은 종신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1.0% 증가한 반면, 특별계정 자산은 전분기대비 0.1% 감소함.
- 2016년 말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782조 1,621억 원으로 2015년 말 대비 7.9% 증가함.

〈표 12〉 생명보험산업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자산	금액	724.9	724.9	742.0	761.0	775.5	782.2	782.2
	증가율	2.5	9.5	2.4	2.6	1.9	0.9	7.9
일반계정 자산	금액	601.1	601.1	613.2	631.0	643.0	649.7	649.7
	증가율	2.5	9.2	2.0	2.9	1.9	1.0	8.1
특별계정 자산	금액	123.8	123.8	128.8	130.0	132.5	132.4	132.4
	증가율	2.6	10.8	4.1	0.9	2.0	-0.1	7.0

주: 1) 분기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연간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일부 수치가 반올림으로 인해 동일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증가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부채 · 자본〉

- 2016년 4/4분기 말 생명보험산업 총부채는 전분기대비 2.2% 증가한 716조 3,698억 원이며, 총자본은 전분기대비 11.7% 감소한 65조 7,922억 원임.
- 총부채 가운데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 부채는 관련 상품의 수입보험료 증가로 인해 각각 전분기대비 2.0%, 4.1% 증가함.
- 총자본 가운데 특히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채권평가손실 확대로 전분기대비 25.0% 감소함.
- 2016년 말 생명보험산업 총부채는 전년대비 8.4%, 총자본은 전년대비 2.8% 증가함.

〈표 13〉 생명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¹⁾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자산	금액	724.9	724.9	742.0	761.0	775.5	782.2	782.2
	증가율	2.5	9.5	2.4	2.6	1.9	0.9	7.9
총부채	금액	660.9	660.9	675.0	689.2	701.0	716.4	716.4
	증가율	2.8	9.6	2.1	2.1	1.7	2.2	8.4
책임준비금	금액	505.7	505.7	517.4	527.5	537.5	548.2	548.2
	증가율	2.5	9.5	2.3	2.0	1.9	2.0	8.4
계약자 지분조정	금액	9.5	9.5	10.4	11.8	12.4	10.1	10.1
	증가율	1.8	4.4	10.3	12.7	5.4	-18.4	6.9
기타부채	금액	17.8	17.8	17.8	18.6	18.1	19.5	19.5
	증가율	-4.9	17.1	0.0	4.6	-2.8	8.1	9.9
특별계정부채	금액	127.9	127.9	129.5	131.3	133.1	138.6	138.6
	증가율	5.1	9.5	1.2	1.4	1.3	4.1	8.3
총자본	금액	64.0	64.0	67.0	71.8	74.5	65.8	65.8
	증가율	0.1	8.2	4.7	7.1	3.8	-11.7	2.8
자본금	금액	10.4	10.4	10.4	10.4	10.4	10.4	10.4
	증가율 ²⁾	2.6	6.2	0.0	0.0	0.0	0.1	0.2
자본잉여금	금액	6.0	6.0	6.0	6.0	6.0	6.1	6.1
	증가율	0.5	2.6	0.0	0.0	0.4	0.8	1.2
이익잉여금	금액	27.9	27.9	28.2	29.1	30.2	29.2	29.2
	증가율	-0.6	9.7	1.2	3.2	3.7	-3.4	4.7
자본조정	금액	-2.6	-2.6	-3.1	-3.1	-3.1	-3.1	-3.1
	증가율	64.9	73.1	21.1	0.0	0.0	0.0	21.1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금액	22.3	22.3	25.5	29.4	31.0	23.3	23.3
	증가율	4.6	14.0	14.3	15.1	5.5	-25.0	4.1

주: 1) 분기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연간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일부 수치가 반올림으로 인해 동일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증가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총수익 · 총비용〉

- 2016년 4/4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의 경우 보험영업 적자규모 확대와 투자영업이익 감소로 9,28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함.
 - 보험영업 적자규모¹⁰⁾는 보험금 지급 증가율이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8,816억 원 증가한 7조 1,952억 원을 나타냄.
 - 투자영업이익은 육류담보대출 사고에 따른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2,423억 원 감소한 4조 9,310억 원을 기록함.
 - 영업외이익은 특별계정수수료 수입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726억 원 증가한 1조 1,233억 원임.
- 2016년 연간 당기순이익(B)은 전년대비 31.5% 감소한 2조 4,608억 원을 기록함.
 - 이는 지급보험금 증가로 인한 보험영업 적자규모 확대와 육류담보대출 사고 충당금 등으로 인한 투자영업이익 감소에 기인함.

10) 책임준비금전입액을 감안한 수치임.

〈표 14〉 생명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1),2)}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수익	보험영업	21,693	84,205	22,554	21,081	21,099	20,470	85,204
	투자영업	5,593	27,830	7,994	5,866	9,581	5,884	29,325
	영업외	1,279	4,630	1,236	1,219	1,231	1,273	4,960
	소계	28,565	116,665	31,784	28,167	31,911	27,627	119,489
총비용	보험영업 ³⁾	28,006	105,129	27,755	26,103	26,069	27,665	107,592
	투자영업	420	6,415	2,234	597	4,166	953	7,949
	영업외	229	758	174	239	257	150	820
	소계	28,655	112,303	30,163	26,939	30,492	28,768	116,362
수지차	보험영업	-6,314	-20,924	-5,201	-5,022	-4,971	-7,195	-22,389
	투자영업	5,173	21,415	5,760	5,269	5,416	4,931	21,376
	영업외	1,051	3,872	1,062	980	974	1,123	4,110
	소계	-90	4,362	1,621	1,228	1,419	-1,140	3,127
법인세		5	770	294	258	327	-212	667
당기순이익(A) ⁴⁾		- 95 (-160.7)	3,592 (11.0)	1,327 (3.6)	970 (-36.1)	1,093 (23.1)	-929 (881.4)	2,461 (-31.5)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B) ⁵⁾		3,592 (11.0)	3,592 (11.0)	5,308 (3.6)	4,594 (-17.9)	4,520 (-8.0)	2,461 (-31.5)	2,461 (-31.5)

주: 1)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2)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3) 책임준비금전입액을 감안한 수치이고, 책임준비금전입액은 책임준비금(부채)에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반대의 경우 책임준비금환입액)을 의미하며, 손익계산서의 보험영업비용(반대의 경우 수익) 항목임.

4) 당기순이익 = 총수익 - 총비용 - 책임준비금전입액 - 법인세

5)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 환산한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자산운용〉

■ 2016년 4/4분기 생명보험산업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29%p 하락한 3.5%를 기록함.

○ 운용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37%p 하락한 3.69%임.

- 특히, 매도가능증권 이익률과 대출채권 이익률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0.26%p, 0.71%p 하락한 3.41%, 4.66%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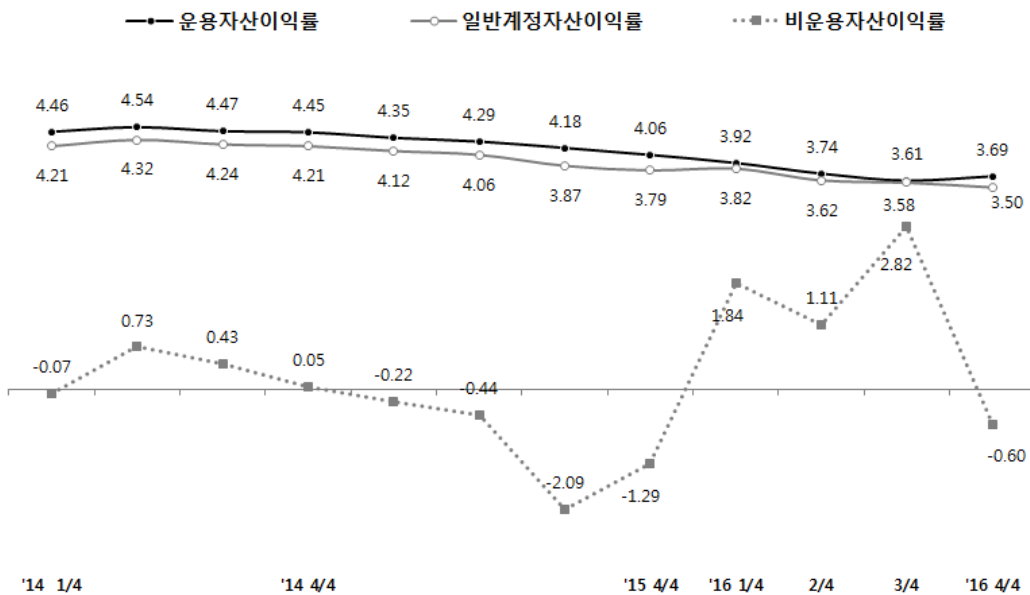
- 부동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76%p 상승한 5.46%를 나타냄.
- 비운용자산 이익률¹¹⁾은 전년동기대비 0.69%p 상승하였으나 -0.60%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벗어나지 못함.

■ 2016년 4/4분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의 경우 유가증권이 73.1%, 대출채권이 18.1%, 부동산이 2.2%, 현금과 예금이 2.3%를 차지하였으며, 비운용자산 비중은 4.2%를 나타냄.¹²⁾

- 유가증권 비중과 대출채권 비중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4%p씩 확대됐지만, 현금과 예금, 그리고 부동산 비중은 각각 0.3%p씩 축소됨.

〈그림 2〉 자산운용 이익률 추이^{1),2),3)}

(단위: %)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 기준 환산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분기별 누적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1) 비운용자산 중 파생상품자산, 보증금, 미수수익 등에서 수익이 나와 이익률이 집계됨.

12) 일반계정 자산은 크게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 비중은 전체 일반계정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 15〉 생명보험 일반계정자산 포트폴리오 및 이익률¹⁾

(단위: %, 억 원)

구분	2015		2016							
	4/4		1/4		2/4		3/4		4/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3.79	100.0	3.82	100.0	3.62	100.0	3.58	100.0	3.50
운용자산 계	95.4	4.06	95.3	3.92	95.6	3.74	95.3	3.61	95.8	3.69
현금과 예금	2.6	3.39	2.2	1.93	2.1	2.40	1.8	2.16	2.3	2.23
유가증권	72.7	3.73	73.2	3.68	73.7	3.47	73.6	3.24	73.1	3.44
○ 당기손익인식증권 ²⁾	2.2	2.03	2.1	2.21	2.2	1.87	2.1	1.72	1.7	2.25
- 주식	0.1	0.47	0.1	1.47	0.1	-0.47	0.1	6.34	0.1	5.50
- 채권 등	0.6	2.47	0.7	3.44	0.6	3.34	0.5	2.16	0.6	2.10
- 수익증권	1.5	1.93	1.4	1.69	1.5	1.40	1.5	1.28	1.0	1.38
○ 매도가능증권	52.4	3.67	52.5	3.68	52.7	3.47	53.2	3.16	51.7	3.41
- 주식	3.3	1.89	3.4	6.72	3.4	3.47	3.7	2.27	3.9	2.12
- 채권 등	45.5	3.78	45.5	3.48	45.7	3.44	45.9	3.21	44.0	3.50
- 수익증권	3.6	4.15	3.6	3.43	3.6	3.87	3.7	3.44	3.7	3.57
○ 만기보유증권	16.6	4.36	16.9	3.75	17.2	3.74	16.9	3.77	18.2	3.76
- 채권 등	16.6	4.36	16.9	3.75	17.2	3.74	16.9	3.77	18.2	3.76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	0.0	-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5	2.19	1.7	4.66	1.6	2.73	1.5	2.38	1.5	2.51
대출채권	17.7	5.42	17.5	5.07	17.5	5.00	17.6	4.98	18.1	4.66
부동산	2.5	4.70	2.4	4.84	2.3	3.84	2.2	6.37	2.2	5.46
비운용자산 계	4.6	-1.29	4.7	1.84	4.4	1.11	4.7	2.82	4.2	-0.60
일반계정자산 규모	6,011,311		6,132,374		6,309,910		6,430,240		6,497,345	
일반계정자산 비중	(82.9)		(82.6)		(82.9)		(82.9)		(83.1)	
총자산 규모	7,249,013		7,420,247		7,609,584		7,755,316		7,821,621	

주: 1)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 기준 환산

2) FY2011 1/4분기 이후 당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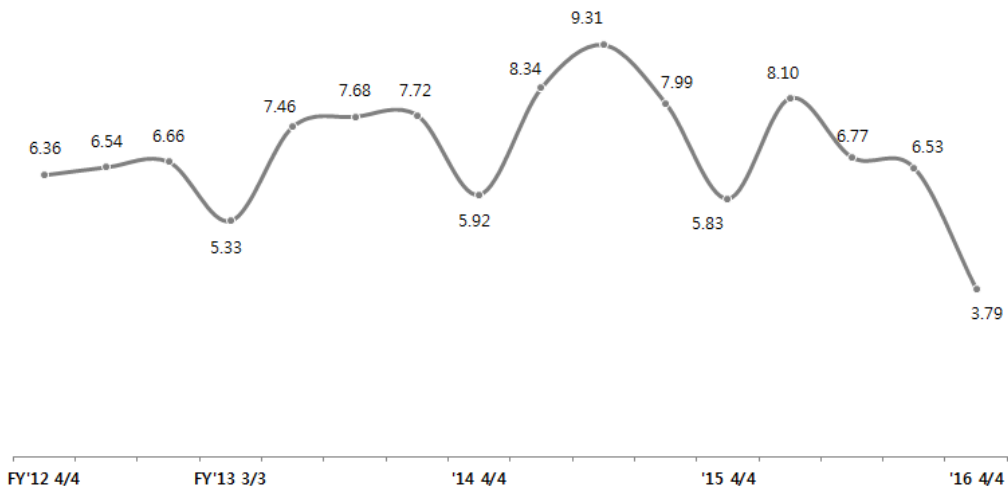
〈자본이익률(ROE)¹³⁾〉

■ 2016년 4/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누적 당기순이익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2.04%p 하락한 3.79%를 기록함.

○ 회사 그룹별¹⁴⁾ 자본이익률의 경우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의 자본이익률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2.24%p, 2.14%p, 1.05%p 하락한 3.49%, 4.32%, 4.12%를 기록함.

〈그림 3〉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추이

(단위: %)



주: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3)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누적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25개 생명보험회사임.

14) 2015년 회계연도부터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로 분류되었던 회사 분류를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로 분류하여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거 통계치도 동일한 분류에 따라 수정함.

〈표 16〉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5	2016			
	4/4	1/4	2/4	3/4	4/4
대형사	5.73	7.47	6.31	6.21	3.49
중·소형사	6.46	6.31	5.60	5.23	4.32
외국사	5.17	13.47	10.46	9.87	4.12
전체	5.83	8.10	6.77	6.53	3.79

주: 1)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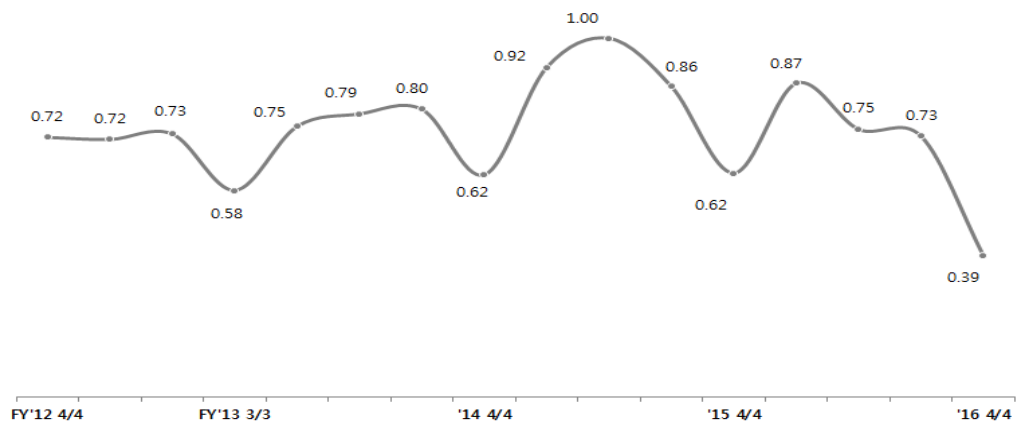
〈자산이익률(ROA)¹⁵⁾〉

■ 2016년 4/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27%p 하락한 0.39%를 기록함.

○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자산이익률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27%p, 0.19%p, 0.18%p 하락한 0.39%, 0.35%, 0.50%를 나타냄.

〈그림 4〉 생명보험산업 자산이익률 추이

(단위: %)



주: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5)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산이익률은 기중자산(특별계정자산 제외)대비 누적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25개 생명보험회사임.

〈표 17〉 생명보험산업 자산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5	2016			
	4/4	1/4	2/4	3/4	4/4
대형사	0.66	0.87	0.75	0.75	0.39
중·소형사	0.54	0.54	0.48	0.46	0.35
외국사	0.68	1.72	1.36	1.29	0.50
전체	0.62	0.87	0.75	0.73	0.39

주: 1) 자산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산, 기중자산(특별계정자산 제외) = [(전회계연도 말 자산 + 당기 말 자산)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원수보험료〉

- 2016년 4/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한 24조 5,126억 원을 시현함.
- 장기손해보험은 저축성보험의 감소세에도 상해 및 질병보험의 견조한 성장세 유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한 12조 725억 원을 기록함.
 - 연금부문은 개인연금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이 크게 증가하여 21.7% 증가한 6조 923억 원을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해상보험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에 그친 2조 1,327억 원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I 보험료의 전년동기대비 감소와 종합보험 증가율 둔화로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한 4조 2,151억 원을 기록함.
 - 2016년 연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연금부문과 자동차보험의 증가로 전년대비 5.3% 증가한 84조 4,972억 원임.

〈표 18〉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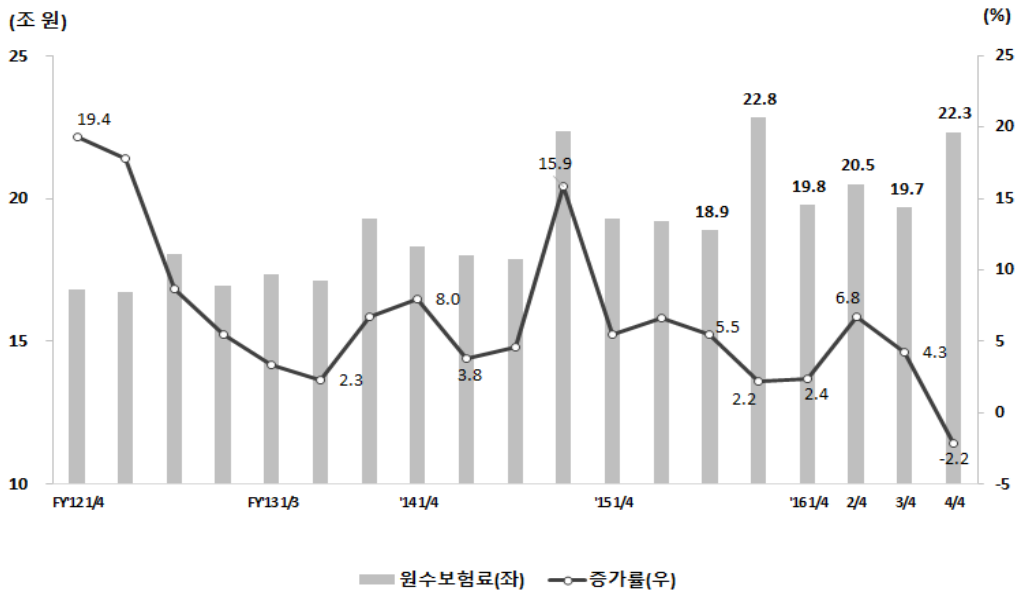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장기손해보험	11.7 (4.2)	46.6 (4.9)	11.8 (1.2)	11.9 (2.9)	12.0 (3.1)	12.1 (3.1)	47.8 (2.6)
연금부문	5.0 (-8.5)	10.4 (-0.9)	1.9 (-6.5)	2.2 (24.7)	1.6 (2.0)	6.1 (21.7)	11.8 (13.8)
자동차보험	4.0 (13.7)	15.0 (10.7)	3.9 (11.6)	4.1 (11.1)	4.1 (10.1)	4.2 (5.4)	16.4 (9.4)
일반손해보험	2.1 (-0.2)	8.3 (1.8)	2.2 (2.2)	2.3 (5.3)	2.0 (1.7)	2.1 (1.1)	8.5 (2.6)
전체	22.8 (2.2)	80.2 (4.8)	19.8 (2.4)	20.5 (6.8)	19.7 (4.3)	24.5 (7.4)	84.5 (5.3)

주: 1)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연금부문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으로 구성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016년 3/4분기부터 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된 한국해양보증보험(주) 실적 포함.

〈그림 5〉 원수보험료 추이



1) 장기손해보험

- 2016년 4/4분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질병보험, 운전자보험 등의 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한 12조 725억 원을 시현함.
- 장기저축성보험은 저금리로 인한 공시이율 하락¹⁶⁾과 보험회사의 판매부담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0.6% 감소함.
-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각각 8.8%, 11.4%의 증가율을 기록함.
- 장기운전자보험과 장기재물보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각각 11.5%, 5.1% 증가함.
- 통합형보험도 2/4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함.
- 2016년 연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2.6% 증가에 그친 47조 7,727억 원을 기록함.
- 이는 비중이 큰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장기저축성보험의 감소세가 심화되었기 때문임.

16) 보험개발원, 공시기준이율: 2013년(3.78%), 2014년(3.57%), 2015년(2.81%), 2016년(1월: 2.6%, 3월: 2.5%, 7월: 2.4%, 9월: 2.3%, 12월: 2.3%).

■ 2016년 4/4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19.6% 감소한 3,708억 원을 기록함.

- 비중이 가장 큰 장기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3.6% 감소함.
 - 장기저축성보험의 감소세는 2015년 1/4분기 이후 지속됨.
-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각각 18.6%, 6.3% 감소함.
 - 장기상해보험 초회보험료는 2016년 3/4분기에 이어 감소세를 보임.
 - 장기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2/4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지속함.
- 2016년 연간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대비 26.5% 감소한 1조 5,867억 원을 기록함.
 - 이는 장기저축성보험이 40.6% 감소하고 장기상해보험도 9.6% 감소하였기 때문임.

〈표 19〉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원수 보험료	상해	34,587 (11.8)	132,555 (12.0)	35,418 (11.1)	36,218 (11.0)	36,597 (9.5)	37,641 (8.8)	145,874 (10.0)
	운전자	7,247 (6.8)	28,327 (8.0)	7,390 (6.8)	7,572 (7.9)	7,721 (8.1)	8,084 (11.5)	30,767 (8.6)
	재물	10,161 (7.0)	39,808 (6.2)	10,198 (5.2)	10,375 (4.5)	10,551 (5.2)	10,679 (5.1)	41,803 (5.0)
	질병	29,201 (16.5)	110,607 (16.6)	30,253 (16.1)	30,890 (13.7)	31,978 (13.5)	32,543 (11.4)	125,663 (13.6)
	저축성	23,533 (-15.1)	104,650 (-11.0)	22,239 (-24.6)	21,152 (-19.7)	20,415 (-19.2)	18,682 (-20.6)	82,488 (-21.2)
	통합형	12,402 (0.3)	49,808 (1.0)	12,364 (-0.4)	12,741 (1.8)	12,910 (3.4)	13,090 (5.5)	51,105 (2.6)
	자산연계형	8 (-77.9)	46 (-70.4)	7 (-67.4)	7 (-12.4)	7 (-15.4)	7 (-12.0)	28 (-39.5)
	소계	117,140 (4.2)	465,801 (4.9)	117,868 (1.2)	118,954 (2.9)	120,179 (3.1)	120,725 (3.1)	477,727 (2.6)
초회 보험료	상해	771 (6.5)	2,637 (1.8)	610 (-10.7)	582 (6.3)	564 (-11.1)	628 (-18.6)	2,384 (-9.6)
	운전자	135 (-12.5)	570 (-1.5)	179 (33.5)	175 (28.1)	168 (2.3)	273 (101.6)	795 (39.4)
	재물	292 (6.8)	1,185 (17.6)	299 (-6.0)	333 (8.2)	335 (25.0)	325 (11.2)	1,291 (8.9)
	질병	649 (5.1)	2,469 (6.5)	733 (20.7)	544 (-7.3)	615 (-1.8)	608 (-6.3)	2,499 (1.2)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저축성	2,757 (-28.8)	14,657 (-20.3)	2,145 (-56.1)	2,212 (-36.3)	2,521 (-28.9)	1,832 (-33.6)	8,710 (-40.6)
	통합형	9 (-88.3)	68 (-75.3)	6 (-81.4)	80 (366.3)	61 (392.5)	43 (394.3)	189 (178.2)
	자산연계형	0 (-)	0 (-)	0 (-)	0 (-)	0 (-)	0 (-)	0 (-)
	소계	4,612 (-19.3)	21,585 (-14.2)	3,971 (-40.3)	3,925 (-22.6)	4,264 (-18.8)	3,708 (-19.6)	15,867 (-26.5)
계속 보험료	상해	33,816 (11.9)	129,919 (12.2)	34,808 (11.5)	35,636 (11.0)	36,033 (9.9)	37,013 (9.5)	143,490 (10.4)
	운전자	7,112 (7.2)	27,757 (8.2)	7,211 (6.3)	7,397 (7.5)	7,553 (8.3)	7,811 (9.8)	29,973 (8.0)
	재물	9,869 (7.0)	38,623 (5.9)	9,899 (5.6)	10,042 (4.4)	10,217 (4.7)	10,354 (4.9)	40,512 (4.9)
	질병	28,553 (16.8)	108,138 (16.8)	29,520 (16.0)	30,346 (14.1)	31,362 (13.8)	31,935 (11.8)	123,163 (13.9)
	저축성	20,776 (-12.9)	89,993 (-9.3)	20,094 (-18.4)	18,940 (-17.2)	17,894 (-17.6)	16,850 (-18.9)	73,778 (-18.0)
	통합형	12,394 (0.8)	49,740 (1.4)	12,359 (-0.2)	12,661 (1.3)	12,850 (3.0)	13,047 (5.3)	50,916 (2.4)
	자산연계형	8 (-77.9)	46 (-70.4)	7 (-67.4)	7 (-12.4)	7 (-15.4)	7 (-12.0)	28 (-39.5)
	소계	112,528 (5.5)	444,215 (6.0)	113,898 (3.7)	115,029 (4.0)	115,916 (4.1)	117,018 (4.0)	461,860 (4.0)

주: 1)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초회보험료는 1회 납입보험료를 의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4/4분기 장기손해보험 누적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10.2%를 기록함.

○ 장기상해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0.7%p 하락한 10.0%를 기록함.

-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2.2% 증가하였으나,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도 9.6% 증가하였기 때문임.

○ 장기저축성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0.3%p 감소한 8.7%를 기록함.

-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의 감소폭(13.3%)이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 감소폭(10.4%)보다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임.

○ 장기운전자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1.7%p 상승한 11.7%를 기록함.

-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 증가폭(20.8%)이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 증가폭(3.2%)보다

졌기 때문임.

○ 장기재물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한 12.9%를 기록함.

-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19.1% 증가하였으나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도 21.3% 증가하였기 때문임.

○ 장기질병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0.4%p 증가한 9.0%를 기록함.

- 전년동기대비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은 14.9% 증가한 반면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은 10.7% 증가에 그쳤기 때문임.

〈표 20〉 장기손해보험 해지율

(단위: %)

구분	2015	2016			
	4/4	1/4	2/4	3/4	4/4
상해	10.7	2.9	5.2	7.6	10.0
운전자	10.0	3.5	6.5	9.2	11.7
재물	13.1	4.1	7.5	10.5	12.9
질병	8.6	2.5	4.7	6.9	9.0
저축성	9.0	2.4	4.5	6.5	8.7
통합형	7.2	1.6	2.9	4.1	5.7
계	10.3	3.0	5.4	7.9	10.2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보유계약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연금부문

■ 2016년 4/4분기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1.7% 증가한 6조 923억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은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한 9,676억 원을 기록하며 감소세가 지속됨.

○ 퇴직연금은 전년동기대비 28.4% 증가한 5조 1,247억 원을 기록함.

○ 2016년 연간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이 3.6% 감소한 반면 퇴직연금이 24.7%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3.7% 증가한 11조 8,160억 원을 시현함.

〈표 21〉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1),2)}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개인 연금	보험료	10,137	40,211	9,796	9,696	9,599	9,676	38,768
	증가율	-1.5	-2.1	-2.7	-3.2	-4.0	-4.5	-3.6
	구성비	20.3	38.7	51.5	6.9	60.2	24.7	40.2
퇴직 연금 ³⁾	보험료	39,918	63,668	9,227	12,571	6,347	51,247	79,392
	증가율	-10.1	-0.1	-10.2	60.3	12.6	28.4	24.7
	구성비	79.7	61.3	48.5	8.9	39.8	84.1	67.2
합계	보험료	50,055	103,879	19,023	22,267	15,946	60,923	118,160
	증가율	-8.5	-0.9	-6.5	24.7	2.0	21.7	13.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3)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동차보험

■ 2016년 4/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대물보험료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자차보험료가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에 그친 4조 2,151억 원을 기록함.

○ 대인배상 I 은 전년동기대비 4.0% 감소한 7,288억 원을 기록함.

- 대인배상 I 보상기준을 상향한 지배법 시행령 개정¹⁷⁾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 효과가 단기에 그친 것으로 보임.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한 3조 2,851억 원을 기록함.

- 대인배상 II와 대물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29.9%, 10.8% 성장하였으나, 자차보험료가 5.5% 감소하면서 종합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둔화됨.

○ 2016년 연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상반기 지배법 시행령 시행, 요율 인상으로 전년대비 9.4% 증가한 16조 4,053억 원을 시현함.

17)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2016. 4. 1 시행)”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시 보상한도를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인상하고, 재산 피해 발생 시 보상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상함.

〈표 22〉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인 I		7,589 (-2.7)	29,855 (-4.2)	7,296 (-2.7)	7,527 (0.3)	7,282 (0.2)	7,288 (-4.0)	29,394 (-1.5)
종합 보험	대인 II	4,538 (25.6)	16,292 (19.1)	4,495 (23.8)	4,991 (24.8)	5,328 (29.2)	5,894 (29.9)	20,708 (27.1)
	대물	14,423 (16.2)	52,966 (13.0)	14,359 (16.6)	15,362 (18.1)	15,459 (17.0)	15,988 (10.8)	61,167 (15.5)
	자차	9,648 (21.0)	36,261 (17.5)	9,574 (12.9)	9,533 (5.2)	9,142 (0.8)	9,116 (-5.5)	37,366 (3.0)
	자손	1,583 (12.5)	5,877 (12.0)	1,487 (7.5)	1,542 (6.6)	1,533 (4.8)	1,572 (-0.7)	6,135 (4.4)
	무보험	273 (16.3)	1,007 (10.4)	260 (12.5)	284 (13.6)	278 (9.9)	280 (2.7)	1,102 (9.5)
	소계	30,466 (18.8)	112,402 (15.2)	30,175 (15.9)	31,711 (14.2)	31,740 (12.8)	32,851 (7.8)	126,477 (12.5)
외화표시		2 (-96.2)	99 (-13.5)	1 (-97.8)	0 (-99.1)	0 (-100.0)	0 (-100.0)	1 (-98.9)
기타		1,937 (13.9)	7,558 (13.7)	1,910 (10.2)	2,148 (9.5)	2,110 (9.5)	2,012 (3.9)	8,181 (8.2)
합계		39,992 (13.7)	149,914 (10.7)	39,382 (11.6)	41,387 (11.1)	41,133 (10.1)	42,151 (5.4)	164,053 (9.4)

주: 1)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구분란의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이륜자동차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원수보험료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4/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4.4%p 하락한 87.8%를 나타냄.

○ 대인배상 I 손해율은 6.7%p 상승한 92.0%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발 생 손해액이 7.2% 증가한 반면 경과보험료¹⁸⁾는 0.6% 감소하였기 때문임.

18)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책임기간인 보험연도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연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일부는 당해 사업연도로 귀속되고 나머지는 차기 사업연도로 이월됨. 여기서 이미 경과된 기간(보험회사의 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경과보험료(earned premium)라고 함.

- 종합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8.5%p 개선된 86.6%를 나타냈는데, 이는 발생손해액이 3.4% 증가하였으나 경과보험료가 13.5%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대인배상Ⅱ 손해율의 경우 5.8%p 하락한 142.2%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발생손해액이 19.6% 증가하였으나 경과보험료도 24.4%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2016년 연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대비 4.7%p 개선된 83.0%를 시현함.
 - 이는 경과보험료가 전년대비 10.9% 증가한 반면 발생손해액은 4.9%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표 23〉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

(단위: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인 I		85.3	73.7	68.7	74.9	77.3	92.0	78.3
종합보험	대인 II	148.0	142.7	134.2	141.1	128.8	142.2	136.6
	대물	93.9	90.0	82.6	85.4	77.0	79.0	80.9
	자차	78.0	78.5	73.8	66.6	64.6	74.7	69.9
	자손	66.2	65.0	59.7	63.3	56.2	63.8	60.7
	무보험	84.0	88.0	72.9	81.0	38.0	28.8	53.7
	소계	95.1	92.5	86.0	86.4	79.7	86.6	84.7
외화표시		93.4	76.9	62.7	55.9	136.9	-3389.1	73.0
기타		83.6	77.5	77.6	70.0	78.4	81.4	76.9
합계		92.2	87.7	82.2	82.1	79.8	87.8	83.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율이며,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임.

2) 구분란의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이륜자동차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일반손해보험

- 2016년 4/4분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해상보험과 해외원보험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1% 증가에 그친 2조 1,327억 원을 기록함.
 - 화재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1% 감소한 865억 원을, 해상보험은 조선·해운업계 불황의 지속으로 14.5% 감소한 1,328억 원을 기록함.
 - 보증보험의 경우 전분기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1.7% 증가한 4,221억 원을 기록함.

○ 특종보험은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한 1조 3,736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비중이 가장 큰 상해보험(3.6%)을 비롯해 책임보험이 비교적 고성장(8.7%)¹⁹⁾하였기 때문이다.

- 기타특종보험과 종합보험 증가율도 각각 15.4%, 1.5% 상승하였으나, 비중이 작은 기술보험은 14.3%²⁰⁾ 감소하였음.

○ 2016년 연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8조 5,032억 원임.

〈표 24〉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재	보험료	893	3,041	720	733	693	865	3,011
	증가율	-1.3	-2.1	-1.2	-0.5	1.4	-3.1	-1.0
	구성비	4.2	3.7	3.3	3.3	3.5	4.1	3.5
해상	보험료	1,554	7,091	1,506	1,678	1,567	1,328	6,080
	증가율	-15.1	-3.4	-19.9	-8.7	-13.9	-14.5	-14.3
	구성비	7.4	8.6	7.0	7.4	8.0	6.2	7.2
보증	보험료	4,150	15,816	3,884	4,017	3,787	4,221	15,909
	증가율	2.5	4.4	-0.4	-0.9	2.0	1.7	0.6
	구성비	19.7	19.1	18.0	17.8	19.3	19.8	18.7
특종	보험료	13,088	51,622	14,102	14,785	12,053	13,736	54,677
	증가율	2.3	3.3	5.7	8.3	4.5	5.0	5.9
	구성비	62.0	62.3	65.5	65.6	61.4	64.4	64.3
해외 원보험	보험료	1,413	5,309	1,318	1,329	1,531	1,176	5,355
	증가율	-9.3	-9.0	8.3	18.5	-1.7	-16.7	0.9
	구성비	6.7	6.4	6.1	5.9	7.8	5.5	6.3
합계	보험료	21,098	82,879	21,530	22,543	19,632	21,327	85,032
	증가율	-0.2	1.8	2.2	5.3	1.7	1.1	2.6

주: 1)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9) 특종보험에는 기술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기타특종보험 등이 포함되며, 4/4분기 상해보험은 4,307억 원, 책임보험은 2,120억 원임.

20) 4/4분기 원수보험료는 기타특종보험 2,755억 원, 종합보험 3,661억 원, 기술보험 769억 원임.

〈시장점유율〉

■ 2016년 4/4분기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국내 중·소형사의 비중만 상승하고 나머지 그룹은 모두 하락하였음.

- 상위 4사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1.1%p 하락한 68.5%를 기록함.
- 국내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1.3%p 상승한 28.1%를 차지한 반면 전업사와 외국사는 각각 0.1%p, 0.1%p 하락한 1.7%의 시장점유율을 모두 기록함.
- 2016년 연간 기준으로 국내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만 상승하였으며, 나머지 그룹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음.

■ 허핀달 지수는 전분기대비 6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전년동기에 비해서도 24포인트 하락한 1,386을 기록함.

- 2016년 연간 기준으로 전년대비 5포인트 하락한 1,390을 기록함.

〈표 25〉 손해보험산업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¹⁾

(단위: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상위 4사 ²⁾	69.6	68.9	69.0	69.1	68.2	68.5	68.7
국내 중·소형사 ²⁾	26.8	27.1	26.9	26.9	27.6	28.1	27.4
전업사 ³⁾	1.8	2.0	1.9	2.0	1.9	1.7	1.9
외국사 ³⁾	1.8	2.1	2.1	2.1	2.2	1.7	2.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허핀달 지수 ⁴⁾	1,410	1,395	1,417	1,415	1,392	1,386	1,390

주: 1)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을 의미하며,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2) 상위 4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회사, 국내 중·소형사는 국내 온라인사를 포함한 8개 회사를 의미함.

3) 전업사는 보증보험사, 국내·외 재보험사 및 외국계 단종보험회사이며, 2016년 3/4분기부터 (주)한국해양보증을 포함함.

4) 허핀달 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 제곱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지수가 1,800 이상인 경우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손해율과 사업비율

■ 2016년 4/4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0.9%p 상승한 83.8%를 기록하였고, 종목별로는 일반손해보험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은 개선됨.

-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0.7%p 하락한 83.8%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의 경우 발생손해액이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하였으나 경과보험료가 11.8% 증가하면서, 손해율은 4.4%p 개선된 87.8%를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18.8%p 상승한 77.0%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비중이 가장 큰 특종보험의 손해율이 3.1%p 상승²¹⁾하고 보증보험 손해율도 11.8%p 상승²²⁾하는 등 모든 종목의 손해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임.
- 2016년 연간손해보험 손해율은 전년대비 1.4% 하락한 81.7%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비중이 가장 큰 장기손해보험이 0.5%p 하락하고 자동차보험도 4.7% 하락한데 기인함.

〈표 26〉 손해보험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¹⁾

(단위: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 해 율	장기손해보험 ²⁾	84.5	84.8	85.2	84.1	83.9	83.8	84.3
	자동차보험	92.2	87.7	82.2	82.1	79.8	87.8	83.0
	일반손해보험	58.2	65.9	59.0	64.4	58.0	77.0	64.9
	화재보험	32.3	49.8	59.9	51.9	43.5	70.5	56.5
	해상보험	69.8	73.1	64.7	35.5	42.8	168.3	73.2
	보증보험	26.9	52.9	26.9	47.5	53.6	38.7	41.9
	특종보험	65.5	67.0	66.2	70.1	64.2	68.6	67.3
	해외원보험	15.5	114.7	75.4	85.8	105.8	171.1	108.7
	해외수재보험	72.7	65.7	61.7	66.0	39.6	110.1	69.4
	전체	82.9	83.1	81.6	81.3	79.9	83.8	81.7
사업비율		20.6	19.5	19.4	19.2	19.6	20.7	19.7
합산비율		103.4	102.7	101.0	100.5	99.5	104.5	101.4

주: 1) 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그리고 합산비율(손해율 + 사업비율)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여기서 순사업비는 지급경비(급여와 임금, 손해조사비, 모집비, 수급비 등)에서 수입경비(출재보험 수수료, 출재이익의 수수료 등)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2)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을 고려한 재무손해율임.

3)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을 일부 제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1) 경과보험료 9.4% 증가, 발생손해액 14.6% 증가.

22) 경과보험료 6.2% 증가, 발생손해액 52.9% 증가.

- 2016년 4/4분기 전체 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한 20.7%임.
 -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6%p 상승한 20.7%를 기록한 반면, 자동차 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9%p, 0.9%p 감소한 18.3%, 24.8%를 기록함.
 - 2016년 연간 사업비율은 0.2%p 상승한 19.7%를 나타냈는데, 이는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이 0.8%p 상승한데 기인함.
- 2016년 4/4분기 합산비율은 전년동기대비 1.1%p 상승한 104.5%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합산비율은 각각 104.5%, 106.1%, 101.8%를 기록함.
 - 2016년 연간 합산비율은 전년대비 1.3%p 하락한 101.4%를 나타냈으며, 종목별로는 장기손해 보험 합산비율이 0.3%p 상승하였으나,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합산비율은 각각 5.6%p, 2.6%p 하락함.

다. 판매채널

〈판매채널별 보험료 비중²³⁾〉

- 2016년 4/4분기 임직원, 중개사 채널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하락함.
 - 임직원, 중개사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6%p, 0.1%p 확대된 29.4%, 0.9%를 기록함.
 -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9%p, 0.3%p, 1.6%p 축소된 22.3%, 39.4%, 7.6%를 기록함.
 - 2016년 연간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은 대리점(43.3%), 설계사(26.1%), 임직원(19.8%), 방카슈랑스(9.6%), 중개사(1.0%) 순으로 나타남.

23) 판매채널은 크게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로 구분되며, 최근 온라인 채널 등 새로운 채널도 등장하였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 27>과 같이 판매채널을 구분하여 원수보험료 비중을 제시함.

〈표 27〉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규모와 비중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임직원	58,880 (25.8)	144,615 (18.0)	30,546 (15.4)	35,605 (17.4)	28,986 (14.7)	71,997 (29.4)	167,134 (19.8)
설계사	55,187 (24.2)	217,618 (27.1)	54,872 (27.7)	55,529 (27.1)	55,220 (28.0)	54,582 (22.3)	220,203 (26.1)
대리점	90,725 (39.7)	341,381 (42.5)	88,532 (44.8)	89,752 (43.7)	90,519 (46.0)	96,694 (39.4)	365,498 (43.3)
중개사	1,828 (0.8)	6,591 (0.8)	1,690 (0.9)	2,273 (1.1)	1,842 (0.9)	2,241 (0.9)	8,047 (1.0)
방카슈랑스	20,897 (9.2)	90,189 (11.2)	21,608 (10.9)	21,101 (10.3)	19,442 (9.9)	18,727 (7.6)	80,878 (9.6)
공동인수	773 (0.3)	2,095 (0.3)	561 (0.3)	895 (0.4)	885 (0.4)	890 (0.4)	3,231 (0.4)
전체	228,291 (100.0)	802,489 (100.0)	197,809 (100.0)	205,157 (100.0)	196,894 (100.0)	245,131 (100.0)	844,991 (100.0)

주: 1)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하는 분기기준 원수보험료 실적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2016년 4/4분기 임직원, 전속설계사, 대리점 수는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으나, 교차설계사 수는 증가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558명 감소(-1.7%)한 3만 1,943명을 기록함.
- 전속설계사가 1,554명 감소(-1.9%)한 8만 1,331명이며, 교차설계사 수는 619명 증가(0.8%)한 7만 7,661명임.
- 전체 대리점 수는 법인 대리점 수의 증가에도 개인대리점 수의 감소로 전분기대비 172개 감소 (-0.6%)한 2만 9,769개를 나타냄.

〈표 28〉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2015	2016			
	4/4	1/4	2/4	3/4	4/4
임직원(명)	32,343	32,511	32,301	32,501	31,943
설계사(명)					
- 전속	81,148	83,324	82,719	82,885	81,331
- 교차	75,448	76,330	75,299	77,042	77,661
대리점(개)	30,850	30,651	30,293	29,941	29,769
- 개인	20,884	20,793	20,542	20,350	20,155
- 법인	9,966	9,858	9,751	9,591	9,614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재무성과

〈자산〉

■ 2016년 4/4분기 손해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자산이 모두 늘어나 전분기대비 1.9% 증가한 252조 53억 원을 나타냄.

○ 일반계정 자산은 전분기대비 1.3% 늘어난 234.8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특별계정 자산은 전분기대비 11.9% 증가한 17.2조 원을 나타냄.

○ 2016년 연간으로는 일반계정 자산과 특별계정 자산이 각각 10.5%, 27.7% 늘어나 총자산은 1.5% 증가함.

〈표 29〉 손해보험산업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자산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자산	금액	225.9	225.9	232.2	241.1	247.2	252.0	252.0
	증가율	2.9	12.8	2.8	3.8	2.5	1.9	11.5
일반계정 자산	금액	212.5	212.5	217.4	226.1	231.9	234.8	234.8
	증가율	2.3	11.2	2.3	4.0	2.6	1.3	10.5
특별계정 자산	금액	13.4	13.4	14.8	15.1	15.3	17.2	17.2
	증가율	12.0	46.1	9.8	2.0	1.9	11.9	27.7

주: 1) 분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연간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6년 4/4분기 손해보험 총부채는 전분기대비 3.8% 증가한 219조 5,455억 원을 나타냈으며, 총자본은 전분기대비 9.3% 감소한 32조 4,598억 원을 나타냄.

○ 총부채의 경우 책임준비금과 기타부채, 특별계정 부채가 각각 전분기대비 2.6%, 1.2%, 21.5% 증가함.

○ 총자본의 경우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각각 전분기대비 4.8%, 11.2%, 1.8%, 증가한 반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41.7% 감소함.

○ 2016년 연간으로는 총부채가 11.6%, 총자본이 10.8% 증가함.

〈표 30〉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자산	금액	225.9	225.9	232.2	241.1	247.2	252.0	252.0
	증가율	(2.9)	(12.8)	(2.8)	(3.8)	(2.5)	(1.9)	(11.5)
총부채	금액	196.6	196.6	201.6	207.2	211.4	219.5	219.5
	증가율	(3.3)	(13.4)	(2.5)	(2.8)	(2.0)	(3.8)	(11.6)
책임준비금	금액	169.0	169.0	173.2	178.1	182.1	186.9	186.9
	증가율	(2.4)	(12.5)	(2.5)	(2.8)	(2.3)	(2.6)	(10.6)
기타부채	금액	13.3	13.3	13.8	14.2	14.2	14.4	14.4
	증가율	(-1.7)	(11.2)	(3.9)	(2.5)	(0.5)	(1.2)	(8.5)
특별계정부채	금액	11.1	11.1	14.6	14.9	15.0	18.2	18.2
	증가율	(17.9)	(19.9)	(31.2)	(2.3)	(0.7)	(21.5)	(64.1)
총자본	금액	29.3	29.3	30.5	33.9	35.8	32.5	32.5
	증가율	(0.0)	(9.0)	(4.2)	(11.0)	(5.5)	(-9.3)	(10.8)
자본금	금액	2.4	2.4	2.5	2.5	2.7	2.8	2.8
	증가율	(2.0)	(2.6)	(2.1)	(0.3)	(7.2)	(4.8)	(15.0)
자본잉여금	금액	2.7	2.7	2.7	2.8	2.8	3.1	3.1
	증가율	(8.1)	(13.7)	(-1.3)	(4.6)	(0.0)	(11.2)	(14.7)
이익잉여금	금액	19.5	19.5	19.6	20.7	21.7	22.1	22.1
	증가율	(1.9)	(10.8)	(0.6)	(5.6)	(4.9)	(1.8)	(13.5)
자본조정	금액	-1.3	-1.3	-1.4	-1.4	-1.4	-1.4	-1.4
	증가율	(33.9)	(35.9)	(8.9)	(0.0)	(0.1)	(-1.2)	(7.6)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금액	6.0	6.0	7.2	9.3	10.0	5.8	5.8
	증가율	(-4.6)	(8.5)	(20.4)	(29.7)	(7.4)	(-41.7)	(-2.2)

주: 1) 분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연간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총수익 · 총비용〉

■ 2016년 4/4분기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은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한 4,377억 원 흑자를 기록함.

○ 책임준비금 전입액을 감안한 보험영업 적자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826억 원 증가한 1조 765억 원을 기록함.

- 투자영업 이익규모는 전년동기대비 2,071억 원 증가한 1조 6,974억 원을 나타냄.
- 한편,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7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B)은 전년동기 대비 40.0% 증가한 2,645억 원의 흑자를 기록함.
-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C)은 전년동기대비 32.8% 증가한 2조 5,362억 원 흑자를 기록함.

■ 2016년 연간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은 전년대비 28.8% 증가한 3조 4,692억 원 흑자를 기록함.

- 2016년 연간 보험영업 적자규모가 전년대비 7,888억 원 감소한 2조 464억 원을 기록하였고, 투자영업 이익규모는 전년대비 4,074억 원 증가한 6조 7,540억 원을 기록함.

〈표 31〉 손해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¹⁾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수익	보험영업	18,301	71,562	18,139	18,507	18,813	19,139	74,598
	투자영업	1,640	9,040	2,624	2,168	3,123	1,866	9,781
	영업외	1,424	2,741	452	413	420	2,386	3,671
	소계	21,365	83,343	21,215	21,088	22,355	23,390	88,049
총비용	보험영업 ²⁾	19,195	74,397	18,577	18,914	18,938	20,215	76,644
	투자영업	150	2,693	969	284	1,605	168	3,027
	영업외	1,445	2,687	521	457	525	2,376	3,878
	소계	20,789	79,777	20,067	19,654	21,068	22,760	83,549
수지차	보험영업	-894	-2,835	-438	-407	-125	-1,076	-2,046
	투자영업	1,490	6,347	1,655	1,884	1,518	1,697	6,754
	영업외	-21	54	-68	-44	-105	10	-208
	소계	575	3,565	1,148	1,434	1,287	631	4,500
법인세		172	872	241	310	287	193	1,031
당기순이익(A) ³⁾		404	2,694	907	1,124	1,000	438	3,469
		(30.6)	(15.6)	(10.4)	(31.7)	(62.8)	(8.4)	(28.8)
당기순이익(B) ⁴⁾		189	1,910	681	808	783	264	2,536
		(2.2)	(15.0)	(11.5)	(28.9)	(61.8)	(40.0)	(32.8)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C) ⁵⁾		1,910	1,910	2,724	2,978	3,029	2,536	2,536
		(15.0)	(15.0)	(11.5)	(20.3)	(32.0)	(32.8)	(32.8)

주: 1) 기간별 수치는 특별계정을 제외한 실적이고, ()안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2) 책임준비금 전입액을 포함함.

3)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포함한 전체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임. 표에 있는 수지차는 이에 해당함.

4)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7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임.

5)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7개 손해보험회사의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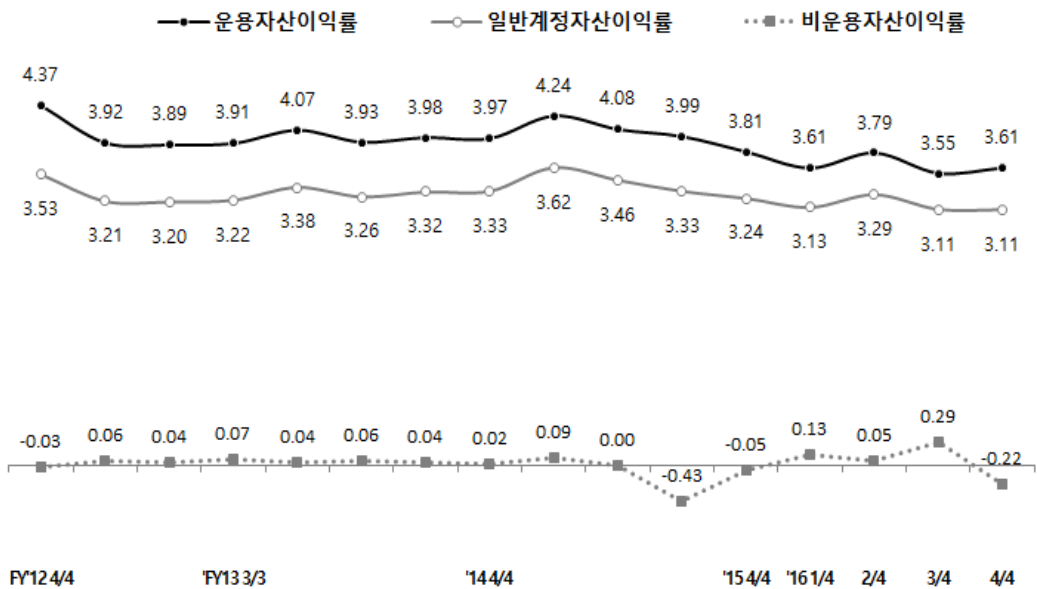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운용〉

- 2016년 4/4분기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20%p 하락한 3.61%를 기록함.
- 현금과 예금의 이익률이 0.54%p 하락한 2.42%를 기록하였으며, 유가증권 이익률도 0.33%p 하락한 3.54%를 기록함.
- 유가증권 구성항목 중 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이익률이 각각 0.42%p, 0.50%p, 0.61%p 하락한 1.58%, 3.72%, 2.96%를 기록함.
- 대출채권 이익률은 0.13%p 하락한 4.09%를 나타냈으며, 부동산 이익률은 1.63%p 상승한 2.65%를 기록함.

〈그림 6〉 자산운용 이익률 추이^{1),2)}

(단위: %)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이익률과 비운용자산이익률을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4/4분기 일반계정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은 유가증권 57.21%, 대출채권 24.67%, 현금과 예금 2.95%, 부동산 2.77% 순으로 나타남.²⁴⁾

-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비중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1.42%p, 1.54%p 상승하였으며, 현금과 예금, 부동산 비중은 각각 1.32%p, 0.29%p 하락함.

〈표 32〉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및 이익률

(단위: %, 억 원)

구분	2015		2016							
	4/4		1/4		2/4		3/4		4/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0	3.24	100.00	3.13	100.00	3.29	100.00	3.11	100.00	3.11
운용자산 계	86.25	3.81	86.32	3.61	86.87	3.79	87.09	3.55	87.60	3.61
현금과 예금	4.27	2.96	3.39	1.97	3.02	2.30	2.58	1.00	2.95	2.42
유가증권	55.79	3.87	56.48	3.59	57.47	3.78	57.77	3.52	57.21	3.54
○ 당기손익인식증권	3.60	2.00	2.97	2.20	3.36	1.98	3.34	2.14	2.93	1.58
- 주식	0.05	2.91	0.05	4.58	0.04	-1.73	0.05	20.90	0.03	26.61
- 채권 등	1.66	2.04	1.53	3.20	1.50	3.26	1.36	2.77	1.13	1.44
- 수익증권	1.89	1.85	1.40	1.45	1.82	1.13	1.93	1.11	1.77	1.16
○ 매도가능증권	43.95	4.22	45.09	3.80	48.97	3.94	50.16	3.58	49.02	3.72
- 주식	2.73	1.03	2.75	7.15	2.51	10.48	2.61	5.33	2.64	5.05
- 채권 등	35.05	4.27	35.98	3.67	39.90	3.57	40.74	3.52	39.35	3.78
- 수익증권	6.17	5.62	6.37	3.11	6.56	3.49	6.81	3.24	7.03	2.85
○ 만기보유증권	6.80	3.57	7.01	3.10	3.98	3.84	3.28	3.59	4.33	2.96
- 채권 등	6.80	3.57	7.01	3.10	3.98	3.84	3.28	3.59	4.33	2.96
- 수익증권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43	0.20	1.41	2.38	1.15	2.51	0.98	4.99	0.93	4.38
대출채권	23.13	4.22	23.49	3.98	23.47	4.04	23.92	4.01	24.67	4.09
부동산	3.06	1.02	2.97	3.29	2.91	4.02	2.82	3.30	2.77	2.65
비운용자산	13.75	-0.05	13.68	0.13	13.13	0.05	12.91	0.29	12.40	-0.22
일반계정자산 규모	2,124,938		2,174,195		2,260,595		2,318,517		2,348,346	
일반계정자산 비중	(94.04)		(93.64)		(93.76)		(93.79)		(93.19)	
총자산 규모	2,259,351		2,321,807		2,411,112		2,471,917		2,520,053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환산

2) 이익률에 해당하는 이익은 분기별 누계실적 기준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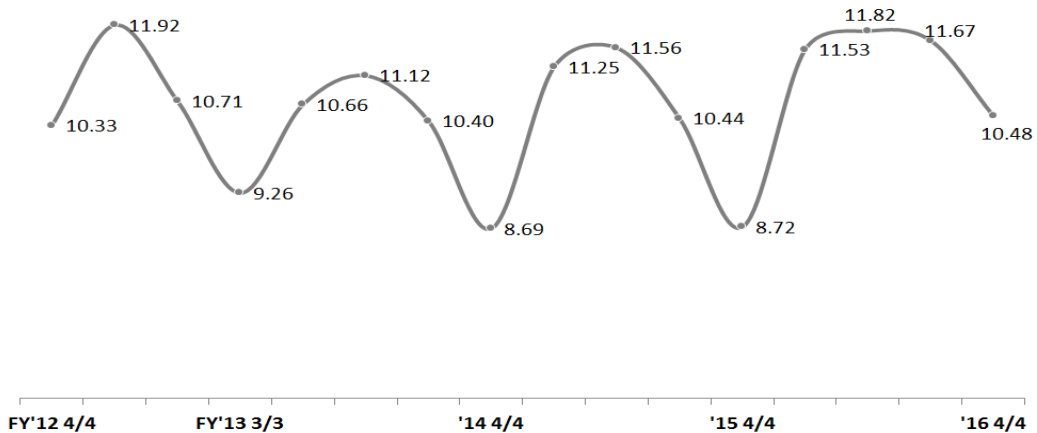
- 24) 일반계정자산은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해당 수치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본이익률(ROE)²⁵⁾〉

- 2016년 4/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76%p 상승한 10.48%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의 총자본(〈표 30〉 참조)은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연간기준 당기순이익(C)(〈표 31〉 참조)은 전년동기대비 32.8% 증가함.

〈그림 7〉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추이

(단위: %)



주: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6년 4/4분기 손해보험회사 규모별 자본이익률의 경우 대형사와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으나, 중·소형사와 전업사는 상승함.
- 대형사와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28%p, 5.05%p 하락한 7.70%와 14.64%를 기록함.
- 중·소형사와 전업사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4.97%p와 23.62%p 개선된 22.92%와 5.92%를 기록함.

25)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산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 / E_t^o)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17개 회사임.

〈표 33〉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5	2016			
	4/4	1/4	2/4	3/4	4/4
대형사	8.98	11.46	9.26	8.59	7.70
중·소형사	7.95	9.73	21.30	24.38	22.92
외국사	19.69	21.61	23.32	18.87	14.64
전업사	-17.70	20.87	14.72	12.27	5.92
전체	8.72	11.53	11.82	11.67	1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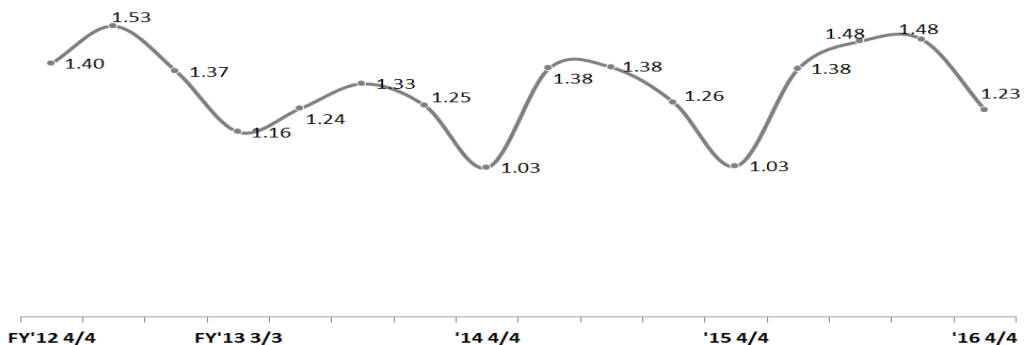
주: 1)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이익률(ROA)²⁶⁾〉

- 2016년 4/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20%p 상승한 1.23%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 총자산(〈표 30〉 참조)은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하였으며,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C)(〈표 31〉 참조)은 전년동기대비 32.8% 증가함.

〈그림 8〉 손해보험산업 자산이익률 추이

(단위: %)



주: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6)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산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 / A_t^o)을 의미하며, 분석 대상은 17개 회사임.

■ 2016년 4/4분기 손해보험회사규모별 자산이익률의 경우 대형사와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반면, 중·소형사와 전업사는 상승함.

○ 대형사와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0.17%p, 1.97%p 하락한 0.99%, 6.25%를 기록함.

○ 중·소형사와 전업사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17%p, 4.41%p 상승한 1.79%, 1.32%를 기록함.

〈표 34〉 손해보험산업 자산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5	2016			
	4/4	1/4	2/4	3/4	4/4
대형사	1.16	1.49	1.25	1.18	0.99
중·소형사	0.62	0.78	1.84	2.10	1.79
외국사	8.22	9.51	10.35	8.38	6.25
전업사	-3.09	4.56	3.34	2.86	1.32
전체	1.03	1.38	1.48	1.48	1.23

주: 1) 자산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산, 기중자산 = ((전년도 말 자산 + 당기 말 자산)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Ⅲ. 해외보험 동향

- 미국과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의 생명보험 보험료와 가입금액은 감소하고 있음.
 - 2016년 3/4분기 미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는 종신보험(8.0%) 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변액유니버설보험(-12%)의 감소세 지속으로 증가세가 둔화됨.
 - 2016년 4/4분기 영국의 신규보험료¹⁾는 연금 상품(-13.4%), 투자 및 저축성보험(-7.2%), 보장성보험(-3.1%)이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0.1% 감소함.
 - 일본의 경우 FY2016 3/4분기 신규가입금액²⁾은 개인연금보험(30.0%) 및 단체보험(48.5%)은 증가하였으나 개인보험(-7.7%)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함.
 - 2016년 4/4분기 중국 인보험³⁾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8.7%), 건강보험(6.7%) 및 상해보험(20.8%)의 증가세로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함.
- 미국, 일본, 중국의 손해보험 시장은 성장세를 보임.
 - 2016년 3/4분기 미국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2.3% 성장하였으나, 총보험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2.4% 감소함.
 - 일본의 FY2016 3/4분기 원수보험료는 화재(0.4%), 자동차(1.1%), 특종(6.5%)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함.
 - 2016년 4/4분기 중국 손해보험 수입보험료⁴⁾는 자동차보험의 성장세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3.0% 증가함.

1)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납입방법별로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합계로 계산함.
2) 일본 보험산업은 일본 생명보험협회 자료에 따라 신규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그 성장성을 살펴보고 있음.
3) 중국의 인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함.
4) 중국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가 아닌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성장성을 살펴봄.

1. 미국⁵⁾

가. 생명보험

■ 2016년 3/4분기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규모⁶⁾는 종신보험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 성장함(〈표 1〉 참조).

- 유니버셜보험⁷⁾은 인덱스형 유니버셜보험(Indexed UL)⁸⁾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 감소함.
- 변액유니버셜보험⁹⁾은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함.
- 정기보험¹⁰⁾과 종신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 8% 증가함.

■ 2016년 3/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전분기대비 유니버셜보험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종신보험 비중은 소폭 하락하였고, 변액유니버셜보험과 정기보험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

- 생명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니버셜보험의 비중은 37%임.
- 종신보험은 36%의 비중을 차지함.
- 변액유니버셜보험과 정기보험은 각각 6%, 21%의 비중을 차지함.

5)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6) 미국 보험시장의 규모는 신규 연납화보험료를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연납화보험료는 일시납보험료의 10%와 정기납보험료의 합계임(연납화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7) 해약환급금으로부터 사업비를 공제하고, 사망률과 현재 이율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에 따라 보험료가 유연한 생명보험임.

8) 인덱스 지수와 연결된 유니버셜보험으로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해약환급금이 증가하지만 주가지수가 하락하여도 최저 보증금은 보증되는 상품임.

9)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는 투자 성과에 따라 해약환급금 규모가 변경되는 보험으로 보험료 납입 및 적립금 인출이 자유로운 보험임.

10) 특정 연령까지 혹은 특정 기간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임.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유니버설	13	11	-1	7	38	1	-1	-2	37
변액유니버설	-15	2	-11	-3	7	-14	-12	-12	6
정기	1	2	1	2	21	3	2	2	21
종신	12	9	9	9	34	11	8	8	36
계	8	8	1	6	100	4	2	2	100
연납화보험료	2,742	2,584	2,919	10,687		2,537	2,729	2,646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2016, 11),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6년 3/4분기 개인연금 신규보험료는 변액연금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1.6% 감소한 536억 달러임(〈표 2〉 참고).

- 변액연금¹¹⁾은 전년동기대비 21.3% 감소한 259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감소세 보임.
- 정액연금¹²⁾은 2015년 3/4분기 규모와 동한 277억 달러를 기록함.

〈표 2〉 미국 연금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변액연금	보험료	36.0	32.9	31.7	133.0	26.6	26.9	25.9
	증가율	-0.6	-7.3	-7.3	-5.1	-17.9	-25.3	-21.3
	비중	59.8	54.3	51.6	56.2	45.2	46.1	48.3
정액연금	보험료	24.2	27.7	29.7	103.6	32.3	31.5	27.7
	증가율	-5.8	20.4	22.7	6.9	46.8	30.2	0.0
	비중	40.2	45.7	48.4	43.8	54.8	53.9	51.7
합계	보험료	60.2	60.6	61.4	236.6	58.9	58.4	53.6
	증가율	-2.7	3.6	5.1	-0.2	8.3	-3.0	-11.6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6, 11), *U.S. Individual Annuities*.

11) 변액연금 상품을 일부라도 포함한 모든 보험 상품을 일컬음.

12) 최저보증 이율이 보장되는 독립 상품으로 거치연금(deferred annuity), 즉시연금(immediate annuity), 구조적 지급연금(structured settlements annuity) 등이 있음.

다. 소득보상보험

■ 2016년 3/4분기 소득보상보험¹³⁾ 신규보험료는 Non-cancellable¹⁴⁾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Guaranteed Renewable¹⁵⁾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한 1억 4,030만 달러를 기록함.

○ Guaranteed Renewable은 전년동기대비 17.5% 증가한 4,910만 달러임.

○ Non-cancellable은 9,12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9% 감소함.

〈표 3〉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계약 건수	Guaranteed Renewable	건수	79.6	74.7	115.3	378.2	93.9	85.3	82.4
		증가율	26.6	10.9	73.0	26.6	-13.6	7.2	10.2
		구성비	69.0	60.4	70.1	69.3	70.6	68.6	65.4
	Non-cancellable	건수	35.7	49.0	49.1	167.6	39.2	39.1	43.6
		증가율	1.2	12.7	12.0	8.0	16.2	9.4	-11.0
		구성비	31.0	39.6	29.9	30.7	29.4	31.4	34.6
	전체	건수	115.3	123.7	164.4	545.8	133.1	124.4	126.0
		증가율	17.5	11.6	48.8	-2.4	-6.5	7.9	1.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 보험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53.0	41.8	69.1	227.7	55.4	53.0	49.1
		증가율	28.2	-6.0	57.5	-5.6	-13.2	0.1	17.5
		구성비	406	29.9	42.7	37.6	42.3	39.8	35.0
	Non-cancellable	보험료	77.5	97.9	92.7	335.3	75.5	80.3	91.2
		증가율	4.3	13.8	3.7	-0.7	12.4	3.6	-6.9
		구성비	59.4	70.1	57.3	62.4	57.7	60.2	65.0
	전체	보험료	130.5	139.7	161.8	563.0	130.9	133.3	140.3
		증가율	12.9	7.0	21.5	-2.6	-0.1	2.2	0.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6, 11),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Sales.

13)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업불능이 되었을 경우 소득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임.

14)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15)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라. 손해보험

- 2016년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한 1,39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발생손해액은 96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함.
 - 원수손해율은 69.1%로 전년동기대비 3.9%p 상승함.
- 손해보험산업의 2016년 3/4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2.4% 감소한 101억 달러임.
 - 총보험영업이익은 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40억 달러 감소한 수치임.
 - 총투자영업이익은 투자영업이익 감소에도 실현자본이익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한 약 121억 달러를 기록함.
 -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한 110억 달러임.
 - 실현자본이익은 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2.9% 증가함.
- 2016년 3/4분기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95.7%에서 약 3.3%p 상승한 99.0%,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 7.8%에서 1.9%p 하락한 5.9%를 나타냄.

〈표 4〉 미국 손해보험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¹⁾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원수보험료	금액	130,586	135,994	121,282	513,963	130,075	134,498	139,163
	증가율	4.4	4.1	1.3	3.4	3.2	3.0	2.3
발생손해액	금액	89,399	88,701	90,204	350,232	87,090	96,684	96,143
	증가율	2.0	4.3	10.4	4.6	6.3	8.1	8.4
원수손해율		68.5	65.2	74.4	68.1	67.0	71.9	69.1
보험영업이익	금액	-415	4,021	2,832	11,225	2,917	-3,486	61
	증가율	-77.4	-4.3	-69.4	-23.3	-39.1	740.0	-98.5
계약자 배당금	금액	258	271	1,252	2,504	753	265	279
	증가율	-2.6	5.9	1.0	3.7	4.1	2.7	3.0
총보험영업이익	금액	-673	3,750	1,580	8,742	2,164	-3,751	-218
	증가율	-68.0	-5.0	-80.3	-28.4	-47.0	457.4	-105.8
투자영업이익	금액	11,734	11,457	12,379	47,228	10,893	11,179	10,968
	증가율	-0.7	0.2	4.0	1.9	-6.6	-4.7	-4.3
실현자본이익	금액	3,500	680	545	9,412	2,284	2,156	1,176
	증가율	-17.7	-57.7	-62.8	-8.4	-51.3	-38.4	72.9
총투자영업이익	금액	15,234	12,137	12,924	56,639	13,177	13,334	12,144
	증가율	-5.2	-7.0	-3.4	0.0	-19.4	-12.5	0.1
세전영업이익 ²⁾	금액	11,965	15,592	14,196	57,313	13,475	7,802	11,109
	증가율	17.9	21.0	-25.6	2.5	-13.4	-34.8	-28.8
당기순이익	금액	12,834	13,062	12,588	56,622	13,313	8,304	10,134
	증가율	5.8	10.5	-30.3	1.3	-26.6	-35.3	-22.4
자기자본 (Surplus) ³⁾	금액	672,439	663,868	673,686	673,686	676,256	680,638	688,278
	증가율	0.1	-1.6	-0.2	-0.2	0.6	1.2	3.7
지급준비금	금액	579,099	580,974	583,069	583,069	586,036	589,713	594,680
	증가율	0.1	0.3	1.3	1.3	1.8	1.8	2.4
자기자본이익률 ⁴⁾		7.6	7.8	7.5	8.4	7.9	4.9	5.9
합산비율		99.4	95.7	100.5	97.8	97.5	102.1	99.0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세전영업이익 = 총보험영업이익 + 총투자영업이익 + 기타이익

3)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살펴보는 지표로 사용되며, 보험계약자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값을 의미함.

4) 자기자본(surplus)에 대한 이익률로 rate of return on average surplus로 표기함.

자료: ISO(2016, 10), Property/Casualty Insurance Results: First-Half 2016.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는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건강보험이 존재하지 않아 민영건강보험이 발달해 있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의료공급조직(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등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건강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영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손해보험산업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를 중심으로 작성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83개사	80%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2개사	97%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9개사	-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2. 영국¹⁶⁾

가. 생명보험¹⁷⁾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 2016년 4/4분기 생명보험 신규보험료¹⁸⁾는 전년동기대비 10.1% 감소한 185억 1,820만 파운드를 기록함.

-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1% 감소한 2억 8,006만 파운드임.
- 투자 및 저축성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2% 감소한 20억 761만 파운드임.
- 연금 상품¹⁹⁾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3.4% 감소한 136억 1,297만 파운드임.
 - 순수개인형연금(Individual Pension)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한 33억 8,943만 파운드임.
 - 단체개인형연금(Work-based Pension)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2.1% 감소한 25억 9,801만 파운드임.
 - 퇴직연금(Trust-based Pension)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6.1% 감소한 76억 2,553만 파운드임.

■ 2016년 4/4분기 퇴직소득보험²⁰⁾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한 26억 1,755만 파운드임.

16)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17) 영국 손해보험시장 실적은 연도별 자료만 발표되며(분기별 미발표), 2015년 연간 손해보험 자료는 “보험동향 2016년 겨울호”를 참조하기 바람. 2016년 연간 손해보험 자료는 “보험동향 2017년 겨울호” 게재 예정임.

18)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납입방법별로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합계로 계산함.

19) 연금 상품은 근로자와 연금사업자 간 개인계약(personal contract-based)인 개인연금과 사용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퇴직연금으로 구분되며, 개인연금은 또 다시 개인의 보험료 부담형태에 따라 순수개인형(Individual Pension)과 단체개인형(Work-based Pension)으로 구분됨. 순수개인형연금은 보험료를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Personal Pension,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Self-Invested Personal Pension) 등이 포함됨. 단체개인형연금은 보험료를 직장이 일정 부분 보조하는 형태로 Group Personal Pension,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Group SIPP 등이 포함됨. 퇴직연금(Trust-based Pension)은 신탁에 근거한 연금으로 Defined Benefit, Defined Contribution, TIP(Trustee Investment Plan), Bulk Buyout 등이 포함됨.

20) 퇴직소득(Retirement Income)보험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을 활용하여 소득흐름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일시납 형태만 있으며 종신연금(Pension Annuity),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구분됨.

〈표 5〉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상품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보장성보험 (Protection)	금액	289.2	1,172.2	290.7	323.4	288.5	280.1	1,182.7
	증가율	3.1	-0.6	-1.1	6.9	0.7	-3.1	0.9
	구성비	1.4	1.5	1.9	1.3	1.1	1.1	1.5
투자 및 저축성보험 (Investments & Saving)	금액	2,164.3	8,169.0	2,105.4	2,170.0	2,048.4	2,007.6	8,331.5
	증가율	1.5	-2.1	12.4	7.1	-2.7	-7.2	2.0
	구성비	10.5	10.7	13.9	8.6	8.1	8.0	10.9
투자형 (Investment)	금액	1,203.7	4,691.9	1,238.7	1,289.1	1,253.2	1,263.3	5,044.2
	증가율	-6.9	1.6	10.7	12.6	2.3	5.0	7.5
	구성비	5.8	6.1	8.2	5.1	5.0	5.0	6.6
역외영업 (Offshore)	금액	953.9	3,451.3	859.8	874.3	787.3	738.2	3,259.6
	증가율	14.2	-7.0	15.0	-0.3	-9.8	-22.6	-5.6
	구성비	4.6	4.5	5.7	3.5	3.1	2.9	4.3
연금 상품 (Pension)	금액	15,727.4	57,858.5	10,327.8	19,859.7	10,000.4	13,613.0	53,800.9
	증가율	1.5	14.3	1.0	15.9	-32.3	-13.4	-7.0
	구성비	76.4	75.7	68.2	78.7	39.6	54.0	70.4
순수개인형 (Individual)	금액	3,307.5	13,381.1	3,207.6	2,988.6	2,873.7	3,389.4	12,459.3
	증가율	58.3	63.9	0.4	-14.8	-14.7	2.5	-6.9
	구성비	16.1	17.5	21.2	11.8	11.4	13.4	16.3
단체개인형 (Work-Based)	금액	3,333.8	9,520.1	2,409.6	2,450.3	1,864.2	2,598.0	9,322.1
	증가율	45.3	0.9	23.5	12.1	-9.1	-22.1	-2.1
	구성비	16.2	12.4	15.9	9.7	7.4	10.3	12.2
퇴직연금 (Trust-based)	금액	9,086.2	34,957.3	4,710.6	14,420.9	5,262.5	7,625.5	32,019.5
	증가율	-18.2	5.9	-7.3	26.1	-43.7	-16.1	-8.4
	구성비	44.1	45.7	31.1	57.2	20.9	30.2	41.9
퇴직소득보험 (Retirement Income)	금액	2,415.6	9,271.2	2,426.0	2,876.5	2,848.3	2,617.6	10,768.4
	증가율	23.6	-6.3	32.1	25.4	4.5	8.4	16.1
	구성비	11.7	12.1	16.0	11.4	11.3	10.4	14.1
전체	금액	20,596.4	76,470.9	15,150.0	25,229.7	15,185.7	18,518.2	74,083.6
	증가율	3.7	9.2	6.5	16.0	-23.6	-10.1	-3.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60.2	73.4	96.9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모집형태별 신규보험료〉

- 2016년 정기납 신규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은 독립 자문(independent advice)²¹⁾이 가장 높고, 無자문(non-advised),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²²⁾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정기납 판매 중 독립자문 채널 판매 비중은 전년대비 4.9%p 감소한 70.6%를 기록함.
 - 종목별로는 개인연금(84.5%), 보장성보험(66.9%), 퇴직연금(24.4%), 투자 및 저축보험(19.7%) 순임.
 - 정기납 신규보험료 중 제한적 자문 채널 비중은 전년대비 1.1%p 증가한 10.6%를 기록함.
 - 종목별로는 보장성보험(18.6%), 퇴직연금(10.1%), 투자 및 저축보험(10.0%), 개인연금(9.1%) 순으로 나타남.
 - 無자문 채널의 정기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전년대비 3.8%p 증가한 18.8%로 나타났음.
 -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70.3%), 퇴직연금(65.5%), 보장성보험(14.5%), 개인연금(6.4%) 순임.
- 2016년 일시납 신규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은 독립 자문, 無자문, 제한적 자문 순으로 나타남.
 -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독립자문 채널 비중은 전년대비 7.9%p 상승한 68.1%임.
 - 종목별로는 보장성보험의 독립자문 채널을 통한 모집 비중이 91.8%로 가장 높으며, 개인연금(85.2%), 투자 및 저축보험(80.3%), 퇴직연금(61.8%), 퇴직소득보험(49.1%) 순임.
 -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제한적 자문 채널의 판매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11.1%임.
 -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의 제한적 자문 채널 모집 비중이 18.0%로 가장 높으며, 퇴직소득보험(11.4%), 퇴직연금(11.3%), 개인연금(7.4%), 보장성보험(1.3%) 순임.
 - 無자문 채널의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20.8%로 전년대비 7.9%p 감소함.
 - 종목별로는 퇴직연금과 퇴직소득보험의 경우 無자문 채널을 통한 모집 비중이 각각 26.9%, 39.6%로 나타남.
 - 투자 및 저축보험(1.7%), 개인연금(7.5%), 보장성보험(6.9%)의 경우 無자문 채널을 통한 모집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

21) 독립적 자문(independent advice)은 상품공급업자에게 구속받지 않고 특정 시장의 전체 상품을 포괄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22)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은 복수의 상품공급업자 상품을 적합성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표 6〉 2016년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

(단위: %)

구분	독립 자문 (Independent Advice)				제한적 자문 ¹⁾ (Restricted Advice)				無자문 ²⁾ (Non-advised)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투자 및 저축보험	25.7	19.7	79.7	80.3	11.0	10.0	18.6	18.0	63.3	70.3	1.7	1.7
개인연금	87.0	84.5	76.2	85.2	8.5	9.1	5.4	7.4	4.5	6.4	18.4	7.5
퇴직연금	41.6	24.4	49.7	61.8	7.5	10.1	12.5	11.3	51.0	65.5	37.9	26.9
보장성보험	68.8	66.9	88.8	91.8	17.1	18.6	5.3	1.3	14.1	14.5	5.9	6.9
퇴직소득보험	-	-	49.7	49.1	-	-	11.2	11.4	-	-	39.0	39.6
전체 ³⁾	75.5	70.6	60.2	68.1	9.5	10.6	11.1	11.1	15.0	18.8	28.7	20.8

주: 1) 독립중개인(WoM), 단일 전속(Single Tied)과 다중 전속(Multi Tied) 설계사 포함.

2) 보험회사의 직접 판매와 제3자 판매를 포함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함.

3) 각 채널별 신규보험료를 합산하여 재계산함.

4) 비중 합계가 100% 이하인 경우는 채널 파악이 안된 경우로 보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2016년 4/4분기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신규보험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한 2억 1,985만 파운드를 기록함.

○ 방카슈랑스를 통한 정기납 보험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8.1% 감소한 1,362만 파운드로 전체 방카슈랑스 채널 판매의 6.2%를 차지함.

- 종목별로 보장성보험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15.6%, 개인연금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27.1% 감소하였음.

○ 방카슈랑스를 통한 일시납 보험판매는 전년동기와 유사한 2억 623만 파운드이며 방카슈랑스 채널의 93.8%를 차지함.

-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일시납 보험 상품 판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 및 저축 보험이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하였고,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외영업 신규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4.4%가 감소함.

- 방카슈랑스 채널의 일시납 상품 중 개인연금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51.1% 증가하였으며, 퇴직소득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42.7% 증가함.

〈표 7〉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방카슈랑스 판매

(단위: 백만 파운드, %)

구분	정기납						일시납					
	2015	2016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투자 및 저축보험	0.6 (-1.8)	0.1 (0.6)	0.1 (-27.5)	0.2 (112.2)	0.2 (20.1)	0.6 (13.4)	469.8 (-1.2)	128.8 (9.2)	130.6 (16.3)	124.0 (-6.3)	100.9 (-5.9)	484.2 (3.1)
개인연금	17.2 (-47.5)	4.2 (9.1)	3.2 (-18.7)	2.6 (-49.3)	3.1 (-27.1)	13.1 (-23.8)	56.3 (-41.3)	26.0 (55.0)	22.6 (32.2)	16.6 (55.3)	17.8 (51.1)	82.9 (47.3)
퇴직연금	0.4 (943.6)	- (-100.0)	- (-100.0)	- (-)	- (-)	- (-100.0)	2.6 (-97.5)	0.0 (-99.2)	- (-100.0)	0.0 (-)	- (-)	0.0 (-100.0)
역외영업	0.2 (-17.8)	0.1 (39.4)	0.0 (20.9)	0.1 (85.8)	0.1 (18.3)	0.2 (40.8)	301.2 (-3.9)	46.7 (-25.5)	50.9 (-44.2)	56.4 (-22.0)	64.4 (-14.4)	218.3 (-27.5)
보장성보험	52.2 (-41.7)	11.6 (-28.0)	11.2 (-3.4)	11.8 (-5.2)	10.3 (-15.6)	44.9 (-14.3)	15.9 (-10.8)	3.5 (-5.6)	2.3 (-36.3)	4.1 (-12.0)	2.8 (-25.0)	12.8 (-19.2)
퇴직소득보험 ¹⁾	- (-)	- (-)	- (-)	- (-)	- (-)	- (-)	30.8 (-66.0)	8.3 (-8.3)	17.1 (151.9)	26.2 (297.4)	20.4 (142.7)	71.9 (133.4)
전체	70.5 (-42.7)	16.0 (-22.2)	14.6 (-7.8)	14.7 (-17.3)	13.6 (-18.1)	58.8 (-16.8)	876.6 (-20.2)	213.3 (1.5)	223.4 (-4.3)	227.3 (0.3)	206.2 (0.0)	870.2 (-0.7)

주: 1) 별도 취합된 퇴직소득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를 합침.

2)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연간자료만 발표)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전체 신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 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역외영업의 경우 투자·저축성보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표시하지 않음.
 - 퇴직소득보험(Retirement Income)은 퇴직자의 연금재원이 분배되는 단계의 보험으로서 종신연금(Pension Annuity)과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구분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	투자·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	순수개인형연금
Work-based Pension	단체개인형연금
Trust-based Pension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Retirement Income	퇴직소득보험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3. 일본²³⁾

가. 총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 FY2016 3/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10조 853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8.9% 감소함.

○ 손해보험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생명보험은 감소세를 지속함.

■ FY2016 3/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10.1% 감소한 7조 7,851억 엔임.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이 모두 감소함.

〈표 8〉 일본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단위: 억 엔, %)

구분		FY2015			FY2016		
		3/4	4/4	연간	1/4	2/4	3/4
수입보험료	금액	110,667	122,707	468,118	109,948	108,459	100,853
	증가율 ¹⁾	-0.4	0.3	1.7	-4.5	-9.3	-8.9
생명보험	금액	88,596	101,025	377,481	86,757	86,244	78,511
	증가율	-0.3	0.7	1.4	-5.4	-10.3	-11.4
손해보험 ²⁾	금액	22,071	21,682	90,637	23,191	22,215	22,342
	증가율	-0.9	-1.3	2.7	-0.8	-5.5	1.2
지급보험금	금액	86,564	83,223	350,503	82,151	75,023	77,851
	증가율	-11.3	15.2	-6.5	-14.3	-11.5	-10.1
생명보험	금액	73,834	71,583	304,320	68,361	63,437	65,887
	증가율	-14.2	-17.1	-7.3	-19.8	-13.9	-10.8
손해보험	금액	12,730	11,640	46,183	13,790	11,586	11,964
	증가율	10.8	-1.0	-1.1	29.1	4.1	-6.0

주: 1) 전년동기대비.

2)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및 일본손해보험협회.

23)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나. 생명보험²⁴⁾

〈신규가입금액〉

■ FY2016 3/4분기 생명보험 신규가입금액의 경우 개인연금보험 및 단체보험이 증가하였지만 개인보험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한 20조 4,526억 엔을 기록함.

- 개인보험은 전년동기대비 7.7% 감소한 16조 9,517억 엔을 기록함.
 - 사망보험의 경우 정기보험은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하였지만 종신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5.2% 감소함.
 - 생사혼합보험인 양로보험(정기양로보험 포함)은 전년동기대비 26.1% 감소하였지만 기타 생사혼합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2.8% 증가함.
 - 생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7.5% 감소한 3,170억 엔으로 집계됨.
- 개인연금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0.0% 늘어난 2조 6,059억 엔으로 나타남.
 - 정액연금보험은 전년동기대비 47.1% 증가하였지만 변액연금보험은 전년동기대비 56.4% 감소함.
- 단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48.5% 증가한 8,950억 엔을 기록함.
 - 단체정기보험(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²⁵⁾ 포함) 및 단체신용생명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3.7%, 62.8% 증가함.

24) 일본 생명보험협회가 계약종목에 따라 분기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종목별 생명보험 변화 추이를 보여주기 위해 신규가입금액을 대상으로 분석함. 여기서 말하는 가입금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보험금)을 의미함.

25)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은 임직원 사망 시 또는 고도장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을 말함.

〈표 9〉 일본 생명보험 신규가입금액

(단위: 억 엔, %)

구분 ¹⁾		FY2015			FY2016		
		3/4	4/4	연간	1/4	2/4	3/4
개인	금액	183,689	187,809	732,560	172,701	176,345	169,517
	증가율	3.2	3.2	4.8	-2.8	-3.9	-7.7
	구성비	87.6	81.7	85.7	86.1	85.6	82.9
	사망	금액	152,514	155,898	609,932	139,443	144,838
		증가율	-0.1	-0.3	2.4	-5.6	-5.8
		구성비	72.7	67.8	71.4	69.5	69.2
	정기보험	금액	81,016	83,187	318,809	77,190	84,046
		증가율	1.1	3.2	2.5	3.5	5.0
	종신보험	금액	37,408	42,865	155,382	33,328	35,109
		증가율	-4.2	1.1	2.2	-11.4	-6.3
	생사혼합	금액	26,803	27,190	106,109	29,144	28,200
		증가율	27.6	27.7	25.3	10.0	10.1
		구성비	12.8	11.8	12.4	14.5	13.7
	양로보험 ²⁾	금액	12,659	12,979	49,886	15,944	15,035
		증가율	13.7	13.4	6.6	31.5	24.0
	기타	금액	12,125	12,194	48,138	11,105	11,368
		증가율	40.6	44.3	45.1	-10.0	-0.9
	생존	금액	4,372	4,721	16,519	4,114	3,307
		증가율	3.5	6.9	-10.4	20.8	-17.8
		구성비	2.1	2.1	1.9	2.1	1.6
개인연금	금액	20,046	24,303	83,550	21,350	23,131	26,059
	증가율	-8.5	12.2	-3.5	6.1	21.2	30.0
	구성비	9.6	10.6	9.8	10.6	11.2	12.7
	정액연금	금액	16,741	21,659	69,648	19,207	20,903
		증가율	-5.9	26.3	-0.5	19.6	37.7
	변액연금	금액	3,304	2,643	13,902	2,143	2,227
		증가율	-20.1	-41.3	-15.9	-47.1	-42.9
		금액	6,026	17,886	38,736	6,488	6,569
단체보험	증가율	33.1	73.2	26.6	-30.8	20.7	48.5
	구성비	2.9	7.8	4.5	3.2	3.2	4.4
	단체정기 ³⁾	금액	4,512	5,456	21,451	4,176	4,140
		증가율	35.7	-38.3	2.7	-44.5	4.7
	단체산용생명	금액	1,514	12,431	17,284	2,312	2,429
		증가율	25.9	739.4	77.8	24.8	63.4
	합계	금액	209,761	229,998	854,845	200,539	206,044
		증가율	2.6	7.5	4.7	-3.2	-0.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생명보험 전체 실적대비 기준 구성비임.

2) 양로보험은 정기양로보험을 포함함.

3) 단체정기보험은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을 포함함.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지급률〉

■ FY2016 3/4분기 생명보험 지급률은 83.9%로 전분기보다 10.3%p 상승함.

○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1.4% 감소한 7조 8,511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 대비 10.8% 감소한 6조 5,887억 엔을 나타냄.

〈표 10〉 일본 생명보험 지급률

(단위: 억 엔, %)

구분		FY2015			FY2016		
		2/4	3/4	4/4	1/4	2/4	3/4
수입보험료	금액	96,115	88,596	101,025	86,757	86,244	78,511
	증가율 ¹⁾	3.5	-0.3	0.7	-5.4	-10.3	-11.4
지급보험금	금액	73,681	73,834	71,583	68,361	63,437	65,887
	증가율	-5.4	-14.2	-17.1	-19.8	-13.9	-10.8
지급률 ²⁾		76.7	83.3	70.9	78.8	73.6	83.9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운용〉

■ FY2016 3/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2.1% 증가한 375조 7,380억 엔을 기록함.

○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 매입금전채권 규모는 전분기보다 각각 14.0%, 5.1%, 7.9% 감소함.

○ 반면, 금전신탁, 대출금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10.6%, 0.5% 증가하였으며 부동산은 전분기와 유사함.

○ 유가증권의 경우 지방채 및 회사채를 제외한 기타 유가증권의 증가로 전분기대비 3.3% 증가한 311조 2,029억 엔을 나타냄.

- 국채, 주식, 외화증권은 전분기대비 각각 0.5%, 11.7%, 7.9% 증가함.

- 지방채는 전분기대비 1.5% 감소하였으며 회사채는 전분기와 유사함.

〈표 11〉 일본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1),2)}

(단위: 억 엔, %)

구분 ^{1),2)}	FY2015				FY2016					
	3/4		4/4		1/4		2/4		3/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46,986	-8.9	74,584	58.7	75,944	1.8	79,745	5.0	68,571	-14.0
단기자금	46,569	8.5	12,809	-72.5	20,068	56.7	14,151	-29.5	13,423	-5.1
매입금전채권	25,342	-15.0	24,572	-3.0	23,100	-6.0	19,419	-15.9	17,889	-7.9
금전신탁	37,376	3.9	37,013	-1.0	36,780	-0.6	39,368	7.0	43,551	10.6
유가증권	3,001,722	0.8	3,005,235	0.1	2,969,991	-1.2	3,011,589	1.4	3,112,029	3.3
- 국채	1,475,890	-0.7	1,485,685	0.7	1,483,404	-0.2	1,476,101	-0.5	1,483,738	0.5
- 지방채	135,144	-1.4	135,179	0.0	135,448	0.2	135,355	-0.1	133,353	-1.5
- 회사채	249,038	0.2	253,635	1.8	254,478	0.3	262,224	3.0	262,206	0.0
- 주식	225,713	8.1	198,130	-12.2	186,051	-6.1	191,161	2.7	213,464	11.7
- 외화증권	766,972	2.0	786,532	2.6	766,658	-2.5	799,271	4.3	862,150	7.9
대출금	357,548	-0.4	349,869	-2.1	346,025	-1.1	342,944	-0.9	344,534	0.5
부동산	62,361	-0.3	61,571	-1.3	59,251	-3.8	61,118	3.2	61,129	0.0
운용자산 ³⁾	3,612,679	0.5	3,599,269	-0.4	3,568,750	-0.8	3,601,968	0.9	3,691,190	2.5
비운용자산	63,362	-0.9	72,410	14.3	100,891	39.3	77,001	-23.7	66,190	-14.0
총자산 ⁴⁾	3,676,041	0.5	3,671,679	-0.1	3,669,641	-0.1	3,678,969	0.3	3,757,380	2.1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전분기대비 증가율.

3)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4)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당기순이익, ROE, ROA〉

■ FY2016 3/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한 3,338억 엔을 나타냄.

■ 자본이익률은 전분기대비 0.5%p 하락한 5.9%를 기록함.

○ 자본은 22조 7,347억 엔으로 전분기에 비해 3.3% 증가함.

■ 총자산이익률은 전분기와 같은 0.4%를 기록함.

○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2.1% 증가한 375조 7,381억 엔을 기록함.

〈표 12〉 일본 생명보험 실적

(단위: 억 엔, %)

구분		FY2015			FY2016		
		2/4	3/4	4/4	1/4	2/4	3/4
당기순이익	금액	3,393	3,388	1,625	3,421	3,527	3,338
	증가율 ¹⁾	-22.5	42.0	-58.0	-31.3	4.0	-1.5
자본	금액	231,494	243,093	233,989	221,588	220,063	227,347
	증가율 ²⁾	-9.4	5.0	-3.7	-5.3	-0.7	3.3
총자산	금액	3,658,094	3,676,042	3,671,679	3,669,641	3,678,969	3,757,381
	증가율 ²⁾	-0.8	0.5	-0.1	-0.1	0.3	2.1
자본이익률 ³⁾		5.9	5.6	2.8	6.2	6.4	5.9
총자산이익률 ³⁾		0.4	0.4	0.2	0.4	0.4	0.4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전분기대비 증가율.

3) 연율화 수치.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 FY2016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한 2조 2,342억 엔으로 집계됨.

○ 화재보험은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하였으나, 해상보험, 운송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8.3%, 2.5% 감소함.

○ 자동차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1조 96억 엔으로 집계되었고, 자동차배상 책임 보험은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한 2,592억 엔으로 집계됨.

○ 상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한 2,337억 엔을 나타냈으며 특종보험은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한 3,002억 엔을 기록함.

〈표 13〉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엔, %)

구분 ^{2),3)}		FY2015			FY2016		
		3/4	4/4	연간	1/4	2/4	3/4
화재	보험료	3,712	3,386	15,913	3,437	3,411	3,727
	증가율	-10.3	-13.2	5.1	-9.0	-32.3	0.4
	구성비	16.8	15.6	17.6	14.8	15.4	16.7
해상	보험료	526	515	2,184	535	462	430
	증가율	-3.5	-10.1	-1.9	-11.2	-14.5	-18.3
	구성비	2.4	2.4	2.4	2.3	2.1	1.9
운송	보험료	161	166	654	171	150	157
	증가율	2.5	3.8	1.9	-0.3	-3.1	-2.5
	구성비	0.7	0.8	0.7	0.7	0.7	0.7
자동차	보험료	9,989	10,015	39,912	10,344	9,936	10,096
	증가율	2.8	2.5	3.3	2.0	1.7	1.1
	구성비	45.3	46.2	44.0	44.6	44.7	45.2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2,461	2,483	10,210	2,595	2,503	2,592
	증가율	-3.5	-7.0	-0.8	-3.8	-2.5	5.3
	구성비	12.8	11.5	11.3	11.2	11.3	11.6
상해	보험료	2,402	2,237	9,995	2,802	2,529	2,337
	증가율	-9.0	-1.3	-3.6	-3.0	2.5	-2.7
	구성비	10.9	10.3	11.0	12.1	11.4	10.5
특종	보험료	2,820	2,881	11,770	3,306	3,224	3,002
	증가율	11.2	9.9	8.0	7.0	8.1	6.5
	구성비	12.8	13.3	13.0	14.3	14.5	13.4
합계	보험료	22,071	21,682	90,637	23,191	22,215	22,342
	증가율	-0.9	-1.3	2.7	-0.8	-5.5	1.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대비 기준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지급률〉

■ FY2016 3/4분기 손해보험 지급률은 53.6%로 전분기보다 1.4%p 상승함.

-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한 2조 2,342억 엔을 기록함.
-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6.0% 감소한 1조 1,964억 엔을 기록함.

〈표 14〉 일본 손해보험 지급률

(단위: 억 엔, %)

구분		FY2015			FY2016		
		2/4	3/4	4/4	1/4	2/4	3/4
원수보험료	금액	23,517	22,071	21,682	23,191	22,215	22,342
	증가율 ¹⁾	9.6	-0.9	-1.3	-0.8	-5.5	1.2
지급보험금	금액	11,129	12,730	11,640	13,790	11,586	11,964
	증가율	-1.3	10.8	-1.0	29.1	4.1	-6.0
지급률 ²⁾		47.3	57.7	53.7	59.5	52.2	53.6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지급률=지급보험금/원수보험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자산운용〉

■ FY2016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3.0% 증가한 31조 3,013억 엔으로 집계됨.

- 현금 및 예금, 대출금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4.1%, 2.7% 증가함.
- 반면, 단기자금, 환매조건부채권, 매입금전채권, 금전신탁, 부동산의 자산규모는 전분기보다 각각 85.5%, 32.4%, 49.3%, 2.9%, 0.6% 감소함.
- 유가증권의 경우 국채, 지방채, 회사채를 제외한 기타 유가증권의 증가로 전분기대비 4.4% 증가한 23조 4,717억 엔으로 집계됨.
 - 국채, 지방채, 회사채의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3.4%, 1.6%, 0.8% 감소함.
 - 주식, 외화증권, 기타증권의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12.9%, 5.2%, 2.3% 증가함.

〈표 15〉 일본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5				FY2016					
	3/4		4/4		1/4		2/4		3/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13,729	-20.9	17,034	24.1	14,905	-12.5	18,525	24.3	19,288	4.1
단기자금	6,402	-25.8	407	-93.6	2,415	493.4	1,032	-57.3	150	-85.5
환매조건부채권	3,907	-38.2	1,130	-71.1	1,310	15.9	2,100	60.3	1,420	-32.4
매입금전채권	3,771	50.3	1,964	-47.9	2,073	5.5	2,045	-1.3	1,036	-49.3
금전신탁	1,387	4.1	1,994	43.8	1,890	-5.2	2,071	9.6	2,011	-2.9
유가증권	233,743	5.8	230,969	-1.2	220,815	-4.4	224,893	1.8	234,717	4.4
- 국채	57,026	-1.7	58,935	3.3	58,694	-0.4	57,319	-2.3	55,364	-3.4
- 지방채	3,198	6.6	3,432	7.3	3,292	-4.1	3,196	-2.9	3,144	-1.6
- 회사채	24,791	2.6	26,174	5.6	25,978	-0.7	26,647	2.6	26,447	-0.8
- 주식	78,245	5.8	66,767	-14.7	59,534	-10.8	63,861	7.3	72,105	12.9
- 외화증권	67,865	14.7	73,029	7.6	70,998	-2.8	71,377	0.5	75,108	5.2
- 기타증권	2,616	-0.4	2,632	0.6	2,318	-11.9	2,492	7.5	2,549	2.3
대출금	15,417	1.8	19,038	23.5	17,784	-6.6	19,043	7.1	19,561	2.7
부동산	9,613	-0.9	9,491	-1.3	9,454	-0.4	9,405	-0.5	9,352	-0.6
운용자산	287,969	2.1	282,027	-2.1	270,645	-4.0	279,116	3.1	287,536	3.0
비운용자산 ²⁾	25,507	-2.0	26,472	3.8	29,650	12.0	24,798	-16.4	25,475	2.7
총자산	313,476	1.8	308,500	-1.6	300,296	-2.7	303,914	1.2	313,013	3.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 전분기대비 증가율로서,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가입금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険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状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険会社資金運用状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険)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険)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険),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険), 재형보험(財形保険),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険),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険),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険)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険)	특종보험

4. 중국²⁶⁾

가. 총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 2016년 4/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5,79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함.
 - 손해보험 증가율이 상승하였으나 인보험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 증가율도 하락함.
 - 2016년 연간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27.5% 증가한 3조 959억 위안으로 집계됨.
- 2016년 4/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14.4% 증가한 2,762억 위안임.
 -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2016년 2/4분기 25.3%, 3/4분기 21.0%에 이어 계속 하락하고 있음.
 - 2016년 연간 지급보험금은 1조 51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1.2% 증가함.
- 2016년 4/4분기 사업비는 전년동기대비 17.1% 증가한 1,210억 위안으로 집계됨.
 - 2016년 연간 사업비는 전년대비 16.7% 증가한 3,896억 위안으로 나타남.

26)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産保險)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국 보험산업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표 16〉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입보험료	금액	5,242	24,283	11,979	6,834	6,355	5,791	30,959
	증가율 ²⁾	21.9	20.0	42.2	29.5	19.1	10.5	27.5
인보험	금액	3,158	16,288	9,825	4,686	4,287	3,437	22,235
	증가율	29.5	25.0	52.4	44.7	24.4	8.8	36.5
손해보험	금액	2,084	7,995	2,154	2,148	2,069	2,354	8,724
	증가율	12.0	11.0	8.9	5.3	9.3	13.0	9.1
지급보험금	금액	2,414	8,674	2,891	2,371	2,488	2,762	10,513
	증가율	22.0	20.2	25.1	25.3	21.0	14.4	21.2
인보험	금액	1,112	4,480	1,815	1,281	1,332	1,358	5,787
	증가율	33.6	30.7	29.9	31.7	33.4	22.1	29.2
손해보험	금액	1,302	4,194	1,076	1,090	1,156	1,405	4,726
	증가율	13.6	10.7	17.6	18.4	9.3	7.9	12.7
사업비	금액	1,033	3,337	838	930	917	1,210	3,896
	증가율	20.6	19.3	19.9	17.2	13.1	17.1	16.7

주: 1) 상기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자산운용〉

■ 2016년 4/4분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3.3% 증가한 15조 1,169억 위안임.

○ 이 중 운용자산은 13조 3,911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4.4% 증가하였고, 비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4.3% 감소한 1조 7,258억 위안임.

■ 예치금 및 기타 자산 규모는 전분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채권, 주식 및 주식형 펀드 규모는 전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예치금 및 기타 자산 규모는 각각 2조 4,844억 위안, 4조 8,228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8.2%, 10.6%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15.7%, 29.8%에서 16.4%, 31.9%로 상승함.

○ 채권, 주식 및 주식형 펀드 규모는 각각 전분기대비 0.9%, 2.7% 감소한 4조 3,050억 위안, 1조 7,788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8.5%, 11.8%로 전분기에 비해 1.2%p, 0.7%p 하락함.

〈표 17〉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운용자산계	금액	111,795	111,795	119,943	125,629	128,286	133,911	133,911
	증가율 ³⁾	7.6	19.8	7.3	4.7	2.1	4.4	19.8
	구성비	90.5	90.5	86.6	88.1	87.7	88.6	88.6
예치금	금액	24,350	24,350	26,510	23,605	22,961	24,844	24,844
	증가율	-4.2	-3.8	8.9	-11.0	-2.7	8.2	2.0
	구성비	19.7	19.7	19.1	16.5	15.7	16.4	16.4
채권	금액	38,446	38,446	40,392	42,078	43,435	43,050	43,050
	증가율	6.2	8.0	5.1	4.2	3.2	-0.9	12.0
	구성비	31.1	31.1	29.2	29.5	29.7	28.5	28.5
주식 및 주식형 펀드	금액	16,969	16,969	16,821	16,959	18,282	17,788	17,788
	증가율	23.5	64.3	-0.9	0.8	7.8	-2.7	4.8
	구성비	13.7	13.7	12.1	11.9	12.5	11.8	11.8
기타 자산 ⁴⁾	금액	32,030	32,030	36,219	42,986	43,608	48,228	48,228
	증가율	12.1	45.1	13.1	18.7	1.4	10.6	50.6
	구성비	25.9	25.9	26.1	30.1	29.8	31.9	31.9
비운용자산계 ⁵⁾	금액	11,802	11,802	18,592	17,031	18,033	17,258	17,258
	증가율	-0.4	42.6	57.5	-8.4	5.9	-4.3	46.2
	구성비	9.5	9.5	13.4	11.9	12.3	11.4	11.4
총자산	금액	123,598	123,598	138,535	142,661	146,319	151,169	151,169
	증가율	6.8	21.7	12.1	3.0	2.6	3.3	22.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말잔액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전분기대비.

4) 기타 자산은 부동산, 인프라시설 자산 등임.

5) 비운용자산은 미수금, 장기주식투자, 유무형 자산 등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인보험²⁷⁾

〈수입보험료〉

■ 2016년 4/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3,43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함.

-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인보험 증가율이 하락함.
 - 2016년 4/4분기 생명보험 증가세 둔화는 생명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조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²⁸⁾
 - 2015년 4/4분기 건강보험 증가율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2016년 4/4분기 건강보험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6년 연간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2조 2,23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6.5% 증가함.

■ 2016년 4/4분기 생명보험²⁹⁾ 건강보험³⁰⁾ 증가율은 둔화됐으나 상해보험 증가율은 확대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8.7% 증가한 2,658억 위안,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대비 6.7% 증가한 612억 위안이었음.
-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0.8% 증가한 166억 위안으로 집계됨.
- 한편, 2016년 연간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대비 31.7%, 67.7%, 18.0% 증가한 1조 7,442억 위안, 4,042억 위안, 750억 위안임.

27) 중국의 인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함.

28)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16년 9월부터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일련의 규제강화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의 중·단기 생명보험 판매가 크게 감소함 (이해량(2017. 2. 20), 「중국의 생명보험산업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29) 중국의 생명보험은 크게 전통형과 투자형 상품으로 구분되어 있음. 배당금이 없는 정기보험, 종신보험, 양로보험, 연금보험은 전통형 상품으로 통칭되며 투자형 상품은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 등이 있음.

30) 중국의 건강보험은 한국과 유사하며 의료보험, 질병보험, 소득보장보험, 간병보험 등이 있음.

〈표 18〉 인보험 수입보험료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보험료	3,158	16,288	9,825	4,686	4,287	3,437	22,235
	증가율 ²⁾	29.5	25.0	52.4	44.7	24.4	8.8	36.5
생명보험	보험료	2,446	13,242	8,459	3,302	3,023	2,658	17,442
	증가율	22.4	21.5	50.2	33.3	12.6	8.7	31.7
건강보험	보험료	574	2,410	1,169	1,191	1,071	612	4,042
	증가율	75.6	51.9	79.3	100.4	81.3	6.7	67.7
상해보험	보험료	138	636	197	194	193	166	750
	증가율	21.0	17.1	22.2	15.4	14.2	20.8	18.0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 2016년 4/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1,35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1% 증가함.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지급보험금은 각각 992억 위안, 314억 위안, 5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0.7%, 27.1%, 21.3% 증가함.

○ 한편, 2016년 연간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5,78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9.2% 증가함.

〈표 19〉 인보험 지급보험금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보험금	1,112	4,480	1,815	1,281	1,332	1,358	5,787
	증가율 ²⁾	33.6	30.7	29.9	31.7	33.4	22.1	29.2
생명보험	보험금	822	3,565	1,544	1,031	1,036	992	4,603
	증가율	31.9	30.7	29.2	32.5	34.5	20.7	29.1
건강보험	보험금	247	763	227	210	250	314	1,001
	증가율	42.3	33.6	34.6	29.7	34.5	27.1	31.2
상해보험	보험금	43	152	44	41	46	52	183
	증가율	20.5	18.2	34.1	19.8	9.7	21.3	20.5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률〉

- 2016년 4/4분기 인보험 지급률은 전분기 31.1%에서 39.5%로 상승함.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지급률은 각각 37.3%, 51.2%, 31.0%인 것으로 집계됨.
- 한편, 2016년 연간 인보험 지급률은 26.0%로 2015년에 비해 1.5%p 하락함.

〈표 20〉 인보험 지급률¹⁾

(단위: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35.2	27.5	18.5	27.3	31.1	39.5	26.0
생명보험	33.6	26.9	18.2	31.2	34.3	37.3	26.4
건강보험	43.0	31.7	19.5	17.6	23.3	51.2	24.8
상해보험	30.9	23.9	22.5	21.0	24.1	31.0	24.4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6년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6년 3/4분기에 비해 하락하였고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함.
-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91.6%로 전분기에 비해 2.6%p 하락하였으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전분기 5.8%에서 8.4%로 상승함.
- 한편,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³¹⁾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6.0%p 하락한 50.2%로 나타났다으며,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ICBC-AXA Life, AIA China Life, Cigna-CMB Life임.

31)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는 Ping An Life, China Life, CPIC Life, New China Life, Tai Ping Life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6.9%, 16.2%, 6.0%, 5.7%, 5.3%임(2016년 4/4분기 기준).

〈표 21〉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중국계	상위 5사	46.6	55.6	51.2	53.7	56.2	50.2	48.4
		중·소형사 ³⁾	44.9	38.1	42.5	40.7	38.0	41.4	45.2
		소계	91.5	93.8	93.7	94.4	94.2	91.6	93.6
	외국계		8.5	6.2	6.3	5.6	5.8	8.4	6.4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5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³²⁾〉

■ 2016년 4/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35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3.0% 증가함.

○ 2016년 4/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는 자동차시장의 고성장³³⁾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성장세로 인해 확대됨.

○ 한편, 2016년 연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8,72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함.

〈표 22〉 손해보험 수입보험료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보험료	2,084	7,995	2,154	2,148	2,069	2,354	8,724
	증가율 ²⁾	12.0	11.0	8.9	5.3	9.3	13.0	9.1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32) 중국은 원수보험료가 아니고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손해보험 보험료를 발표하고 있음.

33) 2016년 4/4분기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653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함.

〈지급보험금〉

■ 2016년 4/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1,40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7.9% 증가함.

○ 한편, 2016년 연간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4,72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함.

〈표 23〉 손해보험 지급보험금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보험금	1,302	4,194	1,076	1,090	1,156	1,405	4,726
	증가율 ²⁾	13.6	10.7	17.6	18.4	9.3	7.9	12.7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률〉

■ 2016년 4/4분기 손해보험 지급률은 59.7%로 전분기에 비해 3.8%p 상승함.

○ 한편, 2016년 연간 손해보험 지급률은 54.2%로 2015년에 비해 1.7%p 상승함.

〈표 24〉 손해보험 지급률¹⁾

(단위: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62.5	52.5	49.9	50.7	55.9	59.7	54.2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6년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와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6년 3/4분기와 유사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0.1%p 하락한 97.9%로 나타났으나,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는 전분기 2.0%에서 2.1%로 상승함.

- 한편,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상위 3사³⁴⁾의 시장점유율은 62.1%로 전분기에 비해 1.3%p 하락하였으며,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AXA Tianping, Groupama AVIC, Liberty China 등임.

〈표 25〉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 보험	중국계	상위 3사	62.6	64.0	64.5	62.7	63.4	62.1	63.1
		중·소형사 ³⁾	35.2	33.9	33.6	35.2	34.5	35.8	34.9
		소계	97.8	97.9	98.1	97.9	98.0	97.9	98.0
	외국계		2.2	2.1	1.9	2.1	2.0	2.1	2.0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5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34)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PICC P&C, Ping An P&C, CIPC P&C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3.5%, 19.2%, 10.4%임(2016년 4/4분기 기준).

라. 연금보험³⁵⁾

■ 2016년 4/4분기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26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7.2% 증가하였으며, 누적 운용보험료는 5,167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6.4% 증가함.

○ 한편, 2016년 연간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94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함.

〈표 26〉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탁보험료 ²⁾	금액	204	874	264	214	204	260	942
	증가율 ²⁾	21.9	44.1	3.2	-13.6	22.8	27.2	7.8
누적 운용보험료	금액	4,169	4,169	4,323	4,545	4,855	5,167	5,167
	증가율 ³⁾	7.4	31.9	3.7	5.1	6.8	6.4	23.9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수탁보험료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3) 전분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35) 이는 2004년 5월 기업연금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연금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기업연금보험을 의미하며, 현재 중국에 기업연금보험을 취급하는 연금보험회사는 타이핑, 평안, 런쑤우, 장장, 타이강 등이 있음.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産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産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투자형 상품인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형 상품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産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신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다를 수 있음.

부 록. 통계표

〈부록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1/4	2/4	3/4	4/4
국내총생산 성장률		2.6	2.4	3.0	3.2	2.9	3.4	2.6	2.4
경상수지 ³⁾		23,222	26,951	28,246	27,520	25,350	26,337	21,510	25,481
수출 ⁴⁾		131,427	142,086	133,550	135,818	118,316	128,243	127,558	137,658
수입 ⁴⁾		106,911	108,419	102,231	103,051	89,362	94,709	99,290	107,969
실업률		4.1	3.8	3.4	3.1	4.3	3.8	3.6	3.2
금리	국고채(3년)	1.98	1.80	1.72	1.70	1.53	1.42	1.26	1.55
	회사채(3년)	2.26	2.04	1.98	2.07	2.01	1.88	1.67	1.99
소비자물가지수 ⁵⁾		99.73	99.94	100.24	100.08	100.59	100.78	100.97	101.54
환율	원/달러	1,100.26	1,097.77	1,167.80	1,157.69	1,201.44	1,163.30	1,121.37	1,157.37
	원/엔화	923.39	904.73	955.75	953.07	1,042.81	1,076.07	1,095.01	1,058.43
KOSPI		1,964.87	2,095.29	1,983.39	1,999.03	1,926.92	1979.91	2,026.89	2,012.29
외환보유고		362,750	374,749	368,114	367,962	369,840	369,890	377,770	371,102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분기평균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0년 연쇄가격 기준임.

3)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 수지를 모두 합한 값임.

4) 상품 수출 및 수입을 의미함.

5) 2015=100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부록 표 2〉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수입보험료	246,848 (2.7)	57,044 (-9.3)	53,563 (-12.4)	52,363 (-14.6)	51,308 (-16.5)	214,279 (-13.2)
	초회보험료 ²⁾	62,198 (-6.7)	11,565 (-34.5)	8,542 (-44.0)	7,872 (-47.8)	6,510 (-54.3)	34,489 (-44.5)
	계속보험료 ³⁾	184,650 (6.3)	45,479 (0.5)	45,021 (-1.9)	44,491 (-3.8)	44,799 (-5.2)	179,790 (-2.6)
사망	수입보험료	360,361 (8.6)	96,491 (8.4)	95,863 (8.4)	96,798 (6.9)	97,454 (5.5)	386,607 (7.3)
	초회보험료	20,272 (89.1)	7,470 (16.1)	4,252 (5.9)	4,082 (-23.6)	3,323 (-25.8)	19,126 (-5.7)
	계속보험료	340,089 (5.9)	89,022 (7.8)	91,611 (8.5)	92,716 (8.8)	94,132 (7.1)	367,480 (8.1)
생사 혼합	수입보험료	213,771 (6.6)	66,400 (27.9)	56,050 (4.8)	56,533 (10.5)	49,312 (-13.8)	228,294 (6.8)
	초회보험료	43,169 (-2.3)	22,310 (91.9)	13,059 (20.8)	12,424 (42.5)	7,560 (-37.1)	55,353 (28.2)
	계속보험료	170,602 (9.1)	44,090 (9.4)	42,990 (0.7)	44,109 (3.9)	41,752 (-7.6)	172,941 (1.4)
변액 보험	수입보험료	206,431 (-0.1)	48,231 (-5.7)	48,052 (-10.2)	49,786 (-5.4)	47,993 (-2.3)	194,062 (-6.0)
	초회보험료	12,831 (22.8)	2,152 (-8.1)	2,624 (-33.5)	4,380 (5.1)	3,660 (-54.0)	12,815 (-0.1)
	계속보험료	193,600 (-1.4)	46,079 (-5.5)	45,428 (-8.4)	45,406 (-6.3)	44,333 (-5.2)	181,247 (-6.4)
개 인 계	수입보험료	1,027,412 (4.9)	268,166 (5.2)	253,528 (-1.2)	255,479 (-0.1)	246,068 (-5.4)	1,023,242 (-0.4)
	초회보험료	138,470 (4.9)	43,497 (14.3)	28,477 (-16.3)	28,757 (-13.7)	21,053 (-36.4)	121,784 (-12.0)
	계속보험료	888,942 (4.9)	224,669 (3.6)	225,051 (1.1)	226,722 (2.0)	225,016 (-0.9)	901,458 (1.4)
일반 단체	수입보험료	7,735 (-5.1)	2,120 (0.7)	1,902 (-0.2)	1,794 (-4.5)	1,803 (-2.3)	7,619 (-1.5)
	초회보험료	1,281 (1.2)	552 (15.1)	306 (18.3)	258 (-10.6)	260 (2.1)	1,375 (7.4)
	계속보험료	6,454 (-6.3)	1,568 (-3.5)	1,597 (-3.1)	1,536 (-3.4)	1,543 (-3.0)	6,243 (-3.3)
퇴직 연금	수입보험료	136,990 (15.9)	19,647 (20.7)	27,852 (39.3)	16,027 (13.7)	103,725 (19.7)	167,252 (22.1)
	초회보험료	43,436 (-15.5)	4,400 (-30.6)	5,094 (29.8)	3,295 (-23.7)	18,752 (-35.0)	31,542 (-27.4)
	계속보험료	93,553 (40.0)	15,247 (53.4)	22,758 (41.7)	12,731 (30.1)	84,973 (47.1)	135,710 (45.1)
단 체 계 ³⁾	수입보험료	144,725 (14.5)	21,767 (18.4)	29,755 (35.9)	17,821 (11.5)	105,529 (19.3)	174,871 (20.8)
	초회보험료	44,717 (-15.1)	4,952 (-27.4)	5,400 (29.1)	3,553 (-22.9)	19,012 (-34.7)	32,917 (-26.4)
	계속보험료	100,008 (35.7)	16,815 (45.4)	24,355 (37.5)	14,267 (25.5)	86,516 (45.8)	141,954 (41.9)
합계	수입보험료	1,172,137 (6.0)	289,933 (6.1)	283,283 (1.7)	273,300 (0.6)	351,597 (0.9)	1,198,112 (2.2)
	초회보험료	183,187 (-0.8)	48,449 (8.0)	33,877 (-11.3)	32,311 (-14.8)	40,065 (-35.6)	154,701 (-15.5)
	계속보험료	988,950 (7.4)	241,484 (5.7)	249,406 (3.8)	240,989 (3.1)	311,532 (8.8)	1,043,411 (5.5)

주: 1)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1회 납입 보험료를 의미함.

3) 단체보험에는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2년 이후 퇴직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퇴직연금 의무 가입의 실시로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에 포함시켜 작성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1),2)}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38,160	142,048	37,057	37,199	37,752	40,896	152,904
	증가율	13.7	13.3	9.7	7.7	6.1	7.2	7.6
	지급률	62.1	57.5	65.0	69.4	72.1	79.7	71.4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44,450	174,183	47,084	45,866	46,046	47,027	186,024
	증가율	2.0	0.6	4.7	8.3	8.6	5.8	6.8
	지급률	48.1	48.3	48.8	47.8	47.6	48.3	48.1
생사 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27,589	117,682	31,838	31,452	31,724	33,525	128,539
	증가율	-3.2	-2.4	-2.6	6.0	14.5	21.5	9.2
	지급률	48.2	55.1	47.9	56.1	56.1	68.0	56.3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30,828	130,736	29,813	35,077	37,052	34,358	136,299
	증가율	4.1	4.6	-10.4	-5.7	26.0	11.4	4.3
	지급률	62.7	63.3	61.8	73.0	74.4	71.6	70.2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141,028	564,649	145,792	149,594	152,574	155,806	603,766
	증가율	4.3	3.8	0.7	4.0	12.9	10.5	6.9
	지급률	54.2	55.0	54.4	59.0	59.7	63.3	59.0
일반 단체	지급보험금	2,136	8,853	2,317	2,030	2,025	1,897	8,269
	증가율	-0.5	-10.6	-4.6	-9.5	-1.0	-11.2	-6.6
	지급률	115.7	114.5	109.3	106.7	112.9	105.2	108.5
퇴직 연금	지급보험금	43,375	96,222	21,620	17,432	16,925	48,822	104,799
	증가율	77.0	40.4	1.1	-5.2	29.4	12.6	8.9
	지급률	50.1	70.2	110.0	62.6	105.6	47.1	62.7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45,511	105,075	23,937	19,462	18,950	50,720	113,068
	증가율	70.8	33.9	0.6	-5.7	25.3	11.4	7.6
	지급률	51.4	72.6	110.0	65.4	106.3	48.1	64.7
전체	지급보험금	186,539	669,724	169,728	169,056	171,524	206,526	716,834
	증가율	15.2	7.6	0.7	2.8	14.2	10.7	7.0
	지급률	53.5	57.1	58.5	59.7	62.8	58.7	59.8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된 실적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1),2),3),4)}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	사업비	7,490	30,454	6,444	6,237	5,944	6,070	24,695
	증가율	-11.7	-4.0	-18.5	-18.2	-20.0	-19.0	-18.9
	사업비율	12.2	12.3	11.3	11.6	11.4	11.8	11.5
사망 보험	사업비	28,422	105,786	27,327	27,238	27,924	29,970	112,460
	증가율	3.2	4.6	8.3	6.4	5.3	5.4	6.3
	사업비율	30.8	29.4	28.3	28.4	28.8	30.8	29.1
생사 혼합 보험	사업비	3,933	15,811	3,721	3,430	3,392	3,321	13,863
	증가율	-13.5	-11.3	-9.3	-13.8	-10.7	-15.6	-12.3
	사업비율	6.9	7.4	5.6	6.1	6.0	6.7	6.1
개인 보험계	사업비	39,844	152,050	37,492	36,905	37,260	39,361	151,018
	증가율	-1.8	0.9	0.7	-0.8	-1.3	-1.2	-0.7
	사업비율	15.3	14.8	14.0	14.6	14.6	16.0	14.8
단체 보험계	사업비	1,060	3,985	295	1,003	1,037	1,068	4,071
	증가율	-5.9	-10.4	-70.1	4.7	5.8	0.7	2.2
	사업비율	1.2	2.8	1.4	3.4	5.8	1.0	2.3
전체	사업비	40,904	156,035	37,787	37,908	38,297	40,428	155,090
	증가율	-1.9	0.6	-1.2	-0.7	-1.1	-1.2	-0.6
	사업비율	11.7	13.3	13.0	13.4	14.0	11.5	12.9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에 포함된 실적임.

4)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5〉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¹⁾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재	보험료	893	3,041	720	733	693	865	3,011
	증가율	-1.3	-2.1	-1.2	-0.5	1.4	-3.1	-1.0
	구성비	0.4	0.4	0.4	0.4	0.4	0.4	0.4
해상	보험료	1,554	7,091	1,506	1,678	1,567	1,328	6,080
	증가율	-15.1	-3.4	-19.9	-8.7	-13.9	-14.5	-14.3
	구성비	0.7	0.9	0.8	0.8	0.8	0.5	0.8
자동차	보험료	39,992	149,914	39,382	41,387	41,133	42,151	164,053
	증가율	13.7	10.7	11.6	11.1	10.1	5.4	9.4
	구성비	17.5	18.7	19.9	20.2	20.9	17.2	20.4
보증	보험료	4,150	15,816	3,884	4,017	3,787	4,221	15,909
	증가율	2.5	4.4	-0.4	-0.9	2.0	1.7	0.6
	구성비	1.8	2.0	2.0	2.0	1.9	1.7	2.0
특종 ²⁾	보험료	13,088	51,622	14,102	14,785	12,053	13,736	54,677
	증가율	2.3	3.3	5.7	8.3	4.5	5.0	5.9
	구성비	5.7	6.4	7.1	7.2	6.1	5.6	6.8
해외 원보험	보험료	1,413	5,309	1,318	1,329	1,531	1,176	5,355
	증가율	-9.3	-9.0	8.3	18.5	-1.7	-16.7	0.9
	구성비	0.6	0.7	0.7	0.6	0.8	0.5	0.7
장기 손해	보험료	117,116	465,801	117,868	118,954	120,179	120,725	477,727
	증가율	4.2	4.9	1.2	2.9	3.1	3.1	2.6
	구성비	51.3	58.0	59.6	58.0	61.0	49.3	59.5
개인 연금	보험료	10,137	40,211	9,796	9,696	9,599	9,676	38,768
	증가율	-1.5	-2.1	-2.7	-3.2	-4.0	-4.5	-3.6
	구성비	4.4	5.0	5.0	4.7	4.9	3.9	4.8
퇴직 연금	보험료	39,918	63,668	9,227	12,571	6,347	51,247	79,392
	증가율	-10.1	-0.1	-10.2	60.3	12.6	28.4	24.7
	구성비	0.0	0.0	0.0	0.0	3.2	20.9	9.9
계	보험료	228,261	802,473	197,804	205,152	196,890	245,126	844,972
	증가율	2.2	4.8	2.4	6.8	4.3	7.4	5.3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2)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고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1),2)}

(단위: %)

구분		2015	2016			
		4/4	1/4	2/4	3/4	4/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32.3	59.9	51.9	43.5	70.5
	사업비율	50.4	48.6	43.8	43.8	40.4
	합산비율	82.7	108.6	95.7	87.3	110.9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69.8	64.7	35.5	42.8	168.3
	사업비율	45.5	32.8	29.0	35.1	41.0
	합산비율	115.3	97.5	64.5	77.9	209.3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26.9	26.9	47.5	53.6	38.7
	사업비율	21.3	15.2	18.8	17.7	21.0
	합산비율	48.2	42.1	66.3	71.3	59.8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65.5	66.2	70.1	64.2	68.6
	사업비율	20.2	18.1	15.5	19.5	20.9
	합산비율	85.7	84.3	85.6	83.7	89.5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15.5	75.4	85.8	105.8	171.1
	사업비율	69.3	57.8	52.4	37.3	73.5
	합산비율	84.8	133.2	138.2	143.1	244.6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72.7	61.7	66.0	39.6	110.1
	사업비율	30.4	34.2	33.0	32.2	27.9
	합산비율	103.1	95.9	99.0	71.8	138.0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92.2	82.2	82.1	79.8	87.8
	사업비율	19.2	18.3	18.4	18.5	18.3
	합산비율	111.4	100.5	100.5	98.4	106.1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³⁾	84.5	85.2	84.1	83.9	83.8
	사업비율	20.1	19.0	19.0	19.3	20.7
	합산비율	104.6	104.2	103.1	103.2	104.5
전체	경과손해율	82.9	81.6	81.3	79.9	83.8
	사업비율	20.6	19.4	19.2	19.6	20.7
	합산비율	103.4	101.0	100.5	99.5	104.5

주: 1)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3) 경과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 · 윤성훈 · 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 · 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 · 강성호 · 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7.3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장동식 ·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 이경희 ·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 ·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 이창우 ·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 ·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 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이태열 · 신중협 · 황진태 · 유진아 · 김세환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 · 이민환 · 유경원 · 최영목 · 최형선 · 최 원 · 이경아 ·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

- 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직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보험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

-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 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 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2015-7 일반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7
- 제 6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9113, 9080 팩스 : (02) 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이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7년 봄호 (통권 81호)

발행일	2017년 4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등 록	2016년 10월 7일(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40)
주 소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ISSN 1228-310X

정가 10,000원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76)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